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최 원(선임연구원)

김세중(선임연구원)

금융경제 최이섭(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생명보험 이경희(전문연구위원)

김세중(선임연구원)

손해보험 김대환(부연구위원)

최 원(선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미 국 김세중(선임연구원)

일 · 중 최이섭(연구원)

유 럽 이정환(선임연구원)

최 원(선임연구원)

보 험 동 향

2010년 가을호

목 차

테마진단	1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1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24
경제금융 동향	44
1. 세계경제	44
2. 국내경제	66
3. 금융경제	76
국내보험시장 동향	84
1. 보험산업 총괄	84
2. 생명보험	86
3. 손해보험	97
해외보험시장 동향	117
미국 동향	117
일본 동향	126
중국 동향	134
유럽 동향	142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156
통계표	169

테 마 진 단

❑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와 시사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최 원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한 부채 특성과 국내 채권시장의 제약, 2000년대 중반 이후 저금리 환경 도래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니즈가 증대되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FY2000~FY2009 간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를 수익률, 리스크, 위험조정수익률 및 분산투자 효과 측면에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2000년대 초반 저금리, 증시침체 등으로 국내 자산운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자 이차역마진을 해소하고, 금리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 전체 운용자산(현·예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대비 해외유가증권 비중은 FY2000 3.8%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점차 확대되어 FY2009에는 8.2%로 높아졌으며 전체 유가증권 대비 비중도 동기간 7.9%에서 12.2%로 높아졌음.

□ 생명보험회사의 해외투자는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액의 투자 손실을 기록함¹⁾에 따라 지급여력비율의 주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투자역량 배양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투자에 비해 시장 모니터링 능력이 떨어지므로 해외파생상품, 수익증권 등 고위험 해외자산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충격 시 단기간 내에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음.

1) 금융감독당국에서는 2010년 1월 특정 보험회사에 대해 해외유가증권 투자 과정에서 나타난 리스크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음.

- 생명보험업의 장기 보증에 따른 특성과 국내 자산운용 수단의 한계로 인해 해외투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므로 과거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해외투자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FY2000~FY2009 해외유가증권 투자 현황을 규모 및 비중, 단순수익률 및 위험 조정수익률, 해외유가증권의 분산투자 효과 측면에서 살펴볼 것임²⁾.
- 전사 및 회사 그룹을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로 분류하여 비교한 후 필요하면 개별사 간 상호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³⁾.

2. 해외유가증권 투자 필요성

생명보험회사는 금리확정형 장기 부채 비중이 전체 보험 부채의 50%를 초과할 정도로 높은 반면, 이에 대응시킬 수 있는 국내 장기채 시장은 매우 협소함. 특히 금리확정형 비중이 높은 대형사 및 중소형사는 국내 자산운용 수단의 한계로 인해 ALM 측면에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가. 금리리스크에 대한 노출

- 금리리스크란 시장금리가 변동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가치 변동분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리스크로 흔히 ALM(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리스크라고 불림.
- 일반적으로 금리 하락 시 자산의 가치 증가분보다 부채의 가치 증가분이 커서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을 의미함.
- 금리리스크는 금리 변동에 노출된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만기, 이자지급주기 등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함.

- 2) 해외유가증권 투자 관련 데이터는 FY1997부터 가용함. 그러나 FY1997~FY1999에는 산업 전체의 투자 규모가 3천억원~2조원 수준이며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2.3%에 불과함. 또한, 수익률의 변동성도 매우 높아 본고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시킴.
- 3) 2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회사그룹 구분은 다음과 같음. 대형사(3개): 삼성, 대한, 교보, 중소형사(10개): kdb(구 금호), 흥국, 녹십자, 동부, 동양, 미래에셋, 신한, 우리아비바, KB, 하나HSBC, 외국사(9개): 알리안츠, 메트라이프, 푸르덴셜, PCA, 뉴욕, ING, 라이나, AIA, 카디프.

-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자산과 부채 규모⁴⁾ 즉, 금리위험에 대한 익스포저⁵⁾가 크고, 부채 익스포저인 금리부부채와 자산 익스포저인 금리부자산의 크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⁶⁾.
- <표 1>은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 중 대표사 1개를 추출하여 금리 익스포저의 특징을 살펴본 것으로 A사와 B사는 금리민감도가 높은 금리확정형 부채의 비중이 금리연동형 부채 비중보다 크게 높음(A사 73.4%, B사 65.6%).
- 반면, 외국사는 금리민감도가 금리확정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연동형 비중이 더 높음.
- 금리부자산은 주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이 해당되며 A사는 대출채권 비중도 상당 수준을 차지함.
- 중소형 B사의 경우 금리부자산보다 금리부부채 규모가 16.8% 큰 것으로 나타나 금리위험에 노출됨.

-
- 4) 현행 회계기준상 자산은 시가평가 하는 데 비해 부채는 시가평가 하지 않으므로 금리부부채의 가치는 금리변동이 아니라 주로 신규계약 및 기간경과에 의한 보험료적립금 규모변동에 의해 발생함. 그러나 보험 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금리변동에 따른 부채 가치 변동을 인식해야 함.
 - 5) 각 위험에 대한 노출금액을 의미함.
 - 6) 금리부부채란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채에 대한 적립금을 말하며, 금리부자산이란 이자를 수취하는 자산을 의미함.

<표 1> 금리리스크 익스포저 분포 현황(2010년 3월 말)

(단위 : %, 배)

	대형A사	중소형B사	외국C사
금리부부채(가)	100.0	100.0	100.0
금리확정형 비중	73.4	65.6	42.2
금리연동형 비중	26.6	34.4	57.8
금리부자산(나)	100.0	100.0	100.0
예치금 비중	4.8	4.9	3.5
매도가능증권 비중	54.8	41.0	57.8
만기보유증권 비중	6.4	37.0	26.3
대출채권 비중	34.0	17.0	12.4
금리부부채(가)/금리부자산(나)	1.007	1.168	0.905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나. 금리리스크 관리

- 2009년 4월 1일 이후 개정된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risk based capital)⁷⁾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금리변동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분의 차이에 대한 위험량을 측정·관리해야 함.

- RBC 기준에 의한 금리위험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text{금리위험액} =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times \text{금리변동계수}$$

$$\text{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 = \sum_{\text{금리부자산}} (\text{금리부자산 익스포저} \times \text{금리민감도})$$

$$\text{보험부채 금리민감액} = \sum_{\text{보험부채}} (\text{보험부채 익스포저} \times \text{금리민감도})$$

7)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 금리민감액은 각 대상 익스포저에 해당 금리민감도를 곱한 금액으로 자산의 금리민감도는 듀레이션을 사용하며 부채의 민감도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금리 부리방식에 따른 계수를 사용함⁸⁾.
 - 금리변동계수는 금리부자산 금리민감액에서 보험부채 금리민감액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 2.0%, 음수인 경우 1.5%를 적용함.
 - 생명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자산배분(SAA: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수립하고 상품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 현상을 축소시키고자 노력함.
 -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부채의 금리와 만기구조를 감안하여 금리확정형 부채와 대응시킬 수 있는 장기 국고채·해외채 등 듀레이션이 큰 장기 안정자산의 편입을 확대하고자 노력함.
 - 상품운용 측면에서는 고금리 금리확정형 상품을 축소시키고 금리연동형 상품 판매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함.
 - 보험회사가 금리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자산운용 및 상품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의 잔존만기 불일치 현상이 일반적임.
 - A사는 금리부자산의 51.5%가 잔존만기 3년 이상으로 분류된 데 비해 금리부부채 중 3년 이상 비중은 71.3%에 달함.
 - 규모 측면에서 볼 때 만기 3년 이상 부채가 3년 이상 자산을 39%나 초과함.
 - B사도 금리부부채가 전체의 97.1%를 차지하는 데 비해 금리부자산은 7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3년 이상 금리부부채 규모가 3년 이상 금리부자산 규모를 54%나 초과함에 따라 금리리스크에 크게 노출됨.
- 8)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는 보장성·금리확정형 보험이 저축성·금리연동형보험보다 높음. 예를 들면, 금리확정형인 보장성사망보험 10.6인데 비해 금리연동형 보장성사망보험은 5.9이며, 금리확정형인 저축성보험은 4.4,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은 0.4로 낮아짐.

- 이에 비해 C사는 대부분의 금리부자산과 금리부부채가 잔존만기 3년 이상이며 절대 규모 측면에서 3년 이상 금리부자산과 3년 이상 금리부부채 간 거의 유사한 수준임.

<표 2> 잔존만기별 금리부자산·부채 분포 현황

(단위 : %, %p, 배)

		1년 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 이상	합 계
대형A사	금리부자산 비중(가)	25.6	22.9	51.5	100.0
	금리부부채 비중(나)	27.3	1.4	71.3	100.0
	차 이(나-가)	1.7	-21.5	19.8	0.0
	금리부부채/금리부자산	1.07	0.06	1.39	1.01
중소형B사	금리부자산 비중(가)	14.0	12.5	73.5	100.0
	금리부부채 비중(나)	1.3	1.6	97.1	100.0
	차 이(나-가)	-12.7	-10.9	23.6	0.0
	금리부부채/금리부자산	0.11	0.15	1.54	1.17
외국C사	금리부자산 비중(가)	1.5	4.6	93.9	100.0
	금리부부채 비중(나)	0.0	0.0	99.9	100.0
	차 이(나-가)	-1.4	-4.6	6.0	0.0
	금리부부채/금리부자산	0.02	0.01	0.96	0.90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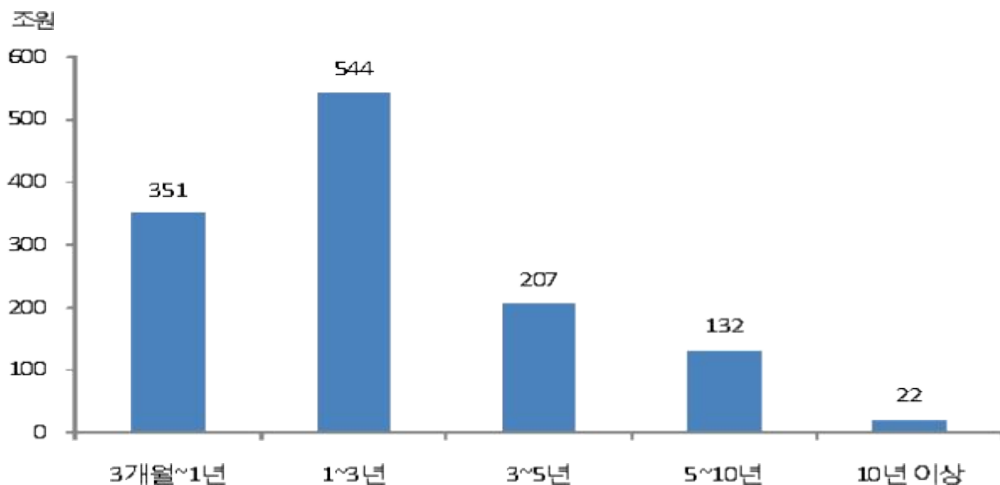
다. 국내 장기 채권 공급 현황

- ☐ 생명보험회사들은 금리리스크를 축소시키기 위해 채권에 대한 목표 듀레이션을 설정하고 장기채를 편입시키는 전략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장기채 공급이 제한되어 있음.
- 2009년 2월 말 기준 전체 발행 채권의 71.3%가 3년 미만이며 3~5년물과 5~10년물도 각각 16.5%, 10.5%에 불과함.
- ☐ 생명보험회사의 금리확정형 부채의 만기와 대응될 수 있는 10년물 이상 채권의 발행 규모는 전체 발행금액의 1.7%에 불과한 22조원 수준임⁹⁾.

9) 채권 종류별로는 국고채가 85.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수채와 은행채 비중이 각각 9.6%, 4.8%임.

- 특정사의 금리확정형 부채 규모가 49조원(FY2009 기준) 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회사가 장기 부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장기 채권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음.

<그림 1> 만기별 채권발행금액(2009년 2월 말)



자료 : KIS채권평가사

3. 해외유가증권 투자 성과

가. 투자 현황 및 규모

FY2000 이후 해외유가증권 보유 규모 및 비중이 크게 확대되어 FY2009 기준 자산 규모는 2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전체 유가증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2%로 높아져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

- 2010년 3월 기준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81.8%에 달하는 18개사가 해외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내 생명보험회사가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남.

- FY2000 기준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한 생명보험회사는 10개사에 불과하였으며 주로 대형사 및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형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금리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꾸준히 늘어난 것임.
-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하지 않는 회사의 대부분은 자산 규모가 작은 외국사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생명보험회사별 해외유가증권 투자 여부 변화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전 체
회 사	1	2	3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22	
2001.3	√	√	√	√	√		√	√	√				√			√							10	
2010.3	√	√	√	√	√	√	√	√	√	√	√	√	√	√	√	√	√	√					18	

주 : √는 해외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함.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 경과자산¹⁰⁾ 기준 FY2009 해외유가증권 규모는 FY2000 대비 5.8배 이상 증대된 20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형사 자산이 85.7%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해외유가증권 투자가 대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유가증권 규모는 FY2000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FY2008에 21조 8천억원으로 최고치를 보인 후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FY2009에는 20조 6천억원으로 축소됨.
- 전체 해외유가증권 규모 중 대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7%(운용자산 기준 점유비 70.5%)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데 이는 금리확정형 장기 부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해외투자 관련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으로 보임.

10) 경과자산($\frac{\text{연초자산} + \text{연말자산} - \text{투자손익}}{2}$) 기준 자산규모임.

- 그러나 비중 추이는 중소형사가 FY2000 6.3%에서 FY2009 9.5%로 높아졌으며, 외국사는 동 기간 중 5.8%에서 4.8%로 낮아지고 대형사도 87.8%에서 85.7%로 낮아짐.

<표 4> 해외유가증권과 운용자산 규모

(단위 : 10억원, %)

구 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FY2007	FY2008	FY2009
해외유가증권	대형3사	3,108	4,837	7,324	7,530	8,362	10,854	13,030	17,130	18,635	17,692
		87.8	87.7	88.4	82.8	83.9	83.6	82.9	83.6	85.5	85.7
	중소형사	222	388	732	907	964	1,107	1,382	1,894	2,036	1,967
		6.3	7.0	8.8	10.0	9.7	8.5	8.8	9.2	9.3	9.5
	외국사	206	293	232	315	639	1,026	1,310	1,460	1,113	991
		5.8	5.3	2.8	3.5	6.4	7.9	8.3	7.1	5.1	4.8
	전 사	3,541	5,517	8,287	9,090	9,964	12,988	15,722	20,484	21,785	20,6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용자산	대형3사	75,078	85,137	98,086	111,026	122,602	132,373	143,653	154,645	165,761	178,486
		80.4	82.2	82.1	81.1	79.2	77.2	75.2	73.5	72.2	70.5
	중소형사	10,764	12,629	13,562	15,534	18,216	21,391	25,460	29,620	34,089	40,696
		11.5	12.2	11.4	11.3	11.8	12.5	13.3	14.1	14.8	16.1
	외국사	4,569	5,868	7,784	10,346	13,918	17,688	21,841	26,240	29,835	33,660
		4.9	5.7	6.5	7.6	9.0	10.3	11.4	12.5	13.0	13.3
	전 사	93,333	103,636	119,434	136,957	154,737	171,452	190,953	210,505	229,685	253,2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일반계정 경과자산 기준임.

2) 상단 수치는 투자자산 규모이며 하단 수치는 전사대비 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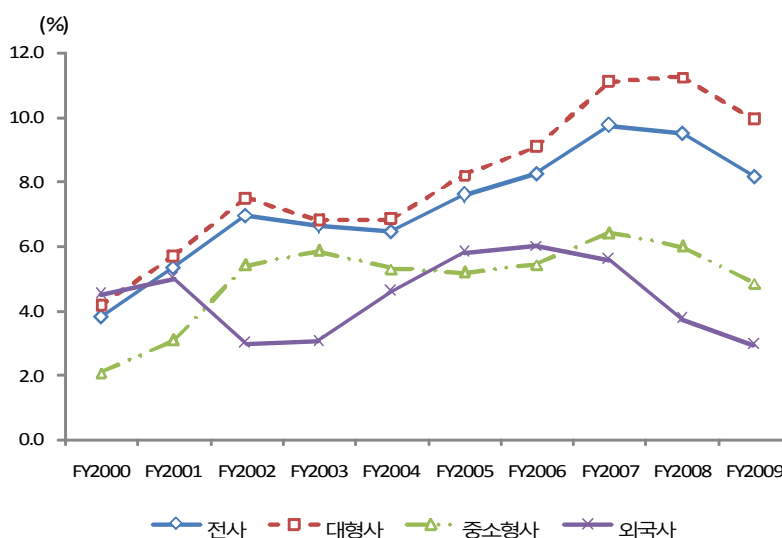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 전체 운용자산에서 해외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FY2000 3.8%에서 FY2007에는 9.7%까지 높아졌으나 FY2009 들어 8.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유가증권 투자 규모뿐만 아니라 전체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됨.

- 금융위기 전인 FY2007 대비 금융위기 후인 FY2009 감소 폭은 대형사 1.2%p(11.1%→9.9%), 중소형사 1.6%p(6.4%→4.8%), 외국사 2.7%p(5.6%→2.9%)로 나타나 외국사의 감소 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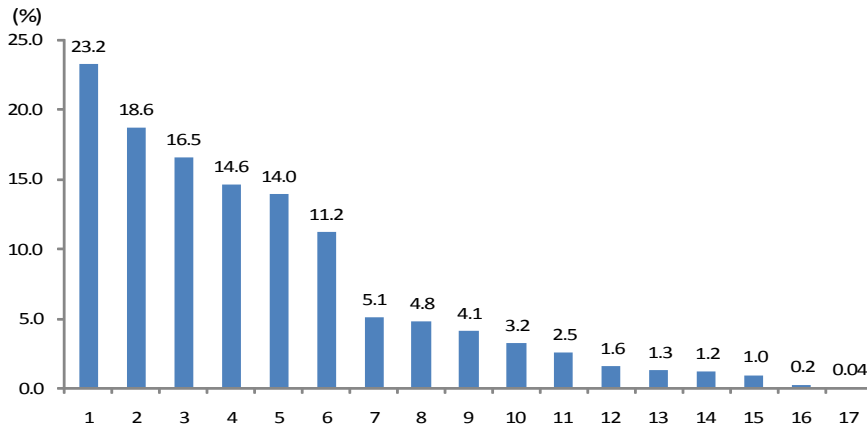
<그림 2> 운용자산 대비 해외유가증권 비중



주 :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 수치는 개별사의 비중을 단순평균한 것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 FY2009 기준 전체 유가증권 중 해외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위기 전인 FY2007 14.4%에 비해 감소된 것임.
- 개별 회사별로 살펴보면 최대 23.2%에 달하는 회사도 있으며 최소 0.04%로 아주 미미한 회사도 있어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임(<그림 3> 참조).
- 10%를 초과하는 회사 1~6은 대부분 대형사, 중소형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사에 비해 금리확정형 장기부채 보유가 많은 국내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 1은 전체 유가증권 대비 해외유가증권 비중이 23.2%에 달할 정도로 해외자산 의존도가 높음.

<그림 3> 회사별 전체 유가증권 대비 해외유가증권 비중(FY2009)



주 : 경과자산 기준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나. 지역별·자산항목별 투자 내역

해외유가증권의 지역별·자산항목별 분포를 보면 미국(38.5%), 채권(80.0%)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신증유가증권 및 기타유가증권 비중이 타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유가증권의 투자 지역 분포는 미국이 38.5%로 가장 높고, 역외지역 37.7%, 유럽 22.3%, 아시아 1.5% 순임.
- 유럽에서는 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 시장 위주로 투자하고 있음.
- 이에 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신흥시장(중국, 베트남, 베네수엘라 등)에 대한 투자는 특정사에 국한되어 있어 전사 차원에서는 거의 미미함.
- 케이만제도, 저지아일랜드 등 역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37.7%에 달함¹¹⁾.

11)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공시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투자 대상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역외지역으로 구분하였음.

- 해외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기타(수익증권, 신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등 자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채권의 투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전체 해외유가증권의 80.0%가 채권에 투자된 것이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기타자산의 비중은 17.9%, 주식 비중은 1.9%에 불과함.
- 투자 지역별·자산 항목별로 볼 때, 미국·채권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반적으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목적이 국내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고수익 추구보다는 자산-부채 매칭을 위한 안정적인 장기채권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 및 외국사 간 자산항목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대형사는 미국·채권 중심의 투자 양상을 보이는 데 비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타유가증권의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대형사에 비해 유럽, 아시아 비중이 높은 편임.
 - 이는 일부 중소형사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해외투자자산을 편입시킨 데 따른 것으로 보임.

<표 5> 투자 대상 지역 · 자산항목별 비중(FY2009)

(단위 : %)

구 분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기타자산	계
			채권	주식	기타*		
전 사	미국	0.0	30.1	0.7	7.6	0.0	38.5
	유럽	0.1	19.5	0.0	2.7	0.0	22.3
	아시아**	0.0	0.1	0.4	1.1	0.0	1.5
	역외***	0.1	30.4	0.9	6.4	0.0	37.7
	계	0.2	80.0	1.9	17.9	0.0	100.0
대형사	미국	0.0	30.2	0.6	7.3	0.0	38.1
	유럽	0.1	19.6	0.0	1.9	0.0	21.5
	아시아	0.0	0.0	0.4	0.0	0.0	0.4
	역외	0.1	32.8	0.7	6.4	0.0	39.9
	계	0.2	82.5	1.7	15.6	0.0	100.0
중소형사	미국	0.8	27.1	1.0	1.1	0.2	30.2
	유럽	0.0	7.0	0.0	27.1	0.1	34.2
	아시아	0.1	0.0	0.0	2.8	0.0	2.9
	역외	0.0	15.3	8.6	8.7	0.1	32.7
	계	0.8	49.4	9.7	39.7	0.4	100.0
외국사	미국	0.0	30.6	1.1	14.7	0.0	46.4
	유럽	0.0	24.3	0.0	1.4	0.0	25.7
	아시아	0.0	1.2	0.1	13.5	0.0	14.8
	역외	0.0	7.8	0.0	5.3	0.0	13.1
	계	0.0	63.9	1.2	34.9	0.0	100.0

주 : 1) * 수익증권, 신종유가증권, 기타유가증권

2) ** 국내운용분(한국물) 제외

3) *** 케이만제도, 저지아일랜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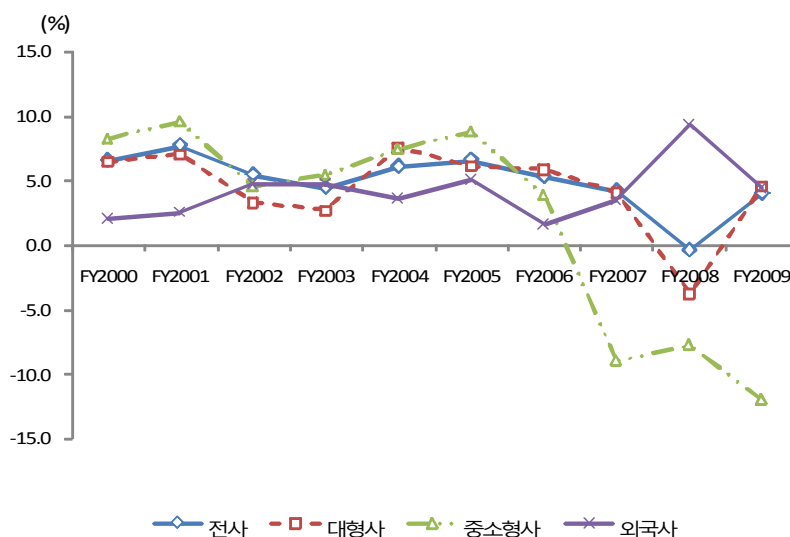
자료 : 각 사 경영공시자료

다. 투자 수익률

해외투자자로 인한 수익률은 FY2000 중반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시 마이너스 수익률을 시현하였음. 수익률이 높은 회사는 대체로 리스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내유가증권 투자에 비해 감내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높지 않음.

-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FY2005 이후 수익률 하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2000과 FY2001에는 6.5%, 7.7%의 높은 이익률을 보였으나 FY2008에는 -0.5%로 폭락하였고 FY2009에도 4.0%에 그침.
- 중소형사는 FY2000~FY2001에는 8~9%의 높은 이익률을 보였으나 FY2007 이후에는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함(FY2007 -9.0%, FY2008 -7.8%, FY2009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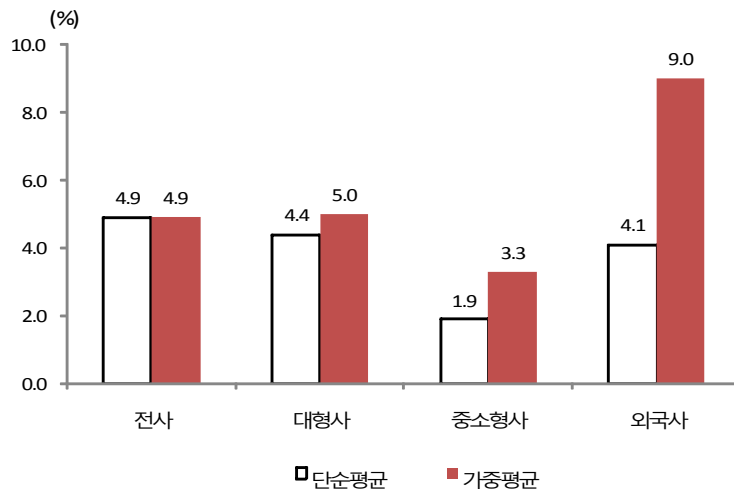
<그림 4> 해외유가증권 투자 수익률 추이



주 : 대형사, 중소형사 및 외국사 수치는 개별 회사의 단순평균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 FY2000~FY2009 연평균 해외유가증권 수익률은 4.9%에 달하지만, 회사 그룹별로 보면 단순평균한 값보다 가중평균한 값이 더 높아 자산 규모가 큰 회사의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순평균 기준으로 보면 대형사 4.4%, 중소형사 1.9%, 외국사 4.1%로 나타나지만, 가중평균 기준으로 보면 대형사 5.0%, 중소형사 3.3%, 외국사 9.0%로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해외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더 큰 회사의 수익률이 작은 회사의 이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그림 5> 해외유가증권 수익률(FY2000~FY2009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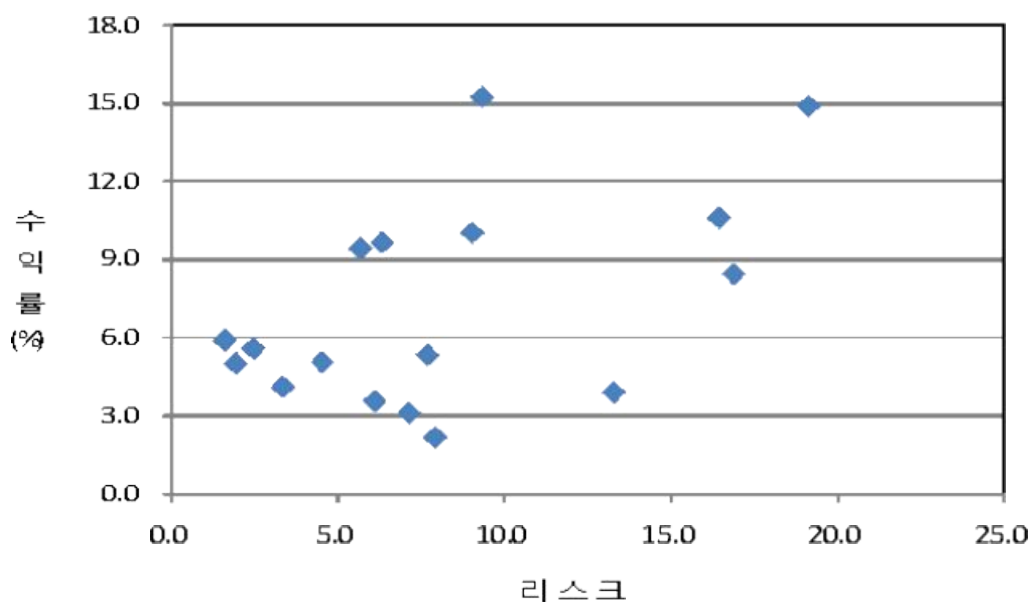
- 해외유가증권 투자성과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개별사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중소형사에 속한 회사들 간 차이가 큼.
- 단순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15.2%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회사는 -112.2%로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함¹²⁾.

12) 외화유가증권 투자 규모 40억원 미만인 소형사임.

테마진단

- 해외유가증권 투자에 수반된 리스크¹³⁾를 살펴보면 최대 32.7%¹⁴⁾, 최저 1.6%로 개별사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수익률 변동성이 3.8%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외국사 5.5%, 중소형사는 13.2%로 가장 높음.
- 극단값을 제외한 17개 회사별 해외유가증권 수익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수익률과 표준편차 간 상관관계가 0.5에 달해 고수익-고위험 현상이 나타남.
- 15.2%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회사의 표준편차는 9.3%에 달해 평균값보다 훨씬 높음.

〈그림 6〉 회사별 해외유가증권 수익률과 리스크 간 관계(FY2000~FY2009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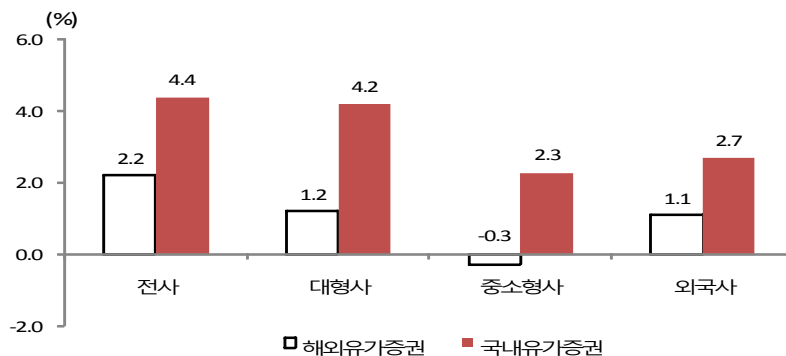
- 해외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리스크 대비 실현한 수익률 기준(수익률/표준편차)으로 성과를 평가하면 전사 평균 2.2% 수준으로 나타남.

13) 환율변동 리스크와 이를 헤지하기 위한 헤지전략을 모두 포함한 결과임.

14) 이익률이 가장 낮은 극단값을 갖는 회사의 표준편차임.

- 대형사의 위험조정수익률이 1.2%로 가장 높고 외국사 1.1%, 중소형사 -0.3% 순으로 나타남.
- 중소형사는 해외투자 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투자성과가 매우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회사별 위험조정수익률은 최대 3.7%, 최저 -3.4% 구간에 분포하며 일부사들은 1% 이하 수준으로 낮음(<부록 표> 참조).
- 이에 비해 국내유가증권 수익률은 해외유가증권보다 1.7%p 높은 6.6%에 달하고, 표준편차도 0.7%p 낮은 1.5%로 나타나 국내투자가 해외투자에 비해 수익은 높고 관련 리스크는 더 낮은 안전 자산으로 나타남.
- 위험을 조정한 국내유가증권 수익률은 대형사가 4.2%로 가장 높고, 외국사 2.7%, 중소형사 2.3% 순으로 나타나 해외유가증권 성과와 유사함.

<그림 7> 해외 및 국내투자에 대한 위험조정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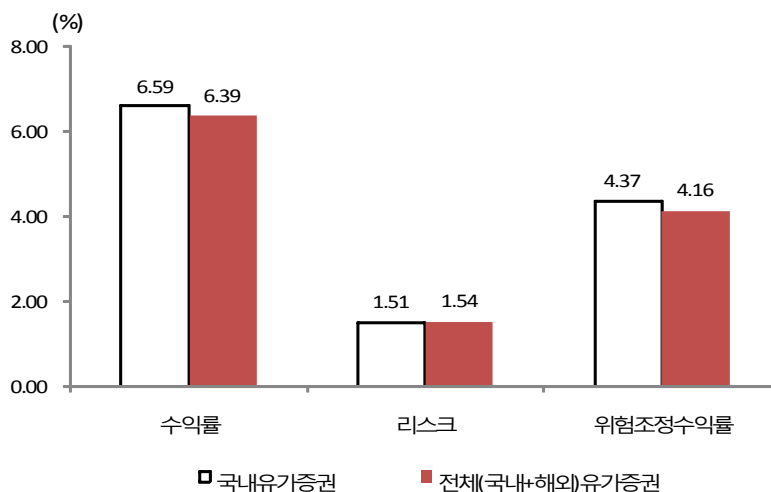


라. 해외분산투자 효과

분석대상 18개 회사 중 절반에 미달하는 8개사에서만 해외분산투자 효과를 향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생명보험산업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 해외투자로 인한 다각화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움.

-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분산투자(리스크 감소) 효과가 존재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유가증권(국내유가증권+해외유가증권) 성과와 국내유가증권에만 투자했을 경우의 성과를 비교하고자 함.
 - 전체유가증권의 성과가 국내유가증권에만 투자했을 때의 성과보다 양호하다면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다각화 효과를 향유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FY2000~FY2009 평균 전사 위험조정수익률은 국내유가증권에만 투자했을 경우 4.37%인데 비해 해외유가증권을 편입했을 경우에는 4.16%로 소폭 낮아져 국제분산 투자에 따른 다각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익률 수준은 국내유가증권 6.59%, 전체유가증권 6.39%로 해외유가증권 편입 시 낮아지고, 리스크 수준은 국내유가증권 1.51%, 전체유가증권 1.54%로 해외유가증권 편입 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회사 그룹별로 살펴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는 해외유가증권 편입 시 위험조정 수익률이 각각 0.2%p씩 낮아진 데 비해 외국사는 0.1%p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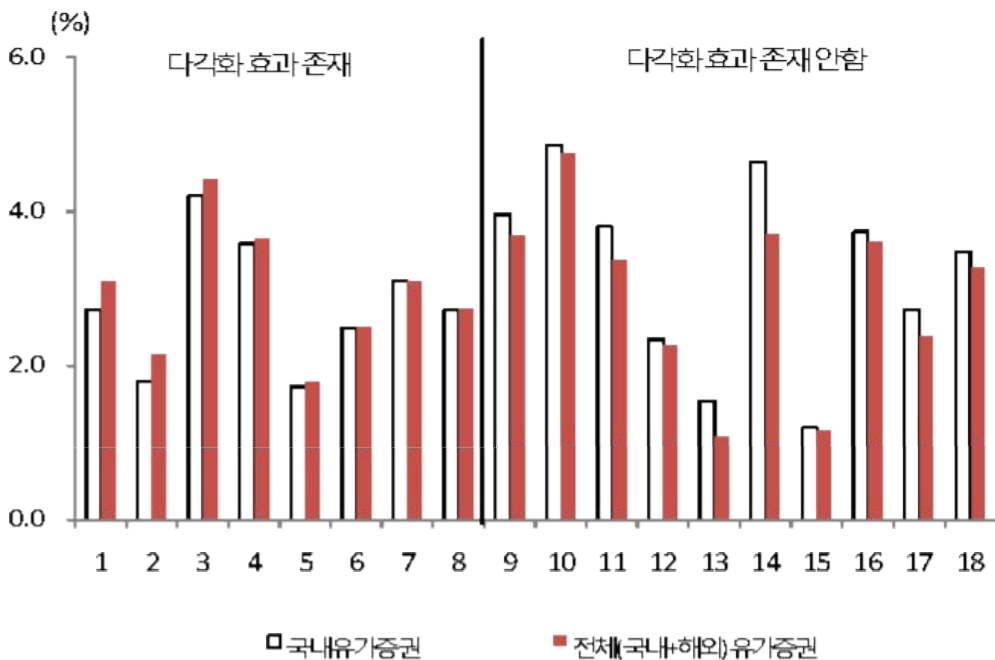
<그림 8> 해외투자에 따른 다각화 효과(전사, FY2000~FY2009)



□ 해외투자에 따른 다각화 효과의 존재 여부를 회사별로 살펴보면 해외유가증권을 보유한 18개사 중 절반에 못미치는 8개사에서만 다각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참조).

○ 다각화 효과가 나타난 8개사의 그룹별 분포는 대형사 1개, 중소형사 4개, 외국사 3개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외국사 비중이 높음.

<그림 9> 회사별 다각화 효과 존재 여부(FY2000~FY2009)



5. 요약 및 시사점

ALM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 투자 필요성은 지속될 것이므로 보험회사들은 국내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해외 투자에 대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감독당국에서도 관련 정보의 모니터링과 공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해외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과거 10년간 약 5.8배 증가하였으며, 22개 생명보험회사 중 18개사가 해외투자를 하고 있어 규모와 적용대상 측면에서 국내유가증권 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 규모 및 비중이 축소되었지만 FY2009 기준 20조 6천억 원, 전체 유가증권 대비 12.2%를 차지함.
- 생명보험회사들의 해외유가증권 투자는 국내 장기채 시장의 협소함으로 인해 장기 금리확정형 부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장기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음.
 - 외화유가증권의 80% 이상이 채권에 투자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는 것임.
 - 그러나 일부 중소형사는 신종유가증권, 기타수익증권 등에 대한 투자 비중도 확대함에 따라 고수익-고위험 추구 전략이 나타남.
- FY2000~FY2009 해외유가증권 투자 실적을 위험조정수익률 개념으로 보면 국내유가증권에만 투자했을 경우 4.37%인데 비해 해외유가증권을 편입하면 4.16%로 낮아져 해외분산투자 효과는 발견할 수 없음.
 - 해외투자 성과가 국내투자에 비해 양호하지 못한 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국내투자자와 해외투자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등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해외투자 역량이 축적되지 못한 채 양적 측면에서만만 규모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됨.

- 2011년 4월부터 RBC제도가 의무 적용되고, 이후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투자 관련 역량 제고가 필요함.
 - 해외투자는 제반 제약조건으로 인해 국내투자에 비해 높은 성과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유가증권을 보완하는 분산투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리스크관리를 위한 ALM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험회사는 해외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보험부채의 보증금리에 대응하는 수준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목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 역량의 제고가 필요함.
 - 특히 해외투자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임.
 - 해외투자 시 고수익 추구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 자산 보유 비중을 줄이고 내부위험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해외유가증권을 운용해야 할 것임.
 - 투자 대상 항목으로 내재한 리스크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신종유가증권을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정책 및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현황 및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투자는 국내투자에 비해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 김재현, “자산운용의 양적 규제 완화 연구-효율적 프론티어를 이용한 생명보험사 해외 투자를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제61집, 2002. 8.
- 생명보험 각 사 홈페이지, 경영공시자료.
- 생명보험협회, 통계연보, 각 호.
- 이경희·최영목, “손해보험회사의 해외유가증권투자 성과평가 및 결정요인 연구”, 『보험학회지』, 제86집, 2010. 8.
- 이데일리 신문, 2010년 1월 28일자.
- KIS채권평가사, 채권발행잔액, 2009. 2. 28.
- Blake, David and Allan Timmermann, “Returns from Active Management in International Equity Markets: Evidence From a Panel of UK Pension Funds,” *Discussion Paper* PI-0011, The Pensions Institute, 2002
- David, Philip, “Pension Fund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Investment-A Global Perspective,” *Discussion Paper* PI-0206, The Pensions Institute, 2002

<부록 표> 회사별 유가증권 투자 성과(FY2000~FY2009)

(단위 : %)

	수익률(A)			리스크(B)			위험조정수익률(A/B)		
	해 외	국 내	전 체	해 외	국 내	전 체	해 외	국 내	전 체
전 사	4.95	6.59	6.39	2.24	1.51	1.54	2.21	4.37	4.16
회사1	5.01	5.85	5.68	1.94	1.21	1.20	2.59	4.85	4.74
회사2	3.11	7.20	7.03	7.13	1.89	2.09	0.44	3.80	3.37
회사3	5.59	7.15	6.87	2.46	1.70	1.55	2.28	4.20	4.43
회사4	5.07	7.58	7.45	4.52	3.25	3.26	1.12	2.33	2.28
회사5	9.65	6.94	6.98	6.32	1.94	1.91	1.53	3.57	3.65
회사6	3.91	9.56	8.34	13.29	6.22	7.78	0.29	1.54	1.07
회사7	8.45	9.88	9.46	16.89	2.13	2.54	0.50	4.64	3.72
회사8	3.57	7.31	7.01	6.11	2.69	2.27	0.58	2.72	3.09
회사9	15.24	7.13	7.18	9.33	2.62	3.01	1.63	2.72	2.38
회사10	10.60	9.46	8.91	16.45	2.72	2.72	0.64	3.47	3.27
회사11	14.90	8.68	8.66	19.14	5.05	4.82	0.78	1.72	1.80
회사12	5.34	7.17	7.15	7.69	2.63	2.63	0.69	2.72	2.72
회사13	-112.19	8.72	8.63	32.66	7.36	7.41	-3.43	1.19	1.16
회사14	4.11	6.53	6.46	3.34	1.75	1.78	1.23	3.73	3.62
회사15	9.43	6.97	7.04	5.69	2.81	2.81	1.66	2.48	2.51
회사16	5.91	7.27	7.27	1.60	2.35	2.35	3.70	3.09	3.10
회사17	10.03	8.20	8.57	9.02	4.61	4.01	1.11	1.78	2.14
회사18	2.18	6.60	6.50	7.92	1.67	1.76	0.27	3.96	3.69

◆ 퇴직연금 세제의 종합검토와 개선방향

김대환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검토배경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제체계의 미흡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재정리스크 증대,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 등으로 고령화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그 이유는 공적연금의 수급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개인의 기대수명 증대에 따른 장수리스크는 더욱 증대될 것이 때문임.
- 이에 따라 OECD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축소시키는 대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음.
 - 주요국은 연금의 축소나 보험료의 인상(그리스), 공적연금의 일부분을 민간영역으로 전환(독일), 공적연금 전체의 민영화(칠레) 등의 방법으로 공적연금을 축소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해 왔음.
 - 우리나라의 퇴직 후 연금소득대체율은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치는 45% 수준이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수준 비교

(단위 : %)

보장구분		권고수준	미 국	영 국	일 본	한 국
1층	국민연금	30~35	41	31	34	25
2층	퇴직연금	30~35	38	39	26	12
3층	개인연금	10 이상	10 가정			8
합 계		70~80	89	80	70	45

주 : 류건식 외 2,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9

- ☐ 이러한 점에서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2009년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연금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활성화가 연금세제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즉,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퇴직연금가입을 유도하기 하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 2> 퇴직연금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N = 314, 1, 2, 3순위 복수응답)

제도 개선 사항	기업 및 근로자 세제지원 확대	중도인출 조건완화 및 중간정산제도 폐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강화	노후준비의 필요성 인식 강화	제도 형태 및 운영 구조의 다양성
비율	108.0%	52.4%	39.2%	30.3%	28.3%

자료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보험연구원, CEO Report, 2009. 10.

- ☐ 이에 본고는 퇴직연금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와 비교·검토한 후에 세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퇴직연금의 세제체계를 적립금 납입단계, 적립자산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2.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현황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는 적립금 납입단계, 적립자산 운용단계, 퇴직급여 수령단계로 구분되며, 수령단계에서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됨.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제도는 법인세로 사내에 적립되는 금액과 사외에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달리 과세하고 있음.

가.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요

-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제도는 2006년 1월에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금소득 세제체계의 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제는 소득세이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적립금을 부담하는 단계에서, 적립금을 이용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적립하고 운용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
-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제도는 법인세로 사내에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과세와 사외에 적립하는 과세로 구분될 수 있음.

<표 3>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대 상	과세적용 구분	적용 과세제도	과세적용
근로자	적립금 납입단계	소득세	소득공제(Exempt)
	적립금 운용단계		비과세(Exempt)
	퇴직급여 수령단계		과세(Taxed)
사용자	사내 적립	법인세	손금산입
	사외 적립		일정 부분 손금산입

-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세제체계는 적립금 납입단계에서 손금산입(사용자) 또는 소득공제(근로자)혜택(Exempt)을 부여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비과세(Exempt)를 적용하며,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Taxed)하는 EET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나. 퇴직연금 세제관련의 내용 및 특징

1) 근로자 관련 세제

□ 적립금 납입단계

- 현재 연금저축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연금세제 개편으로 인해 2011년 1월부터는 연금저축의 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으로 소득공제범위가 확대될 예정임.
-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추후 퇴직급여 수령 시 비과세

<표 4> 적립금 납입단계의 소득공제

현 행	개 정 안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도 확대 - 한도 : 400만원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적립금 운용단계

-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과 같은 자산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수령단계에서 과세를 적용하는 과세이연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적립된 자산을 금융시장에서 운용하여 퇴직연금자산으로 적립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이연시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함임.
-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유가증권에 투자되어 벌어들인 투자소득 등 모든 추가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소득의 형태 및 규모에 상관없이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함.

□ 퇴직급여 수령단계

- 근로자가 적립하고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추가적으로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과 퇴직소득세로 구분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일시금 수령 시, 다른 소득과는 별도로 퇴직일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부과(분류과세)
 -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총 수령연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부과
- 또한 퇴직연금에 적립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할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던 도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함.
 - 확정기여(이하 'DC')형 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계좌(이하 'IRA')에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요양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음.
 - 연금으로 수령하는 도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지급 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산출 후 연금지급 전 퇴직소득 대비 수령하는 일시금의 퇴직소득 비율을 곱하여 최종 퇴직소득세를 산출함¹⁾.

2) 사용자 관련 세제

(1) 사외 적립 시

-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의 형태에 따라 손금 산입되는 방법이 상이함.
 - DC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IRA에서는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 전액이 손금산입
 - 다만 과거로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소급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또는 퇴직신탁·보험가입에 따라 손금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납입한 부담금에서 기존 손금인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인정됨.

1)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산출관련 내용은 부록 참조

- DC형 퇴직연금에서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중 임원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와 달리 손금 인정한도가 설정되어 있음²⁾.
- 확정급여(이하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추계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됨
 -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손금한도 : 당해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 - 당해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잔액 - 당해 사업연도말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2) 사내 적립 시

- 현재 사내 적립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의 5%를 한도로 퇴직금부채의 30%까지 손금산입하도록 규정
- 다만 퇴직연금 세제개편으로 인해 2011년부터 손금인정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에는 완전폐지하는 것으로 개선³⁾

<표 5> 퇴직급여 적립액 손비 인정 한도

현 행	개 정 안														
☐ 퇴직급여 적립액 손금산입 한도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의 30%	☐ 손금산입 한도 조정 - 퇴직급여충당금(사내유보) · 추계액 한도를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축소 (‘16년 폐지)														
	<table><tr><th>‘10</th><th>‘11</th><th>‘12</th><th>‘13</th><th>‘14</th><th>‘15</th><th>‘16</th></tr><tr><td>30%</td><td>25%</td><td>20%</td><td>15%</td><td>10%</td><td>5%</td><td>0%</td></tr></table>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10	‘11	‘12	‘13	‘14	‘15	‘16									
30%	25%	20%	15%	10%	5%	0%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현행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총급여액기준과 충당금 누적액 기준 중 적은 것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됨.
- 총급여액 기준 :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자(DC형 제외)에게 당해 사업연도를 지급한 총 급여액의 5%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3)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2

- 총당금누적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⁴⁾ × 30% + 퇴직금전환금 계상액⁵⁾ - 당기말 세무상 총당금 잔액

3. 퇴직연금세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세제체계를 검토한 결과, 대체로 독립적인 퇴직연금소득공제 제도 부재, 소득공제수준 미비, 소득계층별 세제혜택 차별화 미흡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퇴직연금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독립적인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 부재

- 우리나라의 경우 부담금 소득공제 및 연금소득과세 측면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세제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즉,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 적립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부여하고 있어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로 보기에 한계가 존재함.
-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적인 적립금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적립금 수령 단계, 즉 연금소득과세측면에서도 다른 연금과 구별하지 않고 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특히, 퇴직연금의 수령액이 공적연금의 수령액과 구분되어 과세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연금의 급여와 타인의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적연금의 급여가 동일하게 과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
 - 5)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또한 개인의 소득공제 초과불입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퇴직연금의 세제체계인 EET방식과 TEE (Taxed-Exempt-Exempt) 방식이 혼재되는 문제가 있음.

나.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수준 저조

- 퇴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은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2011년부터 연 400만원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소득공제 수준은 미미한 수준임.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액이 400만원에 지나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본인의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소득 재원을 확충할 유인이 적은 편임.
- 따라서 국민의 노후소득재원 마련이라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의 기본 취지와 상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다. 연금전환 및 연금수령을 위한 세제혜택 저조

- 퇴직급여 수령 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소득공제 혜택이 900만원에 지나지 않아 근로자들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짧은 기간 동안 노후소득 재원을 소진시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그 이유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는 은퇴이후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노후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수령형태는 연금지급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 퇴직일시금으로 수령 시 적용되는 공제비율(현재 퇴직소득금액의 45%)이 높고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일시금의 선호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연금수령보다 일시금수령이 세제혜택차원에서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⁶⁾.

6)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2008. 9에서는 퇴직소득세와 연

- 퇴직보험에서 기업 및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세제 우대조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연금재원이 소진될 가능성이 존재함.
- 최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중간정산하는 기업 및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환에 따른 세제상의 유인책이 없기 때문임.

라. 소득계층별 연금세제 차등화 부재

- 현행 퇴직연금 세제체계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근로자가 추가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계층보다 오히려 불입여력이 있는 고소득 계층에게 혜택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만, 현재와 같이 개인연금과 합산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소득공제금액 또한 크지 않을 경우는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은 세제체계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 있음.
- 향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퇴직연금제도의 틀에 포함될 예정으로 있어 이에 부응한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금소득세를 비교하여 퇴직소득세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음.

4. 미·일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특징비교

미·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연령별·소득계층별로 세제를 차별화하고 있으며, 또한 별도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제도, 충분한 소득공제혜택, 개인퇴직계좌로 이전 시 세제우대조치 등을 통해 퇴직연금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가. 미국

- 미국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와 달리 형식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복지제도의 한 종류로 운영되며, 세제체계 또한 다양함.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역사가 길어 제도 및 종류가 단순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 따라 세제체계도 상이함.
 - 하나의 퇴직연금제도에서 EET방식과 TEE방식을 혼용하기 보다는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EET와 TEE방식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는 경우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용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되는 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금에 대해 세제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을 기타 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종합과세하고 있음.
- 적립한도는 설정되지 않은 반면, 연금수령액은 195,000달러(2009년 기준)로 제한되어 있음⁷⁾.

7) 연금수령액에 대한 제한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필요시 상향조정하고 있음.

<표 6> 미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2009년)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단계	사업주	손금산입	손금산입 한도: Min(근로자 급여액의 100%, 49,000 달러)
	가입자	미적용	소득공제 한도: 16,500달러,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5,500달러 추가
운용단계		비과세	
수령단계		종류별로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 DC형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DC형 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401(k), Roth 401(k), 403(b), 457, Keogh, Target Benefit Plan, Money Purchase Plan, Profit 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및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등이 존재하며 유형별 세제내용이 상이함.
-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제도인 401(k)의 경우 근로자가 적립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00달러(2010년 기준)⁸⁾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는 대신 퇴직급여 수령 시 소득세를 과세함.
 - 50세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연간 5,500달러의 추가적립과 소득공제 허용
- Roth 401(k)는 401(k)와 반대로 적립단계에서 과세하고 운용단계 및 수령단계에서 과세하지 않는 TEE방식을 적용
- 사용자의 적립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처럼 손금산입 혜택을 제공함.

8) 미국의 경우 매년 적립금 상한액과 소득공제 상한액을 변경하지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퇴직연금제도에서 2010년에는 2009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IRA도 DC형 퇴직연금처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며 종류별로 다른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음.
- 전통형 IRA는 EET방식을 Roth IRA는 TEE방식의 과세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형 IRA의 경우 50세 이하는 5,000달러, 50세 이상은 6,000달러(2010년 기준)의 적립상한이 존재하며 소득공제를 적용(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함.

나. 일본

- 일본은 1962년과 1966년에 적격 퇴직연금제도와 후생연금기금으로 대표되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2001년 신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함.
- 2001년의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보다는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성 때문이었음.
- 신 DB형 퇴직연금에는 규약형과 기금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세제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됨.
- 퇴직적립금에 대한 사용자 부담은 손금산입되고 근로자 부담금은 생명보험료 공제가 제공되며, 자산운용이자에는 비과세지만 잔고의 1%에 해당하는 특별법인세 과세
- 퇴직적립금을 일시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가 적립단계에서 부담한 금액과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하고 퇴직소득세를 과세
-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에서 근로자가 적립단계에서 부담한 금액과 공적연금공제를 제외하고 연금소득세를 과세

<표 7> 일본의 퇴직연금 세제체계(2009년)

구 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단계	사업주	손금산입	손금산입(기업형)
	가입자	생해보험료 공제(5만엔 한도)	소득공제(개인형)
운용단계		비과세 (1999~2011년 3월까지 특별법인세 연 1.173% 동결)	
수령단계	연 금	· (수령액-본인부담의 납입총액-공적 연금공제)를 소득금액으로 과세	(수령액-공적연금공제)를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
	일시금	(수령액-본인부담의 납입총액-퇴직소득공제)×1/2을 소득금액으로 과세	(수령액-퇴직소득공제)×1/2을 소득금액으로 과세

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가입자각출이 있는 경우, 지급시의 과세는 가입자 각출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과세

자료 : 岩本 洋, 『企業을 위한 確定給出年金』, 東洋經濟新報社, 2007. 5. p.263.

□ DC형 퇴직연금은 기업형과 개인형이 있으며, 기업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부담금 전액을 각출하고 근로자의 추가 적립은 없음.

○ 기업형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은 신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 216,000엔, DC형 퇴직연금만 도입했을 경우에는 432,000엔을 손금산입함.

- 운용단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적립금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를 과세

○ 자영업자 및 기업형 퇴직연금이 없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개인형의 경우,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근로자는 연 276,000엔, 자영업자는 연 816,000엔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음.

- 운용단계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이자와 배당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적립금 운용이익은 특별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 퇴직급여를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과세는 신 DB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과세

5. 퇴직연금 세제제도의 개선 방향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시금 관련세제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인연금과 별도의 소득공제신설, 퇴직연금가입을 위한 충분한 소득공제혜택의 부여, 소득계층별 세제혜택의 차별화 및 한도설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세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가.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의 사전정비

□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혜택의 축소·폐지를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세제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존재함.

○ 먼저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는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하도록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퇴직연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폐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

<표 8>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 개선

구 분	현 황	개 선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30% (2016년까지 단계적 축소예정)	폐지기간 단축
퇴직연금수령 시 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연금소득공제 1200만원 이상으로 조정
기존퇴직금 소득공제한도	40%	매년 10%씩 공제비율 축소·폐지
퇴직금의 퇴직연금전환 시 세제혜택	별도규정없음	- 퇴직연금 도입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 - 기존 퇴직금을 IRA에 예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 연금소득공제 수준을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퇴직금의 공제한도를 매년 10%씩 축소하여 일시금보다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반면, 기존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예치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세 환급조치 등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 필요

나. 독립적인 퇴직연금 세제체계의 마련

- 다른 세제와 혼재되어 있는 퇴직연금 세제체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인 세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잠재적 이용자수와 금액면에서 개인연금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성격상 국민연금과는 매우 다르므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과세체계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음.
 -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금에 대해 다른 종류의 소득공제와 별도로 구분하여 독립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 하고 있음.
 - 공적연금의 경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후세대에서 고령인구로의 소득이전 현상이 도래·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수령액을 구분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 EET 퇴직연금의 세제체계 중 일부 TEE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약화시켜 퇴직연금세제체계를 완전 EET 방식으로 변경하고 적립금 납입단계에서의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퇴직급여 수령 시 소득공제한도 초과 납입분에 대해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것보다 납입단계에서의 소득공제혜택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근로자의 생애소득을 극대화 시켜주고 이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함.

<표 9> 퇴직일시금 관련 세제 개선

현 행	개 선
- 개인연금과 합산하여 소득공제 · 2011년 400만원 한도 - 소득수준과 무관한 공제한도액 설정	- 퇴직연금도 개인연금 소득공제한도까지는 근로자의 추가납입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 허용 - 소득수준에 따른 공제한도 차등화 검토

-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중 근로자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401(k)는 다른 연금제도와 달리 가입당시 소득공제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다. 충분한 적립 및 연금수령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퇴직연금 적립단계에서 근로자의 자조노력을 통해 노후소득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연금과 함께 퇴직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본적으로 분리시킨 이후 퇴직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제공해야 함.
- 미국의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인 401(k)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당 16,500달러이며 50세 이상 근로자는 5,500달러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제공함.
- 미국 50세 미만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규모가 1인당 GDP의 35.6%이며 50세 이상은 47.4%에 달함.
 - 반면, 한국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가 1인당 GDP의 14.6%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무할 수 있음.

<표 10> 한·미의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 비교(DC형)

구 분	소득공제 가정	1인당 GDP(2009)(a)	소득공제 금액(b)	비율(b/a)×100
한 국	400만원 가정	20,488,800원	4,000,000원	19.5%
	300만원 가정	20,488,800원	3,000,000원	14.6%
미 국	50세 이상	46,381달러	22,000달러	47.4%
	50세 미만	46,381달러	1,6500달러	35.6%

주 : 환율 1달러당 1,200원을 적용하여 한국 1인당 GDP 계산

- 일본의 경우 근로자의 적립한도액과 소득공제 규모를 연간 306,000엔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른 소득공제와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비해 세제혜택이 큼.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후불임금으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증가시켜 소득수준 및 근속연수 등과 관계없이 연금수령이 일시금수령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체계를 개선시켜야 함.
- 특히, 연금수령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연금수령 기간을 되도록 길게 설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간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별화도 고려할 수 있음.
- 하지만, 퇴직적립금이 상속 등과 같은 방법으로 오용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기간을 기대수명 이상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라. 계층별 차등화 및 한도설정

- 적립단계에서 세제혜택을 과감히 증가시킬 필요는 있으나 소득계층별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납입단계에서 모든 소득계층별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제혜택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불입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로 소득계층별로 세제혜택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

□ 근로자, 자영업자, 배우자, 특수직역 근로자 등 가입자의 특성과 가입목적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의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서 개인연금과 별도로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는 등 가입자 특성별로 이미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다르고 퇴직연금에의 가입 및 추가납입의 목적이 다르므로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해야 함.
- 미국의 경우 자영업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구분되어 만들어져 있으며, 세제상의 혜택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소득공제가 차등되어 적용되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자영업자에게 소득공제면에서 우대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제를 차등화 하고 있음.

〈참 고 문 헌〉

- 국세청,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2010. 2.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 2010. 8. 24.
- 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2008. 10.
- 류건식 외 2,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 3.
- 류건식·이상우,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보험연구원, CEO-Report, 2009. 10.
- 방하남외 3, 『고령화와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 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2008. 9.
- 이명규외 1, 『퇴직연금(Ⅱ)』, 한국금융연수원, 2010. 8.
- 岩本 洋, 『企業을 위한 確定拠出年金』, 東洋經濟新報社, 2007. 5. p.263.
- 坪野剛司, 『新企業年金』, 日本經濟新聞社, 2006. 12.
- OECD, "Pensions at a Glance: Public Policies across OECD Countries", *OECD Private Pensions Series*, 2009
- World Bank Report, “Averting the Old Age Crisis: Policies to Protect the Old and Promote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부록>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산출

☐ 퇴직소득세 측면

○ 퇴직일시금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연분연승법에 의해 과세

- 퇴직소득에서 급여비례 공제액과 근무연수별 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근무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세액 산출

<부록표 1>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식
퇴직소득 과세표준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 ※ 정률공제=퇴직소득금액 × 45%
퇴직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과세표준 × $\frac{1}{\text{근속연수}}$ × 기본세율(8~35%) × 근속연수(연분연승법)

<부록표 2> 근무연수별 퇴직소득 공제

근무연수	퇴직소득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부록표 3> 소득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 연금소득세 측면

○ 연금형태의 수령액을 모두 합한 총 연금수령액에 대해 연금소득세 과세

-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이하시 5.5%(주민세포함) 원천징수,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 초과시 여타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적용(연금소득 공제한도는 연간 900만원)

<부록표 4> 연금소득 공제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초과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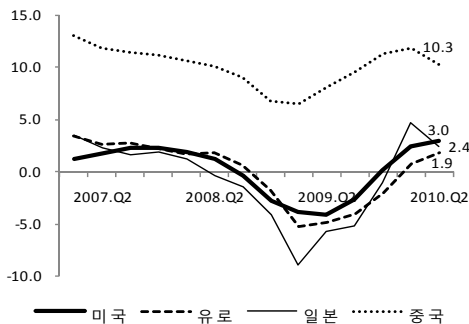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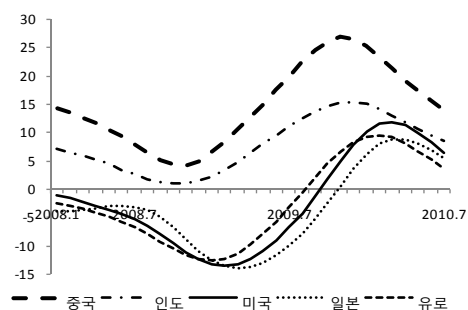
2010년 2/4분기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효과의 소진이 소비·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세계무역의 증세도 완화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됨. 다만, 유로지역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과 유로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유지됨.

- 2/4분기 세계경제는 경기부양 효과의 일단락으로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성장의 모멘텀인 소비가 부진해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됨.
- 미국과 일본은 경기부양 효과의 소진과 더불어 고용여건 개선 지연으로 인해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수출도 둔화세를 시현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는 모습임.
-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소비와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세도 다소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난 반면, 유로지역은 대외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함.
-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이 미국,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유로지역도 크게 낮아짐에 따라 하반기 세계경기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그림 2>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자료 : 미국상무성, 유로통계청, 일본내각부, 중국국가통계국 자료 : OECD

□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둔화 조짐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고, 원자재가격은 기상악화와 생산량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WTI 국제유가는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 완화로 한때 배럴당 86달러를 상회하였으나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과 미국의 재고량 증가로 인해 9월 말 현재 74.9달러까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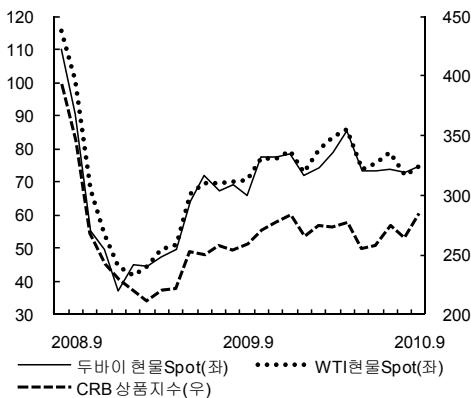
○ 농산물 가격은 기상악화(소맥), 수입국의 수요증가(옥수수), 강수로 인한 선적 지연(원당) 등으로 인해 상승하고 있고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초과(동), 생산감소(알루미늄) 등으로 인해 대부분이 상승세를 나타냄에 따라 CRB선물지수¹⁾가 2/4분기 이후 9월말 까지 3.4% 상승함.

□ 세계무역액은 2/4분기 중 세계경기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완화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1/4분기에 23.7% 증가하여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2/4분기에는 23.0% 증가함으로써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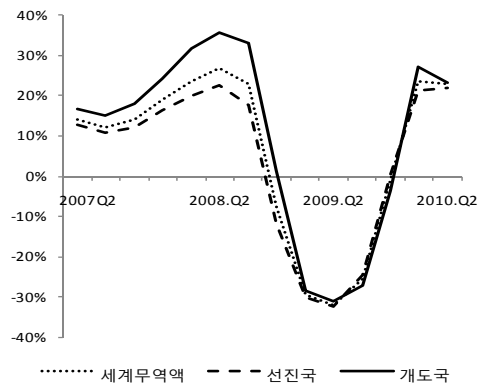
○ 선진국의 무역액은 전분기 증가율을 유지한 반면, 신흥개도국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어 세계경기의 둔화에 더 민감한 모습을 보여줌.

<그림 3> 국제유가 · 원자재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4>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

가. 미국경제

2010년 2/4분기 미국경제는 세계경기 둔화조짐에 따른 수출 감소, 경기부양 효과 소진, 고실업률 지속, 주택경기 악화에 따른 민간소비 정체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됨. 최근에는 경기체감지수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실질 GDP는 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둔화, 수입급증으로 인한 순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1.6%(연율) 증가에 그침으로써 성장세가 둔화됨.
 - 민간소비는 경기부양효과 소진, 고실업률, 주택경기 악화와 가계의 부채조정 등으로 인해 전분기대비 2.0%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와 주택투자는 각각 17.6%와 27.2%로 대폭 증가함으로써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임.
 -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조짐에 따라 9.1%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32.4%의 대폭적 증가를 기록함으로써 순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 정부지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출 증가로 4.3% 상승함으로써 지출 억제가 확대로 반전되는 모습임.
- FOMC는 세계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대외부문 위축, 고용 및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며 경기악화 지속시 추가적인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시사함²⁾.
 - 주요예측기관들은 체감경기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1.9%, 2.3%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5월의 FOMC 전망치는 물론이고 8월의 자체 전망치보다 0.3~0.6%p 하향 조정된 수준임.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10. 8.

- 이에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의 가속을 위해 6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교통인프라 투자,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재정자금을 지원하는 인프라은행 설립, 기업 세제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대책을 추진하기로 함.

<표 1> 미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분기대비 연율,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GDP	0.0	-2.6	-4.9	-0.7	1.67	5.0	3.7	1.6
민간소비	-0.3	-1.2	-0.5	-1.6	2.0	0.9	1.9	2.0
설비투자	0.3	-17.1	-35.2	-7.5	-1.7	-1.4	7.8	17.6
주택투자	-24.0	-22.9	-36.2	-19.7	10.6	-0.8	-12.3	27.2
수출	6.0	-9.5	-27.8	-1.07	12.2	24.4	11.4	9.1
수입	-2.6	-13.8	-35.3	-10.6	21.9	4.9	11.2	32.4
정부지출	2.8	1.6	-3.0	6.1	1.6	-1.4	-1.6	4.3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10. 8. 27.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지표상으로는 낮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한 구직포기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고용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은 지연되는 모습임.

- 5월 중 실업률은 정부의 임시직 고용으로 62만 1천명이 증가하는 등 비농업취업자수가 43만 2천명이 증가하면서 9.7%로 낮아졌고, 6월에는 경기둔화 조짐에 따른 구직포기 증가로 경제활동인구가 16만 9천명이 감소하면서 9.5%로 낮아짐.
- 7월에는 임시직 고용의 감소 영향으로 전체 비농취업자수가 5만 4천명이 감소하였으나 구직포기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9.5% 수준이 유지됨.
- FOMC는 경기 둔화세 조짐으로 인한 내수 둔화로 기업의 채용여건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 5월의 실업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함.
 - 2010년 실업률은 하한이 0.1%p 상향 조정되어 9.2~9.5%로 전망되고, 2011년 실업률은 하한과 상한이 각각 0.2%p 상향 조정되어 8.3~8.7%로 전망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실업률	9.3	10.1	10.0	10.0	9.7	9.7	9.7	9.9	9.7	9.5	9.5
비농업취업자증감 ¹⁾	-4,740	-224	64	-109	14	39	208	290	432	-175	-54
소비자물가 ²⁾	-0.4	-0.2	1.8	2.7	2.6	2.1	2.3	2.2	2.0	1.1	1.2
(근원 소비자물가)	1.7	1.7	1.7	1.8	1.6	1.3	1.1	0.9	0.9	0.9	0.9
생산자물가 ²⁾	-2.6	-2.0	2.2	4.3	4.5	4.2	5.9	5.4	5.3	2.8	4.2
소매판매 ³⁾	-6.2	-2.3	2.0	5.3	2.4	4.8	10.8	9.3	6.4	5.4	5.4
재고/도매판매비율 ⁴⁾	1.29	1.22	1.19	1.17	1.16	1.16	1.14	1.13	1.14	1.15	1.16
주택착공호수 ⁵⁾	-38.8	-31.9	-9.7	2.9	25.4	4.1	21.9	42.3	6.9	-7.5	-7.8
주택가격지수 ⁶⁾	-4.5	-1.9	0.1	-1.9	-3.1	-3.7	-2.6	-1.4	-1.3	-2.6	-3.3
소비자신뢰지수 ⁷⁾	45.2	48.7	50.6	53.6	56.5	46.4	52.3	57.7	62.7	54.3	51.0
경기선행지수 ⁸⁾	101.9	104.7	105.8	107.0	107.6	108.0	109.5	109.5	110.0	109.7	109.8
산업생산지수 ⁹⁾	-9.2	-5.6	-4.1	-1.6	1.5	2.3	4.4	5.7	7.8	8.2	7.4
산업생산가동률	-10.0	-6.2	-4.6	-1.9	1.4	2.3	4.6	6.0	8.3	8.7	7.9
재고/출하비율 ¹⁰⁾	1.40	1.34	1.32	1.29	1.24	1.26	1.24	1.24	1.26	1.26	1.26
ISM제조업PMI	46.2	55.2	53.7	54.9	58.4	56.5	59.6	60.4	59.7	56.2	55.5

주 : 1) 증가분 천명, 전월대비 2) 1982-84=100, 전년동기대비 3) 전년동기대비 4)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5) 전년동기대비 6)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1991.1=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7=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2/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와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폭 둔화로 상승세가 다소 낮아지는 모습임.

○ 2/4분기 중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0.9%로 낮아지고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도 수요 감소로 7.6%로 낮아짐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1/4분기 2.3%에서 2/4분기 1.8%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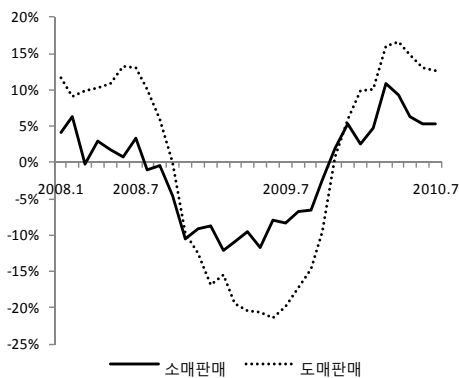
○ 생산자물가도 경기회복세 둔화 조짐에 따른 원자재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 감소로 1/4분기 4.9%에서 2/4분기 4.5%로 소폭 낮아짐.

- FOMC는 2010~2011년 근원소비자물가의 0.1~0.2%p 하향 전망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 소비자물가를 각각 1.0~1.1%와 1.1~1.6%로 하향 조정 전망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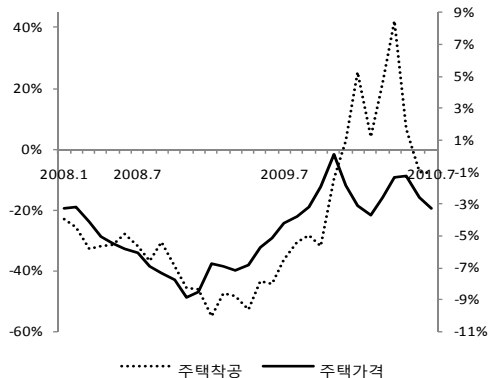
- 2/4분기 중 도·소매판매는 자동차·의류 등의 판매 증가폭 감소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도·소매판매는 2/4분기 중 내구재 중에서는 자동차판매를 중심으로, 비내구재 중에서는 의류판매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각각 14.8%와 7.0%로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7월에는 12.7%와 5.4%로 더욱 낮아짐.

<그림 5> 도소매 판매 추이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6> 주택시장 추이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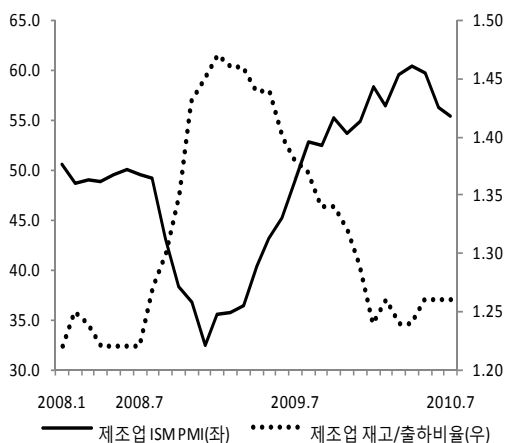
- 2/4분기 중 주택경기는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주택착공호수도 급격히 둔화되면서 침체되는 모습임.
- 기존주택 거래·가격 및 주택착공호수는 2/4분기 중 큰 폭으로 둔화되다가 7월에는 각각 27%, 3.3%, 7.8% 하락하면서 감소세로 반전됨.
- 2/4분기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경기회복세 둔화와 고용여건 개선 지연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됨.

- 지난 5월 62.7까지 높아졌던 소비자신뢰지수는 6월에 54.3으로 급격히 낮아졌고, 7월에도 51.0로 더욱 낮아짐.
- 소비자신뢰지수 구성 요인 중 비즈니스 환경, 고용사정 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이후에도 개선보다는 악화될 것이란 시각이 다수를 형성함.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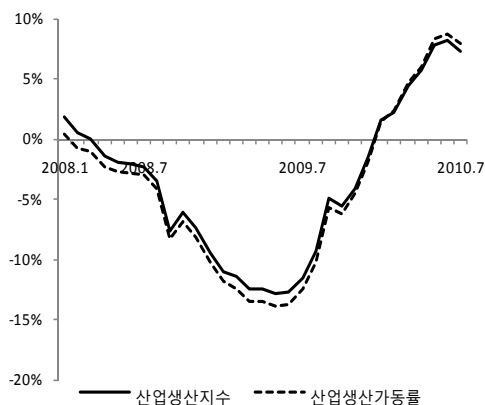
- 2/4분기 중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은 둔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재고/출하율은 재고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 2/4분기 중 산업생산지수와 가동률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8.2%, 8.7% 까지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2/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둔화되는 모습이며 7월에는 7.4%와 7.9%로 급격히 둔화됨.

<그림 7> 제조업 ISM PMI와 재고출하율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그림 8>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 재고/출하비율은 2/4분기 중반부터 7월까지 1.26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생산부문의 재고조정이 다소 일단락되는 모습임.

- ISM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2/4분기에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둔화폭이 커짐으로써 생산부문 체감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PMI는 2/4분기 초 60.4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이면서 7월에는 55.5까지 낮아짐.
- PMI를 구성하는 주문, 고용, 출하, 재고, 수출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한 체감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나. 유로경제

2010년 2/4분기 중 유로경제는 재정적자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이 다소 해소되는 가운데 독일 등 주요국의 수출이 유로화 평가절하로 인해 증가하고 미약하나마 소비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시현함.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실질 GDP는 수출의 증가,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세, 회복의 걸림돌이던 투자의 감소폭 축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9% 성장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의 개선 지연, 가계의 부채조정 등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하여 미약하나마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버팀목의 역할을 함.
 - 투자는 1.0% 하락하였으나 1/4분기 중 기상악화로 지연되었던 설비·건설투자의 재개와 재고 증가에 기인하여 하락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회복기미를 보임.
 - 수출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12.0%의 대폭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수입도 12.8% 증가함으로써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여는 다소 상쇄됨.
-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와 투자가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그간 재고조정과 순수출에 견인되었던 성장이 점차 균형을 잡아 가는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은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하였고, 고용여건의 개선을 바탕으로 민간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임에 따라 4.1%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유로지역의 성장을 견인함.
 - 적자재정 확대로 대출 제한과 가계부채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소비·투자의 감소세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각각 3.8% 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로위원회³⁾는 금융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세계경기의 둔화세가 연착륙한다는 가정하에 유로지역의 수출 호조는 당분간 지속되며 소비·투자의 회복조짐은 하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함.

○ 하반기 유로경제는 3/4분기 0.5%, 4/4분기 0.3%로 성장하는 상고하저의 형태를 보이면서 2010년 전체적으로는 0.8%p 상향 조정된 1.7%의 성장이 전망됨.

○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은 하반기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2010년 전체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어 각각 3.4%, 1.7%, 1.6%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EA16 GDP	0.4	-4.0	-5.2	-4.9	-4.0	-2.0	0.8	1.9
민간소비	0.4	1.1	-1.6	-1.1	-1.2	-0.3	0.3	0.7
고정자본	-1.0	-7.3	-11.8	-12.1	-11.8	-9.3	-4.6	-1.0
정부지출	2.3	2.5	2.9	2.6	2.6	1.7	1.2	1.1
수출	0.7	-12.8	-16.1	-16.8	-13.4	-4.7	5.9	12.0
수입	0.5	-11.5	-13.0	-14.6	-12.1	-6.5	5.0	12.8
독일 GDP	1.0	-4.7	-6.3	-6.8	-4.4	-1.3	2.1	4.1
민간소비	0.7	-0.2	-0.2	0.3	-0.6	-0.3	-0.7	-0.7
고정자본	2.5	-10.1	-11.6	-12.3	-8.6	-8.0	0.3	6.9
수출	2.5	-14.3	-16.7	-19.9	-15.3	-4.7	8.3	19.1
수입	3.3	-9.4	-8.0	-13.0	-9.9	-6.7	4.4	17.8
영국 GDP	-0.1	-4.9	-5.5	-5.9	-5.3	-2.9	-0.2	1.6
민간소비	0.9	-3.3	-4.3	-3.9	-3.6	-1.5	-0.3	0.9
고정자본	-3.5	-15.0	-13.6	-19.5	-13.5	-13.3	-1.2	3.1
수출	1.1	-10.6	-11.5	-13.3	-12.4	-5.0	1.3	4.0
수입	-0.5	-12.3	-14.7	-15.9	-13.7	-4.8	4.8	8.4
프랑스 GDP	0.1	-2.5	-3.9	-3.1	-2.7	-0.5	1.2	1.7
민간소비	0.5	0.6	-0.1	0.4	0.7	1.5	1.5	1.5
고정자본	0.6	-7.1	-7.3	-7.2	-7.6	-6.2	-4.8	-2.4
수출	-0.7	-12.1	-15.9	-14.0	-12.5	-5.9	6.5	10.2
수입	0.4	-10.6	-10.7	-12.6	-12.5	-6.4	1.2	8.7

주 : Euro Area는 16개 회원국으로 구성

자료 : 유럽중앙은행, 유로통계청, 독일통계청, 영국통계청, 프랑스통계청

3) European Commission, Interim Forecast, 2010. 9.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09			2010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EA16											
ESI ¹⁾	80.8	89.6	91.9	94.1	96.0	95.9	97.9	100.6	98.4	98.9	101.1
실업률 ²⁾	9.4	9.8	9.8	9.9	9.9	9.9	10.0	10.0	10.1	10.1	10.1
소비자물가 ³⁾	0.3	-0.1	0.5	0.9	1.0	0.9	1.4	1.5	1.6	1.4	1.7
소매판매지수 ⁴⁾	100.9	100.8	100.4	101.3	101.1	101.1	101.9	101.0	101.4	101.7	101.8
소비자신뢰지수 ⁵⁾	-24.9	-17.7	-17.3	-16.1	-15.8	-17.4	-17.3	-15.0	-17.8	-17.3	-14.0
제조업기대지수 ⁵⁾	-14.9	-1.7	1.9	3.3	5.2	7.0	9.0	9.0	9.8	9.3	9.4
산업생산 ⁶⁾	-16.6	-11.2	-6.9	-3.8	2.0	4.3	7.7	9.4	9.9	8.3	7.1
산업신뢰지수 ⁵⁾	-28.4	-20.8	-18.8	-16.0	-13.8	-12.8	-9.9	-7.3	-6.4	-5.6	-4.0
독일											
ESI ¹⁾	83.2	92.4	94.0	95.5	96.1	97.0	100.4	104.7	105.8	106.1	110.1
실업률 ²⁾	8.1	7.5	7.5	7.4	7.3	7.3	7.2	7.0	7.0	6.9	6.9
소비자물가 ³⁾	0.3	-0.1	0.3	0.8	0.8	0.5	1.2	1.0	1.2	0.8	1.2
소매판매지수 ⁴⁾	97.6	96.9	96.4	97.5	96.9	97.8	97.7	97.0	98.6	98.3	98.0
산업생산 ⁶⁾	-19.0	-12.8	-8.1	-4.8	4.3	7.1	9.8	14.7	13.5	11.3	11.4
영국											
ESI ¹⁾	77.7	91.3	88.9	95.0	98.2	98.3	100.9	101.7	102.4	99.4	100.8
실업률 ²⁾	7.5	7.8	7.7	7.7	7.9	7.9	7.8	7.8	7.8	7.8	-
소비자물가 ³⁾	2.2	1.5	1.9	2.9	3.5	3.0	3.4	3.7	3.4	3.2	3.1
소매판매지수 ⁴⁾	111.1	113.5	112.9	112.4	108.0	110.5	110.0	110.8	111.7	112.5	113.8
산업생산 ⁶⁾	-11.2	-8.1	-5.0	-4.9	-2.1	0.0	4.4	1.3	3.5	2.9	2.7
프랑스											
ESI ¹⁾	84.2	92.5	94.7	98.6	100.3	98.2	100.5	102.7	98.9	97.8	99.7
실업률 ²⁾	9.5	9.9	10.0	9.9	9.9	9.9	9.8	9.8	9.9	9.9	10.0
소비자물가 ³⁾	0.1	-0.2	0.5	1.0	1.2	1.4	1.7	1.9	1.9	1.7	1.9
소매판매지수 ⁴⁾	107.2	109.0	108.8	109.4	109.0	109.8	110.4	110.9	111.6	110.3	112.7
산업생산 ⁶⁾	-14.5	-9.6	-3.5	-2.9	3.3	4.8	7.6	8.5	8.7	4.8	5.7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채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전년동기대비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10. 9. 28.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10. 10.

〈고용과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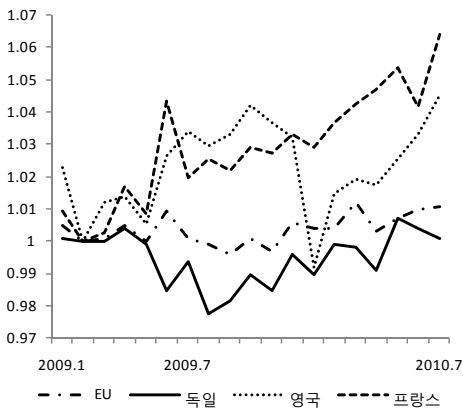
- 2/4분기 중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독일 등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타 주변부 국가의 실업자수가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2/4분기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평균 실업자가 전분기대비 3백만명이 증가하면서 0.2%p 상승한 10.1%를 기록하였으나, 2/4분기 중반부터 7월까지 10.1%대의 실업률이 유지됨으로써 고용여건의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음.
 - 2/4분기 중 독일(7.0%), 영국(7.8%)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개선된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20.0%), 아일랜드(13.5%), 포르투갈(11.0%)의 실업률은 상승세가 더욱 커짐.
-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2/4분기 중 유로화 약세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상승세가 가속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영국 소비자물가의 상승세가 주목됨.
 - 근원소비자물가는 2/4분기 중 고용개선 부진으로 0.8% 상승에 그친 반면, 에너지가격은 유로화 약세 및 기저효과로 인해 8.2% 급등함에 따라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커졌으며 7월에도 상승세가 유지됨.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1.0%, 1.8%, 1.6%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유로지역 평균 수준에 그친 반면, 영국은 파운드화 약세, 간접세 확대 등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짐.
 - 반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지역 중 스페인(1.6%)과 포르투갈(1.0%)은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크지 않은 반면, 그리스(5.1%)는 급등 추세를 보였고 아일랜드(-2.1%)는 하락세를 보임.

〈내수부문〉

- 2/4분기 중 유로지역의 소매판매는 주변부 국가의 부진을 독일, 영국, 프랑스의 상승세로 상쇄하면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7월에는 소폭 증가함으로써 완만한 증가세가 시현됨.
 - 유로지역의 소매판매지수는 2/4분기 중 101.4를 시현함으로써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7월에는 식료품 및 비식료품 모두 판매가 증가하여 101.8로 높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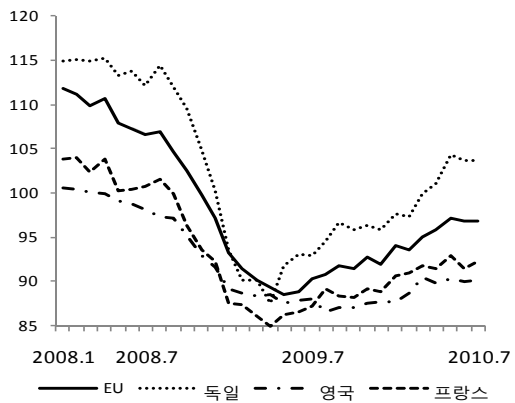
- 2/4분기 중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주변부 국가들의 소매판매지수는 급격히 하락한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증가폭이 커졌으며 7월에도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유로지역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개선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경직된 수준이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며 7월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 커짐.
- 2/4분기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16.7로서 전분기보다 소폭 완화되었으며, 7월에는 -14.0으로 긍정적 시각이 크게 증가함.

<그림 9> 소매판매지수 추이



주 : 2005=100, 계절조정

<그림 10>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생산부문>

- 2/4분기 중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확대되어 가속화되었으며 특히 2/4분기 중반부터는 그리스를 제외한 주변부 국가들도 증가세가 커짐.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2/4분기 중 중간재, 자본재, 내구성소비재를 중심으로 9.2%의 큰 폭 증가세를 보였으며, 7월에는 과일에 대한 경계로 증가세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임.

- 독일, 영국, 프랑스의 산업생산은 빠르게 증가하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2/4분기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2/4분기 중 유로지역의 제조업기대지수는 전분기대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반기 제조업 생산부문의 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제조업 생산부문의 선행지표격인 제조업기대지수는 2/4분기 중 9.4를 기록하여 전분기의 7.1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7월에도 9.4를 시현하면서 생산부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크게 증가함.

다. 일본경제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2010년 2/4분기 중 소비진작효과 소진, 고용여건 개선 지연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순수출 증가 폭도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모습임. 민간소비가 경기진작책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짐.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일본경제는 민간소비의 둔화세, 순수출의 증가폭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 GDP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에 그침으로써 급격한 둔화세를 시현함.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지연, 에코카구입보조금제도·에코포인트제도 등 정책 지원에 의한 소비진작 효과의 일단락, 엔화절상에 따른 해외자산가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둔화세를 시현함.
 - 설비투자는 기업수익 개선 및 그간의 설비투자조정 영향으로 증가세로 반전되고, 주택투자는 감소폭이 빠르게 축소됨으로써 투자부문에서 개선 조짐을 보임.
 - 수출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30.0%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고, 수입도 15.7%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순수출 증가로 인한 경기회복의 기여도를 축소시킴.
 - 정부소비는 1.6% 증가하여 전분기 수준으로 억제되었으며, 공공투자는 집권당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되는 모습임.
- 일본내각부는 세계경기의 둔화조짐으로 인해 수출이 약화되는 등 경기 둔화 조짐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다수 포착되고, 민간소비가 소비진작정책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 경기부양책을 실시함.
 - 일본 대내외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경기에 대해 7월의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여 3/4분기와 4/4분기에 각각 2.0~2.4%, -0.3~0.6% 성장하는 상고하저를 예측함⁴⁾.

4)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7개 대내 연구기관과 JP Morgan 등 3개 대외 금융기관의 전망치의 평균

- 심각한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담보대출 규모를 종전의 20조엔에서 30조엔으로 확대하는 금융완화조치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소비진작을 위해 에코포인트제도를 연장하기로 함.

<표 5> 일본의 실질 GDP 및 지출부문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실질 GDP	-1.2	-5.2	-8.9	-5.7	-5.2	-1.0	4.7	2.4
민간소비	-0.7	-1.0	-3.7	-1.1	-0.4	1.2	3.3	1.8
설비투자	0.1	-19.2	-19.5	-22.1	-20.9	-13.5	-4.6	2.4
주택투자	-8.1	-14.2	0.1	-9.9	-20.3	-24.5	-18.1	-10.5
정부소비	0.3	1.5	0.6	1.7	2.0	1.7	1.5	1.6
공공투자	-8.5	7.4	-1.8	13.9	11.6	9.2	4.6	-5.5
수출	1.6	-23.9	-36.5	-29.3	-22.7	-4.7	34.6	30.0
수입	1.0	-16.7	-17.4	-18.3	-16.0	-15.4	5.5	15.7

자료 : 일본 내각부, 2010. 9.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2009	2009				2010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비자물가 ¹⁾	-1.4	-2.5	-1.9	-1.7	-1.3	-1.1	-1.1	-1.2	-0.9	-0.7	-0.9	
(근원소비자물가)	-0.7	-1.1	-1.0	-1.2	-1.2	-1.1	-1.1	-1.6	-1.6	-1.5	-1.5	
실업률 ²⁾	5.1	5.2	5.3	5.2	4.9	4.9	5.0	5.1	5.2	5.3	5.2	
소매판매액 ¹⁾	-2.3	-0.9	-1.1	-0.2	2.4	4.2	4.7	4.9	2.9	3.3	3.9	
소비자신뢰지수 ³⁾	35.4	40.5	39.5	37.6	39.0	39.8	40.9	42.0	42.8	43.5	43.3	
주택착공호수 ⁴⁾	788	67	68	69	65	57	65	67	60	69	69	
민간기계수주액 ⁸⁾	-22.7	-21.0	-20.5	-1.5	-1.1	-7.1	1.2	9.4	4.3	-2.2	15.9	
수출 ¹⁾	-33.1	-23.2	-6.3	12.0	40.8	45.3	43.5	40.4	32.1	27.7	23.5	
수입 ¹⁾	-34.9	-35.6	-16.7	-5.5	8.9	29.5	20.6	24.2	33.6	26.1	15.7	
광공업생산 ⁵⁾	-21.0	-14.2	-5.4	6.0	20.7	31.2	29.9	25.8	20.4	17.3	15.8	
- 가동율 ⁶⁾	74.1	79.4	81.9	84.1	90.1	90.1	90.6	90.6	91.3	89.4	89.1	
- 재고/출하율 ⁷⁾	131.3	118.7	115.5	110.0	108.0	108.3	102.3	103.5	108.5	106.7	108.2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천호, 5) 계절조정, 2005=100, 전년동기대비,

6) 2005=100, 7) 계절조정, 8)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2/4분기 중 실업률은 경기회복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고용여건이 다시 악화되는 모습임.
 - 실업자수는 전분기대비 4.6% 증가한데 반해 취업자수는 1.0%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2/4분기 중 0.3%p 증가한 5.2%를 기록하였고 7월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함.
 - 그러나 7월에는 고용증가의 선행지표인 시간외 작업시간이 전분기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일인당 현금소득과 고정임금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조짐이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2/4분기 중 에너지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하락폭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1.1% 하락한 것에 반해 석유제품의 가격은 13.7% 증가함으로써 소비자물가는 전분기대비 0.3%p 증가하여 0.9% 하락함.
 - 한편 식료품과 에너지 관련 제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2/4분기 중 1.6% 하락함으로써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고 7월에도 같은 수준의 하락세가 유지됨으로써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함.

〈내수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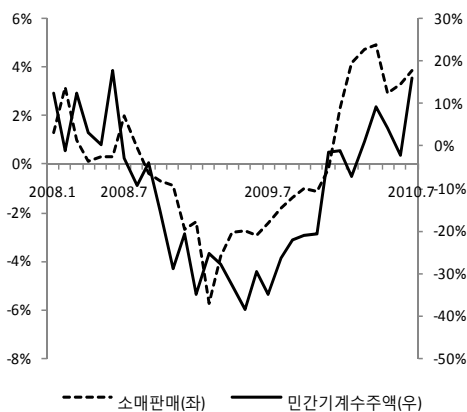
- 2/4분기 중 소매판매는 등락하면서 소폭 둔화세를 시현했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의 증가세를 이어감으로써 소비부문의 실물지표와 체감지수가 혼조된 모습임.
 - 2/4분기 중 소매판매액은 자동차판매가 둔화되면서 3.7%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소폭 둔화되는 모습이나 7월에는 전반적인 소매판매 증가세에 힘입어 소폭 증가함.
 - 소비자신뢰지수는 2/4분기 중 42.8을 시현함으로써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기계수주액은 2/4분기 중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주택착공호수는 증가세가 커지면서 투자부문의 체감지표와 실물지표가 개선세를 보임.
- 민간기계수주액은 2/4분기 중 3.7%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증가세로 반전됨으로써 하반기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 주택부문은 2/4분기 중 월평균 6만5천호가 착공되어 전분기대비 3천호가 증가하였으며 7월에도 6만9천호가 착공되면서 증가세로 이어지는 모습임.

<생산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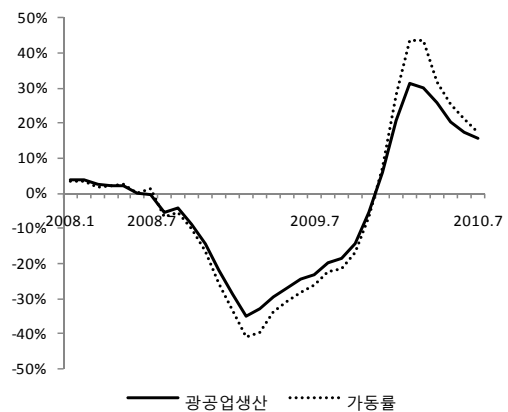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과 가동률은 2/4분기 중 수출의 증가세 둔화로 인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재고/출하율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줌.
- 광공업생산은 2/4분기 중 둔화세가 가속되어 7월에는 15.8%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광공업가동률은 광공업생산보다 시차를 두고 둔화세가 나타나 7월에는 둔화세가 가속되는 모습임.
- 광공업생산 재고/출하율은 2/4분기 중 106.2를 기록하여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에는 다시 108.2로 높아짐.

<그림 11> 소매판매 및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총무성.

<그림 12> 산업생산 증가율



자료 : 일본 내각부

라. 중국경제

2010년 2/4분기 중국경제는 여전히 두 자릿 수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경기과열을 우려한 정부의 통화긴축정책과 정부주도형 투자 억제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속도도 소폭 둔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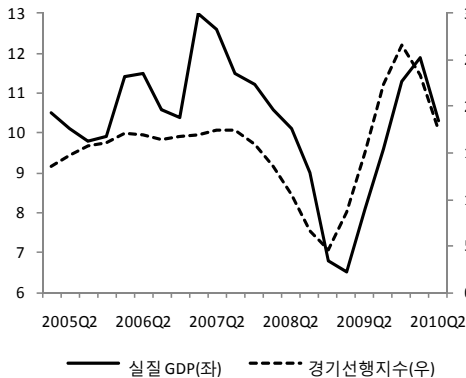
<최근 동향 및 전망>

- 2/4분기 실질 GDP는 순수출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의 둔화세 조짐으로 인해 상쇄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하는데 그침.
- 민간소비는 경기과열을 우려한 중국정부가 지방정부와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규대출을 억제함으로써 둔화세 조짐이 나타났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소비의 기여도도 둔화되는 모습임.
- 투자는 경기와 부동산시장 과열을 의식한 정부주도형 투자가 자제되면서 둔화되었으며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기여도 역시 1/4분기의 16.0%에서 2/4분기 6.1%로 크게 둔화됨.
- 수출과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0.8%, 44.0% 증가하여 증가세가 가속화되었으나 수입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1/4분기 -1.5%에서 2/4분기 0.6%로 다소 증가함.
- 주요 예측연구기관들⁵⁾은 경기부양 억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높은 인플레이션과 지방정부의 부실채권 문제로 인해 대규모 2차 경기부양은 회박할 것으로 보이며 둔화세는 하반기에도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함.
- 주요 예측연구기관들은 하반기 중국경제는 둔화세가 가속화되어 3/4분기에는 9.3%에 이르며 4/4분기에는 8.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5) JP Morgan, China Contruction, ANB Group 등 14개 대내외 연구기관

- 한편, IMF는 최근 10월 전망⁶⁾에서 금년과 내년의 중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10.5%와 9.6%로 발표함으로써 지난 7월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함.

<그림 13> 실질 GDP와 경기선행지수



<그림 14> 실질 GDP 기여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OECD

자료 :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 6.
중국 국가통계국.

<표 7>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8	2009	2009				2010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5월	6월	7월
실질 GDP	9.6	9.1	6.5	8.1	9.6	11.3	11.9	10.3	-	-	-
고정자산투자 ¹⁾	26.1	30.5	28.6	33.6	33.3	30.5	26.4	25.5	25.9	25.5	24.9
소매판매	21.6	15.5	14.9	15.0	15.4	16.5	18.4	18.5	18.7	18.3	17.9
수출	17.2	-15.9	-19.7	-23.5	-20.5	0.9	28.7	40.8	48.5	43.9	38.1
수입	18.5	-11.3	-30.8	-20.5	-11.8	25.4	64.7	44.0	48.3	34.1	22.7
산업생산	12.9	11.0	5.1	9.0	12.3	17.9	19.6	16.0	16.5	13.7	13.4
구매관리지수	50.2	53.0	48.9	53.3	53.9	55.7	54.3	53.9	53.9	52.1	51.2
소비자물가	5.9	-0.7	-0.6	-1.5	-1.3	0.7	2.2	2.9	3.1	2.9	3.3
생산자물가	6.9	-5.4	-4.6	-7.2	-7.7	-2.1	5.2	6.8	7.1	6.4	4.8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물가>

- 2/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재해 및 물류 여건 악화로 식료품가격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됨.
 - 2/4분기 중 식료품가격과 주거비가 전분기대비 각각 0.9%p, 1.9%p 증가하여 5.9%, 4.8%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커졌으며 7월에도 3.3%로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2/4분기의 소비자물가는 주요 농산물 생산지가 홍수 피해를 입으면서 채소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도로 유실에 따른 물류 여건이 악화되면서 상승하였으며, 7월에는 기저효과에 의한 영향이 커지면서 상승폭이 커짐.
- IMF⁷⁾는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 없이도 금년 소비자물가는 목표치인 3%내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함.
 - 기저효과의 축소 및 가을 수확, 정부의 가격안정 조치, 생산자물가 상승폭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는 근원소비자물가의 완만한 상승속도에 따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2010년과 2011년 소비자물가를 금년 4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각각 0.3%p, 0.4%p 상향 조정하여 3.5%와 2.7%로 전망함.

<내수부문>

- 2/4분기 중 소매판매는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증가세는 전분기대비 둔화되었으며, 7월에도 둔화세가 지속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2/4분기 중 18.5% 증가함으로써 1/4분기 보다 0.1%p 증가하는 것에 그쳤으며 7월에는 17.9%로 둔화됨.
- 2/4분기 중 고정자산투자는 정부주도형 인프라투자 둔화,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7)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 10.

- 고정자산투자는 2/4분기에 25.5% 증가함으로써 1/4분기의 26.4%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7월에도 24.9% 증가에 그쳐 둔화세가 가속됨.
- 정부의 부동산가격 억제 노력으로 주택가격수준은 다소 진정되었으나 주택투자는 전분기대비 상승세를 이어감.
- 2/4분기 중 70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래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1.4% 증가하여 전분기의 11.7%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나 주택투자는 34.4% 증가하여 증가세가 여전히 확대되는 모습임.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2/4분기 중 에너지소비 절감 정책 강화에 영향을 받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7월에도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는 모습임.
- 2/4분기 중 산업생산지수는 16.0% 증가함으로써 전분기대비 3.6%p 둔화되었고 7월에도 13.4% 증가함으로써 증가세 둔화가 현저히 나타남.
- 2/4분기 중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⁸⁾)는 여전히 기준치인 50을 상회했으나 전분기에 이어서 둔화세가 커지면서 생산부문 체감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임.
- PMI는 2/4분기 중 53.9를 기록하면서 전분기보다 0.4p가 둔화되었으며, 7월에는 51.2를 시현하면서 둔화폭이 커짐.

8)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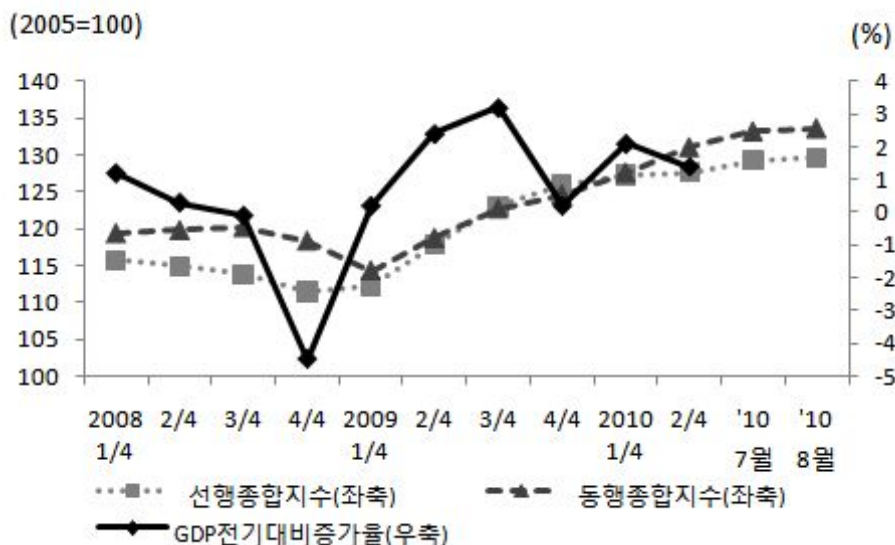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10년 2/4분기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수출도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실질 GDP가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경기선행지수 증가세의 정체로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짐.

- 2010년 2/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는 동시에 수출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7.2%의 성장률을 나타냄.
-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3.7% 성장함.

<그림 15> GDP와 경기지수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는 수출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기업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3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이 크게 줄어들고 토목건설도 부진해 지면서 2.9% 감소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¹⁾

(전년동기대비, %)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실질 GDP	2.3	-4.3 (0.2)	-2.2 (2.4)	1 (3.2)	6 (0.2)	0.2	8.1 (2.1)	7.2 (1.4)
- 민간소비	1.3	-4.4	-0.8	0.8	5.6	0.2	6.3	3.7
- 설비투자	-1.0	-23.1	-17.3	-7.0	13.3	-9.1	29.9	30.2
- 건설투자	-2.8	2.8	5.1	4.4	5.0	4.4	2.3	-2.9
- 재화수출 ³⁾	4.6	-13.5	-3.2	2.3	15.0	0.0	21.6	14.9
- 재화수입 ³⁾	4.5	-18.5	-13.8	-6.7	8.9	-7.9	21.8	22.1
국내수요 ⁴⁾	1.4	-8.6 (-2.0)	-7.6 (1.6)	-3.5 (4.2)	4.7 (0.7)	-3.8	9.6 (2.8)	9.5 (1.5)

주 : 1) 2000년 가격기준에서 2005년 연쇄가격 기준으로 전환됨.

2)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4)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재고투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 2/4분기 재화수출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기계류 등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14.9% 증가하였으며, 수입 금속,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22.1% 증가함.
- 국내수요는 민간소비, 정부지출 증가와 함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9.5%의 증가율을 나타냄.
- 8월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회복 속도 둔화가 우려됨.
- 경기동행지수는 8월말 133.6을 기록하면서 전월대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한 102.1을 나타냈으며, 경기선행지수 또한 전월대비 0.2%p 증가하였으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0.8%p 하락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함.

- 2010년 7~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 판매의 높은 증가세와 함께 비내구재, 준내구재의 판매도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평균 9.0% 증가함.
- 2/4분기 4.9% 증가로 다소 주춤했던 내구재 판매는 7~8월에는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통신기기 등의 수요 증가로 평균 22.1%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 판매는 7월과 8월 각각 9.3%, 5.3%의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차량연료, 음식료품, 서적·문구 등의 비내구재 또한 7월과 8월 각각 3.4%, 3.1% 성장함.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1/4	2/4	3/4	4/4 ^p	연간 ^p	1/4	2/4	7월 ^p	8월 ^p
소매 판매	-4.7	1.5	2.8	10.8	2.6	9.9	4.9	8.7	9.3
- 내구재	-11.9	5.7	7.9	33.9	8.1	29.4	5.4	18.4	25.8
승용차	-20.6	20.1	24.1	76.9	21.8	48.6	-2.1	13.9	37.7
- 준내구재	-1.5	-0.6	-0.7	3.4	0.3	2.7	6.9	9.3	5.3
- 비내구재	-1.4	0.5	1.9	4.1	1.2	3.3	3.5	3.4	3.1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0년 7~8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국내 기계수출은 7월 감소 이후 8월에는 큰 폭으로 증가함.
- 기계류에 대한 투자는 기저효과 등으로 2/4분기 32.2% 증가한 후 7월과 8월 각각 41.9%, 51.6%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8월 기계류 출하는 평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패키지에어컨, 반도체공정장비 등에서 호조를 보임.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7월 19.1% 감소하였으나 8월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방자치단체(데스크탑PC)와 민간부문에서의 반도체 및 부품(평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농림어업(농업용 트랙터) 등에서 발주가 증가하면서 33.6% 증가함.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1/4	2/4	3/4	4/4 ^P	연간 ^P	1/4	2/4	7월 ^P	8월 ^P
설비투자	-23.1	-17.3	-7.0	13.3	-9.1	29.9	30.2	-	-
- 기계류	-22.1	-18.9	-17.0	8.8	-12.9	29.3	32.2	41.9	51.6
- 운송장비	0.1	11.8	20.0	15.5	12.0	11.9	0.0	9.4	-1.1
- 기계수주	-35.5	-17.7	3.4	20.0	-11.8	10.5	24.2	-19.1	33.6
건설투자	2.8	5.1	4.4	5.0	4.4	2.3	-2.9	-	-
- 건설기성	4.3	6.4	-1.2	3.7	3.3	4.9	2.4	9.3	9.8
건축	-7.0	-4.8	-7.6	-0.5	-4.9	2.8	-2.8	-0.4	-1.4
토목	25.7	27.6	11.2	9.7	17.6	7.8	9.8	25.7	27.6
- 국내건설수주	-12.0	-1.1	7.6	11.6	3.0	-6.9	-6.6	22.2	-13.9
건축	-39.4	-47.2	5.6	17.0	-16.0	-0.4	60.1	3.3	-24.9
토목	77.1	140.9	10.6	3.7	41.9	-14.2	-51.5	52.7	23.2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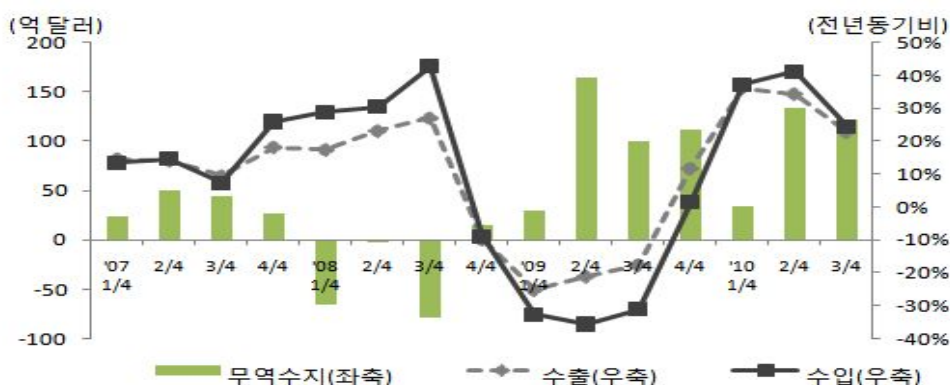
□ 2010년 7~8월 건설기성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토목공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평균 9.6% 증가했으며, 국내건설수주는 토목공사 발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의 발주감소로 평균 8.3% 증가에 그침.

- 건설기성은 공공부문의 토목공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토목공사 실적도 증가하면서 1/4분기 보다 2%p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7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가 모두 증가하며 22.2% 증가하였으나 8월에는 건축공사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13.9% 감소함.
- 2010년 7~8월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평균 16.2% 증가한 반면 공공부문은 평균 6.6%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은 8월에만 28.8%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대외거래>

- 2010년 3/4분기(7.1~9.20) 수출은 22.8%, 수입은 24.5%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가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122.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모두 전분기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수출보다 수입 증가율 둔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 주력 수출품목 중 무선통신기기(-19.5%)를 제외한 도체(54.4%), 자동차부품(47.7%), 자동차(27.6%), 선박(26.4%)등이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수입은 원자재(31.5%), 자본재(26.9%), 소비재(36.7%) 모두 크게 증가함.
- 2010년 3/4분기(7.1~9.20) 지역별 수출은 미, 일, ASEAN 등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수입 또한 주요 지역의 수입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
- 지역별 수출은 미국(38.6%), 일본(35.6%), EU(33.2%) 등 선진국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중국(27.7%), ASEAN(26.9%)도 양호한 성장률을 나타냄.
- 지역별 수입 또한 미국(36.7%), 일본(32.5%), 중국(31.5%), ASEAN(30.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EU(19.6)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됨.

<그림 16>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

〈산업생산〉

- 2010년 7~8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이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평균 16.3%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서비스업 생산지수도 교육, 운수업 등을 중심으로 평균 3.7% 성장함.
- 2010년 8월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자동차는 각각 26.0%, 62.6%, 25.2%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 갔으며, 기타운송장비, 비금속광물은 각각 8.4%, 1.6% 감소함.
 - 2010년 8월 서비스업 생산은 교육(11.5%), 운수업(10.0%), 보건·사회복지(9.3%), 도매·소매(6.3%)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숙박·음식점도 3.6% 증가함.
 - 도매·소매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의 호조로, 운수업은 수출입물동량 증가, 관광객 증가의 영향으로 증가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1/4	2/4	3/4	4/4 ^p	연간 ^p	1/4	2/4	7월 ^p	8월 ^p
광공업	-15.7	-6.1	4.3	16.2	-0.8	25.8	19.5	15.5	17.1
- 제조업	-16.5	-6.6	4.4	16.8	-0.9	26.8	20.2	15.9	17.4
- 자동차	-32.5	-19.1	15.8	14.7	-6.8	51.0	35.7	25.8	25.2
- ICT	-19.5	-0.5	13.2	46.3	7.8	46.0	27.0	21.9	22.4
서비스업	-0.3	2.4	1.9	3.7	2.0	5.7	4.0	3.2	4.2
- 도매 및 소매업	-4.8	-2.2	0.3	5.4	-0.4	7.4	5.5	6.7	6.3
- 운수업	-12.7	-10.0	-4.8	1.4	-6.6	14.0	13.8	13.6	10.0
- 숙박 및 음식점업	-2.6	-0.6	-2.5	-0.2	-1.5	1.5	0.9	2.4	3.6
- 부동산 및 임대업	-4.2	2.2	6.7	21.3	5.3	10.4	-2.7	-15.7	-14.2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물가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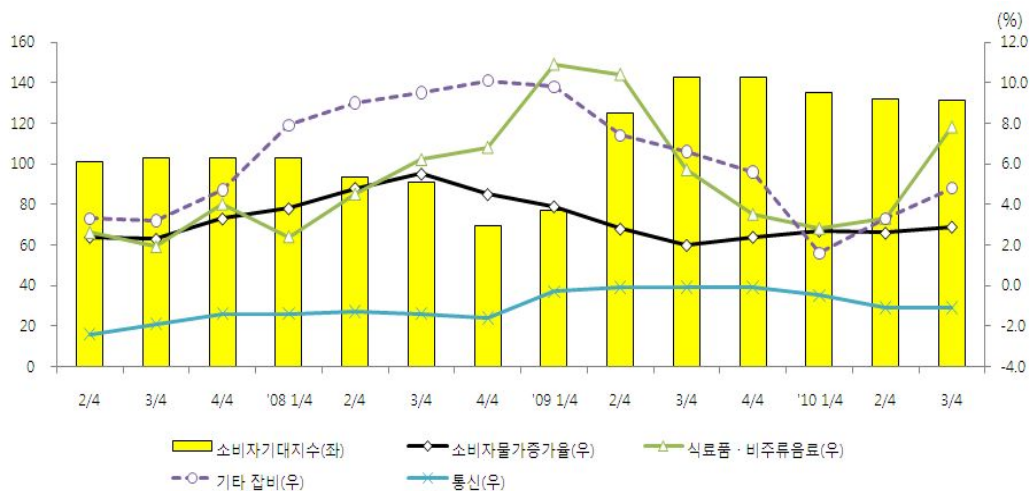
201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채소 및 과일류의 가격급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고용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회복세가 이어짐. 가계부문은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이 개선되는 모습이며, 가계흑자율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201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기타잡비 등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7.8%), 기타 잡비(4.8%), 교통(2.9%), 의복 및 신발(2.4%), 주거 및 수도광열(2.2%), 교육(2.1%), 외식·숙박(2.1%) 물가는 상승하였고, 통신(-1.1%) 물가는 하락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상승은 배추, 파 등의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채소·해조 물가가 전년동기대비 34.1% 상승하고 과일 물가도 15.9% 상승한데 기인함.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⁹⁾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9)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 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후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 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3/4분기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전분기 (131.9)와 유사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대지수가 상승하였으며 2010년 3/4분기에도 소비자기대지수가 131.1로 나타나 여전히 향후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고용사정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상승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의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나타냄.
 - 2010년 2/4분기 총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2.0%, 1.6% 증가한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2/4분기 1.4% 감소, 7월과 8월 각각 0.4%, 1.4% 감소하여 여전히 감소세를 나타냄.
 - 고용률은 2/4분기에 59.6%를 나타냈고 7월에 59.8%, 8월에 59.1%를 기록하면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실업률은 2/4분기 3.5%로 전분기대비 1.2%p 낮아졌으며 7월과 8월에 각각 3.7%, 3.3%를 기록함.
-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 부문에서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광공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2/4분기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했으며 7월과 8월에도 각각 2.3%, 2.0%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했으며 7월에는 6.1%, 8월에는 7.8% 증가하면서 증가추세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고 월별 기준으로 7월과 8월에 각각 6.2%, 7.9% 증가한 것에 기인함.
 - 2010년 2/4분기 도소매음식숙박 관련 취업자 수는 1.3% 감소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3.9% 증가하여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함.
 - 건설업의 경우는 전분기까지 이어져온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으며 7월과 8월에도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총취업자	-0.6	-0.6	0.0	0.0	-0.3	0.6	1.8	2.0	1.6
- 청년취업자	-5.1	-2.4	-3.0	-1.9	-3.1	-0.3	-1.4	-0.4	-1.4
고용률	57.4	59.3	59.1	58.7	58.6	57.0	59.6	59.8	59.1
실업률	3.8	3.8	3.6	3.3	3.6	4.7	3.5	3.7	3.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0	-1.3	-1.4	-6.9	-2.2	-11.7	-4.6	-2.3	-2.0
광공업	-4.1	-3.8	-3.6	-1.2	-3.2	1.6	4.4	6.1	7.8
- 제조업	-4.1	-3.8	-3.6	-1.2	-3.2	1.6	4.5	6.2	7.9
SOC 및 기타서비스업	0.0	0.2	0.9	0.9	0.5	1.3	1.9	1.5	0.7
- 건설업	-2.5	-6.0	-5.7	-5.9	-5.0	-3.6	2.5	7.0	6.5
- 도소매음식숙박	-2.0	-2.4	-2.8	-2.6	-2.4	-1.0	-1.3	-0.4	-1.7
- 전기,운수,통신,금융	-2.6	-1.8	-0.9	1.8	-0.9	4.1	2.4	1.8	3.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3.2	4.5	5.9	4.6	4.6	3.2	3.9	1.6	0.4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0년 2/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모두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며 흑자액도 증가세를 나타냄.

○ 2010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5만 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 증가했으며 실질소득의 경우도 4.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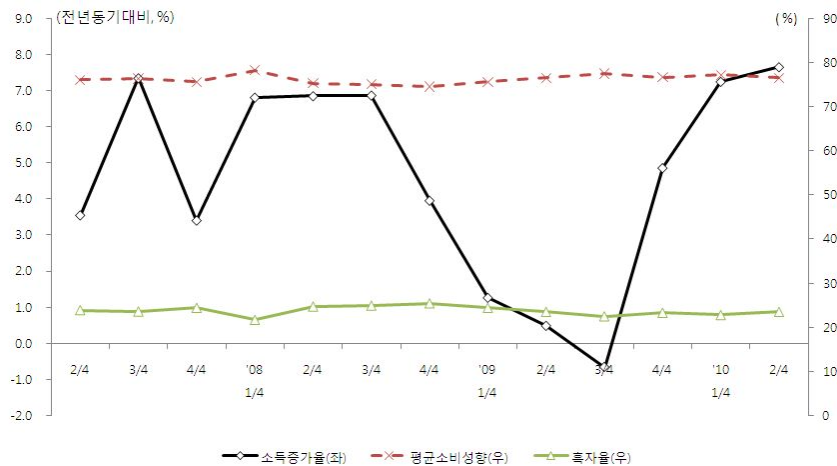
- 경상소득은 7.6% 증가했고 비경상소득도 8.3% 증가했으며, 경상소득 세부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5.9%, 사업소득이 11.3%, 이전소득이 12.7% 증가한 반면 재산소득은 10.6% 감소함.

○ 2010년 2/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고 실질소비지출은 4.7% 증가함.

- 세부항목별로는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13.7%, 보건의 13.0%, 오락·문화가 11.6% 증가하는 등 선택적 지출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2/4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9만 1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증가했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의 경우는 68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0%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6.5%로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도 전년동기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냄.

<그림 18> 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3. 금융경제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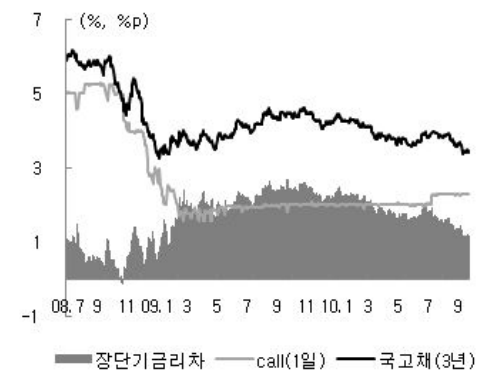
CD(91일)금리는 7월 초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금리(AA-)는 기준금리 인상 전후의 일시적 상승 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확대에 따른 수급개선 등으로 9월 말 현재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나타냄.

- 단기금리인 콜금리와 CD(91일)금리는 7월 초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하반기 추가 인상에 대한 선반영 등으로 소폭 상승한 이후 2.7% 내외에서 안정세를 나타냄.
 - 금통위는 일부 유럽국가 재정문제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 상승세, 물가상승 압력 등으로 기준금리를 2.00%에서 2.25%로 0.25%p 인상함.
 - 기준금리 변동은 작년 2월 2.25%에서 2.00%로 인하한 이후 17개월 만이며, 기준금리 인상은 2008년 8월 이후 23개월 만임.
 - 6월 말 기준 2.46%를 기록했던 CD금리는 기준금리 인상과 하반기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선반영 효과로 소폭 상승하며 9월 말 현재 2.69% 수준을 유지함.
- 국고채(3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통화당국의 완만한 금리인상 전망, 국내외 경제둔화 우려,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 및 수급개선 등으로 전분기에 이어 하락 기조를 유지함.
 - 국고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7월 중순 한때 3.98%까지 상승했으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 국내외 경제둔화 우려 등의 요인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9월 30일 현재 3.32%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함.
 - 또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중국의 국내채권 투자액 증가 등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세의 확대에 의한 수급개선 효과도 국고채금리 하향세에 일조함.

- 장단기금리차(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 차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콜금리의 상승으로 7월 초 192bps를 기록하는 등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국고채금리의 하락 추세가 강해지면서 작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104bps(9월 30일 기준)로 축소됨.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관 중심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하향세를 나타내며 국고채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임.
 - AA-등급 회사채금리와 BBB-등급 회사채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7월 초에 각각 4.90%, 10.83%를 기록해 잠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풍부한 시장 유동자금이 회사채 투자 확대에 이어지면서 9월 말 기준 각각 4.30%, 10.25%까지 하락하는 등 국고채금리 추세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냄.
 - 외국인이 국고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금리가 하락하고,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은행·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회사채 매수가 본격화됨.
 -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593~596bps 구간에서 안정적인 등락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BBB-등급 회사채금리가 여전히 10%를 상회하고 있어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금융위기 이전(약 300~400bps)에 비해 여전히 두 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3bps 내외의 등락을 보며 전분기대비 하향 안정화됨.
 - AA-등급 회사채금리와 국고채금리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국내금융시장 여건 호전으로 90~93bps의 구간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임.
 - TED 스프레드¹⁰⁾는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7월 초 39bps까지 확대되었으나, 재정위기를 촉발시킨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금리가 하향세로 전환된 데 따른 리보금리의 하락으로 9월 말 현재 15bps 수준으로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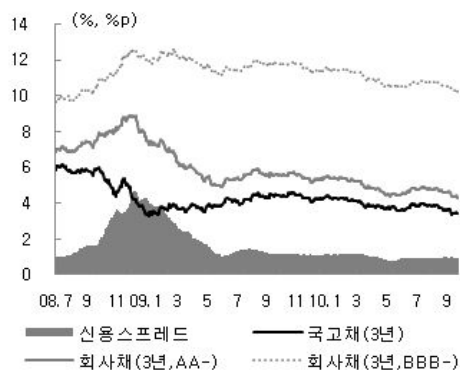
10) TED 스프레드는 런던은행 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그림 19> 장단기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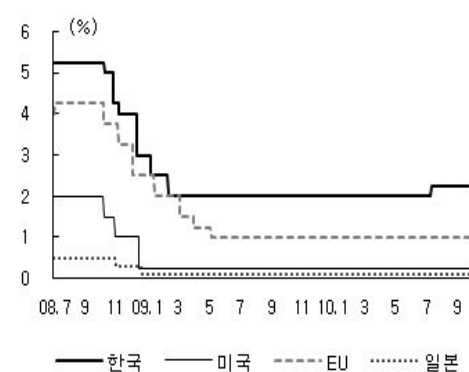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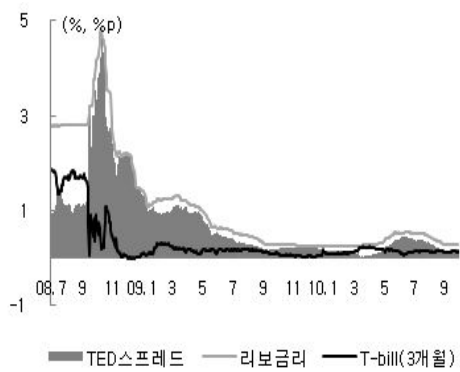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 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의 차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21>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2> TED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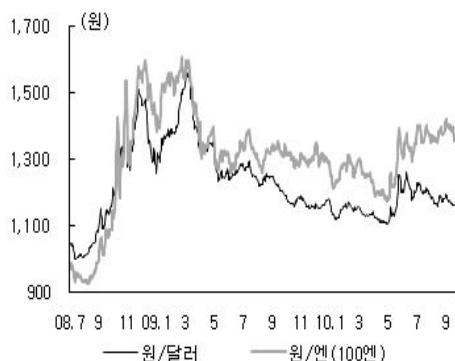
주 :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 국채금리(T-bill, 3개월)금리 간의 차이
자료 : Bloomberg

〈환율〉

원/달러 환율은 유럽 및 미국의 더블딥 우려 완화, FOMC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1,150원 대까지 하락했으며, 엔화 강세로 급등세를 보이던 원/엔 환율은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점차 진정되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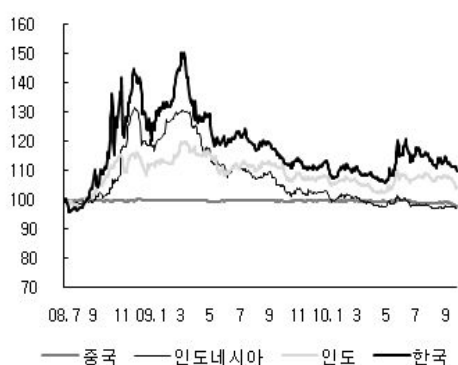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및 미국의 더블딥 우려 진정, FOMC의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등의 영향으로 1,150원 대까지 하락함.
 - 7월 중순까지 1,200원대에서 혼조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유로지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미국의 더블딥 우려 완화, FOMC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가능성 시사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9월 30일 현재 달러당 1,140까지 하락하며 환율의 하락 압력이 지속됨.
- 원/엔 환율은 미국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따른 엔화 강세 지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미국 경기 회복 가시화 등으로 엔화 강세가 둔화되면서 100엔당 1,350원 대에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
 - 6월 말 100엔당 1,300원 후반 대이던 원/엔 환율은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안전자산 선호 경향 강화 등으로 엔화가 초강세 기조를 유지하여 작년 4월 이후 처음으로 100엔당 1,400원을 상회하며 8월 말까지 상승세를 보임.
 - 이후 일본 통화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미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엔화 강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원/엔 환율은 9월 말 현재 100엔당 1,300원 중반 수준으로 하락함.
- 한편, 아시아 신흥국의 환율은 세계 경제의 더블딥 우려 완화,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재완화 가능성, 안전자산 선호 경향 약화 등이 신흥국 통화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6월 이후 하락 기조를 지속함.

<그림 23>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4>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

자료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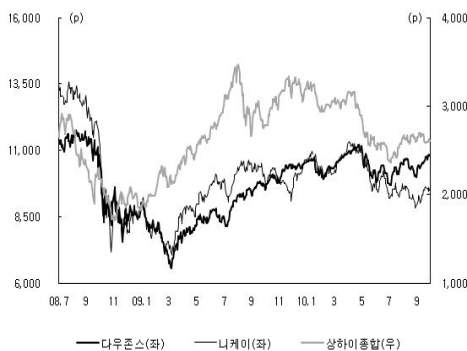
<주가지수>

연초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진정,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및 추가양적완화책 시행 가능성 등에 힘입어 크게 호전되고 있으며, 국내증시도 대내외 호재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됨.

- 연초 이후 하락 기조를 유지하던 글로벌 증시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진정,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지표 개선 및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로 전환됨.
-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우려 완화, 주요 경제지표 개선, NBER(전미경제연구소)의 경제침체 종료 선언, FOMC의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시사 등의 호재에 힘입어 7월 7일 10,000p를 돌파한 이후 9월 말 현재 11,000선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시현함.
- 일본 니케이지수는 엔화가치 급상승에 따른 수출 하락 등의 악재로 8월 말 기준 8,845.39p까지 급락했으나 일본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른 엔고 둔화, 일본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경제의 고성장세 등의 요인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여 9월 말 현재 9,369p까지 반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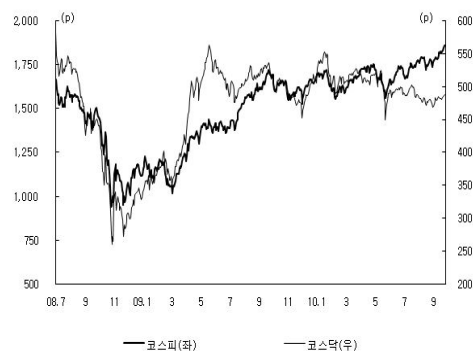
- 상하이종합지수는 위안화 강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실적 증가세 둔화와 물가상승에 따른 중국정부의 긴축정책 기조 지속 가능성 상승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경제지표의 실적 양호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9월 말 현재 2,600p 선까지 상승세를 보임.
- 국내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KOSPI)가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 완화,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 수급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대내 악재로 하락세를 보인 후 8월부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 반전함.
- 종합주가지수는 주요국의 경기둔화 우려 완화, 하반기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전망, 외국인 및 기관들의 매수세 확대에 따른 수급여건 개선, 중국 내수경기 활성화 등 대내외 호재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9월 말 현재 1,872.81p를 기록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경신함.
- 반면, 코스닥지수는 개인들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외국인의 매도세 확대, 일부 코스닥 상장기업 상장 폐지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8월 초까지 약세 기조를 보였으나, 이후 외국인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9월말 기준 500p선에 근접하며 반등세를 나타냄.

<그림 25>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6>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상반기 증시호조로 인한 조정 가능성 우려로 주식시장 관련 자금 유출이 증대되면서 2/4분기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의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감소한 반면, 건조한 성장세를 시현한 보험권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성 예금 자금이 급증한 은행권의 순수신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보험권 순수신 규모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에서 보험료의 유입 확대로 건조한 성장세를 시현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11조 3,206억원을 기록해 전분기대비 2조 2,241원원 증가함.
 -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개인보험의 주력 종목인 사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 생사혼합보험 및 변액보험의 성장세가 지급보험금 증가세를 상회하며 전분기대비 1조 3,782억원 늘어남.
 - 손해보험의 순수신 역시 장기성보험(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 관련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건조한 실적 증가와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지급보험금 하락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8,459억원이 증가함.
- 기준금리 인상과 증시조정 가능성 증대로 인한 주식시장 관련 자금 유출로 증권사, 투신사, 종금사의 순수신 규모는 감소한 반면, 예금으로의 자금 유입이 급증한 은행권의 순수신은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은행권의 순수신은 CD 만기도래분의 정기예금 전환 가속화, 주식형펀드 환매자금 및 부동산 매수대기자금 유입,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의 예금금리 상향조정에 따른 저축성예금 증가 등의 요인들로 실세충예금 규모가 전분기대비 40.0% 급증하면서 4조 7,911억원 증가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자금의 은행권 대거 유입, 증시호조로 인한 조정 가능성과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단기 대기자금인 고객예탁금과 RP자금이 급감(전년동기대비 64.9% 감소)하는 등 증시로의 시중자금 유입 흐름이 크게 악화됨.
 - 투신사의 순수신은 채권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성 환매물량 급증과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순유출(전분기대비 6조 5,646억원)되고 머니마켓펀드(MMF) 자금도 약 4조원 가량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19조 970억원 축소됨.

- 종금사의 경우 어음매출 및 발행어음의 감소세와 금년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예탁금도 부동산자금의 은행권으로의 대거 이탈로 인해 약 1조원 정도 순유출되며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대비 6조 687억원 감소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22,241
- 생 보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13,782
- 손 보	-2,086	-10	-4,588	7,795	234	-779	-2,365	8,459
은 행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47,911
- 일 반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70,442
- 신 탁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22,531
증 권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29,207
투 신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190,970
총 금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60,68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10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 부문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손해보험 또한 20% 이상의 높은 성장을 나타낸 데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한 31조 3,231억원을 시현함.

- FY2010 1/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원수)보험료 규모는 생명보험이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손해보험도 전 종목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연금, 생사혼합보험 등의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이 고성장을 지속하고 퇴직연금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9.8% 성장함.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실적 호조, 저축성보험 및 연금 부문을 중심으로 한 장기성보험의 고성장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8% 증대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4.5	-2.0	-4.2	-0.3	13.8	8.6	4.6	9.8
손해보험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9.3	10.3	11.7	14.9	21.1	19.4	16.9	20.8
합 계	270,997	1,110,568	275,206	284,484	343,721	304,481	1,207,891	313,231
	-0.1	1.8	1.0	4.8	16.2	12.4	8.8	13.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10 1/4분기 말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손해보험이 4.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생명보험의 자산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전체적으로 2.7% 증가한 471조 원을 시현함.

- FY2010 2/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지속적인 수입보험료 유입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 특별계정자산을 중심으로 낮은 성장을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2.7%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 규모는 수입보험료 증가와 운용자산 수익률 상승 등의 긍정적 요인이 있었으나, 상반기 주식시장의 불안으로 특별계정 자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5% 증가함.
- 반면,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보험료의 꾸준한 유입,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의 보유액 확대, 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8% 증가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 조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328	328	339	353	361	373	373		381
	2.4	7.5	3.2	4.1	2.5	3.1	13.5		2.5
손해보험	74	74	77	79	83	86	86		90
	3.5	12.1	3.5	3.7	4.4	3.8	16.4		4.8
합 계	402	402	415	432	444	459	459		471
	2.6	8.3	3.3	4.0	2.8	3.4	14.2		2.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8% 증가한 19조 2,40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FY2009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감.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을 제외한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이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하였으며, 특히 생사혼합보험이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9.7% 성장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큰 폭 성장에 힘입어 12.6% 성장함.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채권 부문에서 양호한 자산운용 수익으로 인한 운용자산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익률 저하로 특별계정자산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2.5% 증가에 그침.
- 주식투자 비중이 높아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별계정자산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FY2009 분기 평균 5.8%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FY2010 1/4분기에는 1.9% 증가에 그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수입보험료	176,323	735,614	176,324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4.5	-2.0	-4.2	-0.3	13.8	8.6	4.6	9.8
총 자 산	3,283,321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725,247	3,816,622
	2.4	7.5	3.2	4.1	2.5	3.1	13.5	2.5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FY2010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한 사망보험을 제외하고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 등 모든 종목에서 두 자릿 수 이상 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9.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8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FY2010 1/4분기에도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감소폭은 0.2%로 미미한 수준임.
 - 생존보험은 신규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일시적 수요 확대 효과가 소멸한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속보험료 유입도 지속되면서 17.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생존보험은 세제적격 개인연금보다는 세제비적격 일반연금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초회보험료가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연금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임.
 - 최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생사혼합보험은 1/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초회보험료가 전분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보험료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33.6%의 고성장을 기록함.
 - 변액보험은 FY2009 3/4분기 이후 20%대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변액연금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10.0%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변액종신보험도 변액보험 종목 중 비중은 크지 않으나 4.2% 성장함.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보유계약의 해지 현상도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계속보험료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 FY2010 1/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한 반면 대형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12.6%의 성장률을 나타냄.
 - 계속적으로 수입보험료가 축소되고 있는 일반단체보험은 1/4분기에도 13.2% 감소하였으며,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퇴직보험 또한 13.0% 감소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대형사를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13.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성장률	-3.8	-0.5	-0.2	4.8	16.2	14.1	8.8	17.2
	구성비	20.3	19.1	19.6	20.6	18.2	21.4	19.9	21.0
사망	보험료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성장률	-3.5	-1.1	-3.9	-2.1	-0.7	-0.1	-1.7	-0.2
	구성비	41.1	40.0	41.0	40.5	32.5	37.8	37.6	37.3
생사 혼합	보험료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성장률	20.2	0.5	18.5	22.6	33.9	20.1	23.6	33.6
	구성비	11.0	9.0	10.3	10.8	9.5	12.2	10.7	12.6
변액 보험	보험료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성장률	-10.8	1.2	-13.7	-8.4	5.1	10.4	-2.3	10.0
	구성비	22.9	23.9	23.3	23.5	19.8	23.3	22.3	23.4
개인 계	보험료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성장률	-3.3	-0.2	-3.9	-0.1	7.6	7.8	2.8	9.7
	구성비	95.3	92.1	94.3	95.4	80.1	94.6	90.5	94.2
단체	보험료	8,299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성장률	-24.6	-19.2	-9.5	-5.2	48.0	23.8	25.7	12.6
	구성비	4.7	7.9	5.7	4.6	19.9	5.4	9.5	5.8
합계	보험료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성장률	-4.5	-2.0	-4.2	-0.3	13.8	8.6	4.6	9.8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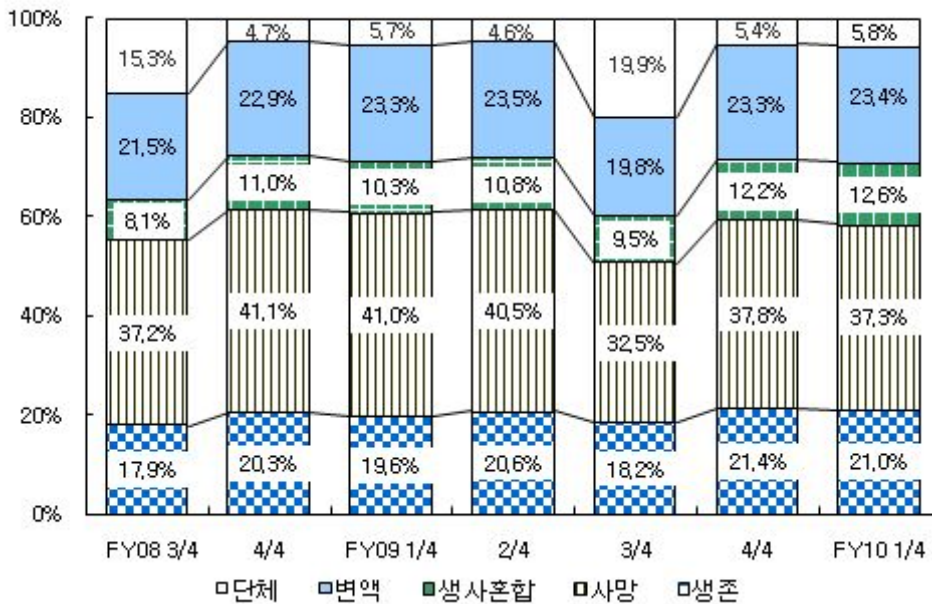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개인보험 중 생존·생사혼합·변액보험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고, 퇴직연금 성장에 따라 단체보험 비중도 증가함.
- 사망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7%p 감소한 37.3%를 나타냈으며, 이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전체적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에도 사망보험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임.
- 반면,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생존·생사혼합보험의 비중은 각각 1.4%p, 2.3%p 높아진 21.0%, 12.6%로 나타났으며, 변액보험 또한 소폭(0.1%p) 상승한 23.4%로 나타남.
- 단체보험의 비중은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1%p 확대된 5.8%를 시현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상위 3사의 비중이 하락하였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하락함.

○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4분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한 26.4%를 나타냈으며, 외국사의 점유율은 21.3%로 전년동기대비 0.1% 하락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퇴직연금 등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전분기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보면 보장성보험의 수입보험료 감소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전년동기대비 1.3%p 축소된 52.3%로 감소세를 지속함.

□ FY2010 1/4분기 허핀달지수는 상위 3사의 점유율 하락으로 0.0031 감소한 0.1186을 나타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53.3	54.7(-5.5)	53.6	52.9	57.4	51.8	54.1(3.4)		52.3
국내중소형사	25.4	23.8(12.5)	25.0	24.9	23.4	26.3	24.8(9.1)		26.4
외 국 사	21.3	21.5(-6.8)	21.4	22.2	19.2	21.9	21.1(2.7)		21.3
허핀달지수	0.1216	0.1271	0.1217	0.1200	0.1449	0.1172	0.1263		0.1186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10년 6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산업 누적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5.9% 증가한 1조 2,850억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보험영업수익이 7.2% 증가하였고 유지비를 중심으로 사업비 또한 증가하였으나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규모가 크게 줄면서 보험영업비용은 4.3% 감소함.
 - 투자영업에서는 투자영업수익이 이자수입 증가로 6.4% 증가하였고 외화 관련 손실 감소로 투자영업비용 또한 32.6% 감소함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은 23.3% 증가하였으며, 영업외이익도 58.7%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541,472	134,024	272,467	416,397	562,962	143,720
	투자영업	193,584	48,008	96,349	139,055	185,863	51,080
	영업외	33,276	8,353	16,410	24,289	33,471	12,470
	소계	768,332	190,386	385,225	579,741	782,296	207,269
총 비 용	보험영업	525,522	116,177	235,500	359,751	484,636	111,152
	투자영업	82,391	14,511	26,329	34,920	48,228	9,784
	영업외	7,439	1,501	2,796	5,283	5,982	1,594
	소계	615,352	132,188	264,624	399,954	538,846	122,531
수 지 차	보험영업	15,949	17,848	36,967	56,645	78,326	32,567
	투자영업	111,193	33,498	70,020	104,135	137,635	41,296
	영업외	25,838	6,852	13,614	19,006	27,489	10,876
	소계	152,980	58,198	120,601	179,787	243,450	84,739
책임준비금 전입		144,221	49,455	100,483	151,863	210,586	68,042
법 인 세		3,056	1,829	4,527	6,542	8,315	3,846
당기순이익		5,703	6,914	15,592	21,381	24,549	12,850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한 58.8%로 나타남.

○ 개인보험 중 수입보험료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은 각각 9.6%p, 20.3%p 감소한 51.0%, 49.7%를 나타냈으나, 변액보험의 경우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중심으로 해지환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률이 21.0%p 증가한 57.5% 수준으로 높아짐.

○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모두 소폭 감소하면서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5%p 감소한 50.2%를 나타냈으며, 단체보험 지급률은 소폭 증가하면서 166.7%를 나타냄.

□ 사업비율은 0.5%p 감소한 16.8%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변액보험 부문에서는 높아졌으나 일반계정에서 낮아짐에 따라 0.5%p 감소한 3.0%를 시현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 지급률	70.5	64.6	58.0	59.9	62.1	65.8	61.6	58.8	
개 인 계	58.9	58.8	51.9	56.0	57.1	56.5	55.4	52.1	
- 생 존	78.9	85.2	60.6	56.4	52.2	54.0	55.6	51.0	
- 사 망	57.0	49.9	51.7	53.8	49.4	51.4	51.6	50.2	
- 생사혼합	78.9	107.9	70.7	76.8	108.9	84.5	86.0	49.7	
- 변 액	34.8	33.9	36.5	50.0	49.4	52.5	47.3	57.5	
단 체	305.1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사 업 비 율	15.8	18.1	17.3	17.7	15.2	16.7	16.6	16.8	
해 지 율	12.4	12.4	3.5	6.5	9.0	11.3	11.3	3.0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10 1/4분기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에 비해 0.4%p 상승한 5.9%를 나타냈으며, 일반계정자산 이익률도 0.5%p 상승한 5.5%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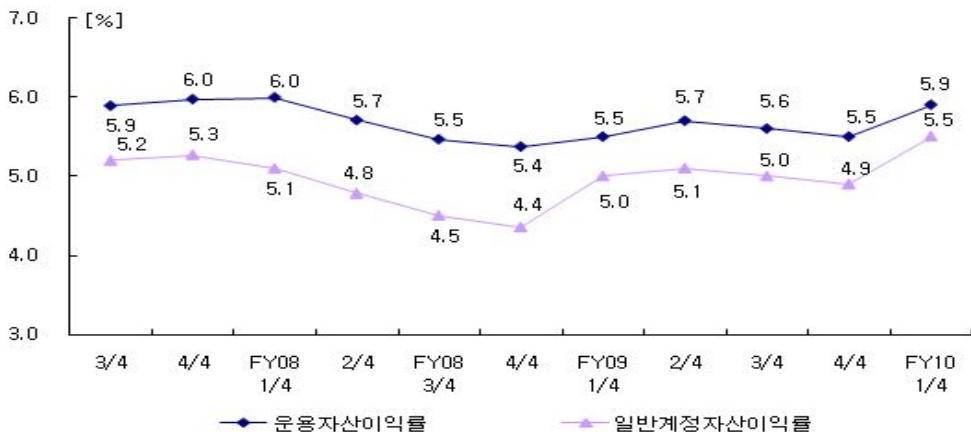
○ 운용자산 중 유가증권 이익률은 0.1%p 하락하였으며, 이는 채권 이익률 증가와 함께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이익률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 하락으로 단기매매증권 이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임.

○ 부동산 이익률은 소폭 하락한 3.0%를 나타낸 반면 대출채권 이익률은 기업대출에서의 이익 증가로 2.4%p 증가한 10.6%로 높아짐.

□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투자 비중은 유가증권 64.1%, 대출채권 20.7%, 부동산 3.9%, 현금과 예금 3.3%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기에 비해 현금과 예금, 대출, 부동산의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유가증권의 비중은 3.3%p 증대되었으며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짐.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이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3.5	3.1	3.3	3.0	3.5	2.9	3.2	2.9	3.3	3.2
유 가 증 권	60.8	4.8	61.7	5.0	62.0	5.0	63.1	4.8	64.1	4.7
○ 단기매매증권	1.4	7.0	1.2	6.7	1.1	5.9	1.6	4.1	1.7	2.0
- 주 식	0.0	63.0	0.0	93.3	0.0	70.2	0.0	56.2	0.0	-15.4
- 채권 등	0.3	8.9	0.3	6.3	0.3	6.2	0.3	4.3	0.2	1.7
- 수익증권	1.1	4.6	0.8	4.7	0.8	4.4	1.4	3.4	1.5	2.1
○ 매도가능증권	46.5	4.4	47.2	4.7	47.3	4.7	47.8	4.6	48.4	4.6
- 주 식	4.3	0.7	5.3	1.1	5.0	0.9	4.9	1.7	4.6	0.8
- 채권 등	38.8	4.8	38.3	5.1	38.6	5.1	39.5	5.0	40.2	5.2
- 수익증권	3.4	5.0	3.6	5.6	3.8	4.7	3.5	4.1	3.5	2.6
○ 만기보유증권	11.9	4.7	12.5	4.9	12.7	5.2	12.8	5.3	13.1	5.5
- 채권 등	11.9	4.6	12.5	4.9	12.7	5.2	12.8	5.3	13.1	5.5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0.0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23.6	0.9	19.0	0.9	16.5	0.9	13.8	0.9	7.3
대 출 채 권	22.3	8.2	22.2	8.0	21.9	8.0	21.5	7.9	20.7	10.6
부 동 산	4.2	4.0	4.0	5.5	3.9	4.5	4.0	4.2	3.9	3.0
운 용 자 산 계	90.8	5.5	91.2	5.7	91.3	5.6	91.7	5.5	92.0	5.9
비 운 용 자 산	9.2	-0.5	8.8	-0.6	8.7	-0.6	8.3	-0.3	8.0	0.3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률)	100.0 (81.7)	5.0	100.0 (81.2)	5.1	100.0 (80.8)	5.0	100.0 (80.6)	4.9	100.0 (80.7)	5.5
특 별 계 정 자 산	18.3	16.1	19.1	17.6	19.2	13.7	19.4	11.1	19.3	3.6
총 자 산	100.0	6.9	100.0	7.3	100.0	6.6	100.0	6.1	100.0	5.1
총 자 산 규 모	3,388,638		3,527,890		3,614,323		3,725,247		3,816,622	

주 : 1) 이익률은 누계 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10 1/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확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방카슈랑스를 제외하고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모두 축소됨.

○ 방카슈랑스 비중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FY2010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12.4%p 확대된 51.9%를 기록함.

- 방카슈랑스에 의해 거수된 초회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에서 각각 171.7%, 149.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채널에 비해 일시납 비중이 높음.

○ 설계사를 통한 초회보험료는 월납 중심인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의 비중은 9.7%p 감소한 26.5%로 나타남.

○ 임직원의 비중은 퇴직연금 신규 수요 증가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며 14.1%를 나타냈고, 대리점 비중 또한 1.6%p 감소한 7.2%를 나타냄.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임 직 원	11.8	17.8	15.4	7.5	46.9	14.2	27.0	14.1
설 계 사	32.5	36.0	36.2	35.9	19.5	28.6	27.1	26.5
대 리 점	9.1	8.8	8.8	8.2	5.6	7.7	7.0	7.2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6.5	37.3	39.5	48.2	27.8	49.1	38.6	51.9
기 타	0.1	0.1	0.1	0.3	0.2	0.3	0.2	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510	67,375	12,973	17,200	40,990	25,688	96,851	24,407

주 :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 기대비 감소함.
- FY2009 4/4분기 계절적인 요인으로 증가했던 임직원 수는 1/4분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대형사에서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설계사 수는 전분기에 비해 3,175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속설계사는 2,516명 감소하였고 교차설계사는 659명 감소함.
 - 전속설계사와 교차설계사 모두 중소형사에서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형사의 전속설계사 수도 감소함.
 - 전속설계사 규모가 축소된 주요 원인은 신규 리쿠르트가 정채된 상황에서 비가동 설계사의 탈락현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대리점 수도 대리점간 통폐합, 대형화 등으로 인해 1,565개 감소한 11,679개로 나타남.
 - 법인대리점과 개인대리점 모두 감소하였으며, 대형사에 비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8,137	28,300	27,421	27,131	26,541	26,693	26,566
설 계 사	176,090	171,347	168,874	165,852	164,175	162,687	159,512
- 전속	-	145,834*	143,588	140,796	141,067	140,461	137,945
- 교차	-	25,513*	25,286	25,056	23,108	22,226	21,567
대 리 점	13,695	13,120	13,588	13,739	13,387	13,244	11,679
- 개인	10,311	9,357	9,014	8,940	8,874	8,702	7,548
- 법인	3,384	3,763	4,574	4,799	4,513	4,542	4,131

주 :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의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장기성보험¹⁾의 높은 성장세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견조한 실적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8% 성장한 12조 829억원을 시현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을 중심으로 한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과 퇴직 관련 보험 및 개인연금의 꾸준한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0.1% 급증한 7조 5,524억원을 나타내 전체 손해보험산업 성장을 견인함.
 - 자동차보험은 실물경기 회복으로 신차·수입차·대형차 판매 호조 및 차량등록대수의 안정적 증가와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강화 추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2조 9,307억원을 시현함.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이 15.8%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1조 5,999억원을 나타냄.
- FY2010 1/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매도가능증권의 채권 및 외화유가증권 등 유가증권의 가치 증대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전분기대비 4.8% 증가한 90조 2,218억원을 기록함.
 - 특별계정자산 규모는 전분기와 유사한 3조 3,053억원을 기록했으나, 일반계정자산은 86조 9,165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9% 증가함.
 - 일반계정자산 중 운용자산은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특수채, 회사채,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가치 증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9% 확대되었으며, 비운용자산 규모도 기타자산의 증가로 전분기대비 5.1% 늘어남.

1)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말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9.3	10.3	11.7	14.9	21.1	19.4	16.9	20.8
- 장기성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16.3	15.2	18.3	23.9	33.5	28.3	26.4	30.1
- 자동차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3.2	1.2	-0.6	1.4	3.3	6.4	2.6	7.6
- 일반손해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9.8	12.2	12.6	8.7	5.9	8.1	8.7	8.4
총 자 산	739,895	739,895	766,082	794,726	829,558	861,222	861,222	902,218
	3.5	12.1	3.5	3.7	4.4	3.8	16.4	4.8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FY2010 1/4분기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세 지속과 퇴직 및 개인연금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한 7조 5,524억원을 실현함.

○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이 4분기 연속 2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요 증가와 금년 말 제도 종료를 앞둔 퇴직보험도 일부 회사들의 실적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함.

- 이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장한도 축소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큰 폭의 실적 증가를 보인 FY2009 3/4분기(전년동기대비 33.5% 성장)와 비슷한 성장률임.

□ FY2010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의 신규 판매 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약 유지율 증가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전년동기대비 25.5% 증가한 6조 6,651억원을 기록함.

- 작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제도 변경 이후 보장성보험 신규 판매는 둔화되고 있으나,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로 과거 계약의 메리트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4분기 연속 20%대의 고성장을 이어감.
- FY2010 1/4분기 개인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업계의 판매 확대 전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1.3% 급증한 5,527억원을 기록함.
- 저금리 기조 지속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목돈 마련 및 노후대비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보험회사들이 세제적격 개인연금상품에 대한 판매 활동을 강화하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음.
- FY2010 1/4분기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6.7%, 346.4% 증가해 전체 퇴직 관련 실적도 15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부 보험회사들의 실적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26.7% 증가함.

<표 12>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장 기 손 해	보험료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성장률	14.9	15.5	18.3	23.3	24.5	27.0	23.4	25.5
	구성비	90.0	89.1	91.5	91.8	77.9	89.1	87.1	90.7
개 인 연 금	보험료	3,449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성장률	27.1	28.6	25.7	30.4	46.5	49.9	38.8	51.3
	구성비	6.2	6.1	6.3	6.5	6.5	7.3	6.7	7.5
퇴 직 보 험	보험료	1,110	6,807	758	521	6,828	573	8,680	960
	성장률	18.7	-17.6	46.4	27.3	43.1	-48.4	27.5	26.7
	구성비	2.0	3.2	1.3	0.8	8.9	0.8	3.2	1.3
퇴 직 연 금	보험료	939	3,322	534	541	5,049	1,994	8,119	2,385
	성장률	75.2	55.7	-29.4	39.3	307.9	112.4	144.4	346.4
	구성비	1.7	1.6	0.9	0.9	6.6	2.8	3.0	3.2
합 계	보험료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70,894	267,629	75,524
	성장률	16.3	15.2	18.3	23.9	33.5	28.3	26.4	30.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퇴직연금은 퇴직보험 제도 개정에 따른 퇴직보험시장의 성장과 신규계약 및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대비 346.4% 증가함.
-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의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적립금 기준)은 2009년 12월 이후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타 금융권대비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10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종목별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장 상품인 상해보험·질병보험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확대와 통합형·운전자·재물보험의 판매 호조세가 이어짐.
- 상해 및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건강보장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5%, 28.0% 증가한 1조 7,671억원과 1조 3,525억원을 시현했으나, 작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상품 표준화에 따른 선가입 증가의 영향으로 신규가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작년 2/4분기 이후 성장 둔화세가 지속됨.
- 특히, 상해보험의 경우 16.7% 성장률을 시현한 FY2005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5.3% 증가한 1조 4,020억원을 기록함.
- 분기별 원수보험료 규모로는 FY2007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질병보험의 실적을 상회함.
- 금융위기 이후 비교적 높은 보험료 등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통합형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최근 경기회복과 다양한 보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6% 성장했으며,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도 각각 11.2%, 9.9%의 성장률을 시현하며 호조세를 보임.
- FY2010 1/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신규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저축성보험의 견조한 수요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3.3% 증가한 4,176억원을 기록함.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3,770	49,702	15,041	15,650	16,414	16,964	64,069	17,671
		성장률	28.4	25.5	32.8	31.2	30.1	25.1	28.9	17.5
	운전자	보험료	5,075	20,904	5,008	4,994	5,160	5,459	20,621	5,571
		성장률	-5.9	-2.1	-6.5	-5.4	-0.7	7.6	-1.4	11.2
	재 물	보험료	4,523	18,113	4,550	4,548	4,701	4,836	18,635	5,002
		성장률	0.8	2.8	0.4	0.4	3.6	6.9	2.9	9.9
	질 병	보험료	9,590	33,755	10,568	12,992	13,000	13,294	49,853	13,525
		성장률	32.9	23.2	40.7	62.2	48.4	35.9	47.7	28.0
	저축성	보험료	7,480	29,639	8,479	9,040	9,924	11,676	39,119	14,020
		성장률	4.3	8.7	16.2	20.7	34.7	56.1	32.0	65.3
	통합형	보험료	9,206	36,403	9,330	9,925	10,129	10,335	39,719	10,595
		성장률	10.7	20.6	5.6	8.1	10.4	12.1	9.1	13.6
	자산 연계형	보험료	104	313	111	151	117	594	973	267
		성장률	-	-	-	45.7	10.7	469.3	210.5	140.1
	소 계	보험료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성장률	14.9	15.5	18.3	23.3	24.5	27.0	23.4	25.5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824	2,365	645	793	350	478	2,266	518
		성장률	60.9	36.9	42.8	61.1	-41.4	-42.1	-4.2	-19.7
	운전자	보험료	108	424	121	119	210	200	650	127
		성장률	-18.6	-25.9	7.9	18.4	103.0	85.0	53.2	4.6
	재 물	보험료	166	622	172	130	200	190	692	223
		성장률	2.6	-0.2	0.1	-4.2	34.2	15.0	11.2	29.6
	질 병	보험료	719	1,762	513	753	283	247	1,796	239
		성장률	234.5	129.8	131.3	130.9	-42.8	-65.7	1.9	-53.3
	저축성	보험료	652	2,405	1,091	1,153	1,095	1,716	5,056	2,971
		성장률	-22.6	-5.8	69.7	77.9	137.2	163.4	110.3	172.3
	통합형	보험료	219	851	181	322	110	137	750	104
		성장률	-28.6	-23.1	-31.5	48.4	-27.5	-37.3	-11.9	-42.4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30	332	362	-7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2,687	8,429	2,724	3,270	2,278	3,300	11,572	4,176
		성장률	23.9	14.7	46.0	70.4	16.4	22.8	37.3	53.3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2,946	47,337	14,396	14,857	16,065	16,487	61,803	17,153
		성장률	24.8	24.9	32.4	29.9	33.0	29.4	30.6	19.2
	운전자	보험료	4,967	20,480	4,887	4,875	4,949	5,259	19,971	5,444
		성장률	-5.6	-1.4	-6.8	-5.8	-2.8	5.9	-2.5	11.4
	재 물	보험료	4,358	17,491	4,378	4,418	4,502	4,646	17,943	4,779
		성장률	0.8	2.9	0.4	0.8	2.6	6.6	2.6	9.2
	질 병	보험료	8,871	31,992	10,055	12,239	12,716	13,047	48,057	13,286
		성장률	26.7	20.1	37.9	60.4	55.0	43.9	50.2	32.1
	저축성	보험료	6,828	27,234	7,388	7,887	8,829	9,960	34,063	11,049
		성장률	7.9	10.2	11.0	15.3	27.8	45.9	25.1	49.6
	통합형	보험료	8,988	35,552	9,149	9,603	10,019	10,198	38,969	10,491
		성장률	12.2	22.3	6.7	7.1	11.0	13.3	9.6	14.7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87	262	348	274
		성장률	-	-	-	-	-	-	-	146.0
	소 계	보험료	47,062	180,086	50,364	54,028	57,167	59,858	221,154	62,475
		성장률	14.4	15.4	17.1	21.3	24.8	27.2	22.7	24.0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국내보험시장 동향

-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고금리 투자형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업계의 적극적인 판매 활성화 노력,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의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72.3% 급증하며 전분기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작년 실손의료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 상품 표준화에 따른 업권간 경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상해·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9.7%, 53.3% 감소했으나 하락 폭은 다소 둔화됨.
- FY2010 1/4분기 종목별 계속보험료는 저축성보험의 성장세 확대와 상해·질병보험의 성장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24.0% 증가함.
-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작년 상반기 이후 신계약의 꾸준한 유입으로 전년 동기대비 49.6% 증가하여 매분기 성장 폭을 확대하고 있음.
- 상해·질병보험도 신계약 감소가 둔화되고 해지율의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19.2%, 32.1% 증가했으나, 신계약 부진으로 성장률은 전분기에 이어 감소함.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 FY2010 1/4분기 누적 기준 장기손해보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한 4.0%로 나타나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짐.

<표 14> 장기손해보험 해지율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 해	17.2	17.2	6.0	10.9	14.1	16.9	16.9	3.8
운전자	17.6	17.6	5.5	10.4	12.7	15.3	15.3	4.1
재 물	15.1	15.1	4.9	7.7	10.7	13.5	13.5	5.0
질 병	14.8	14.8	4.6	9.3	12.6	16.0	16.0	3.8
저축성	19.7	19.7	5.9	9.6	13.4	17.0	17.0	4.6
통합형	10.1	10.1	4.6	4.4	10.9	13.2	13.2	3.0
계	16.9	16.9	5.4	9.7	12.8	15.8	15.8	4.0

주 : 1)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재물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의 누적 해지율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로 기존계약에 대한 메리트가 증가함에 따라 상해·질병·통합형보험의 해지율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2) 자동차보험

- FY2010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차량등록대수 증가율 회복, 차량의 고급화 및 주요 담보 강화 경향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2조 9,307억 원을 기록해 완전한 회복세를 보임.
 - 자동차보험시장은 본격적인 실물경기 회복세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자동차업체의 신차출시, 유가안정 등으로 시장성장의 주요 변수인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3% 후반 대까지 상승하고, 대당보험료가 높은 신차·수입차·대형차 판매 호조, 주요 담보의 가입금액 고액화 경향 등에 힘입어 성장 폭이 확대됨.
- 담보별 원수보험료는 고액사고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려는 수요 증대 등으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 부문 모두 전년동기대비 각각 1.4%, 10.9% 증가함.
 - 대인배상 I 의 원수보험료는 금융위기와 2008년 단행된 요율인하 영향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대인배상 I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용 차량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함.
 - 종합보험의 경우, 차량의 고급화·대형화 경향과 사고 발생률 증가로 물적담보 가입금액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관련 담보인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대인배상 II(대인 II), 자기신체사고(자손), 무보험차상해(무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4.7%, 8.0%, 3.4% 증가하는 등 물적담보 뿐만 아니라 인적담보 강화 수요도 꾸준히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8,565	35,923	8,424	8,908	8,632	8,245	34,210	8,539
종합 보험	대인 II	2,916	12,215	3,053	3,117	3,151	3,093	12,414	3,197
	대물	6,679	26,710	6,996	7,339	7,328	7,455	29,118	7,751
	자차	6,289	25,836	6,530	6,651	7,088	7,245	27,514	7,493
	자손	921	3,804	961	960	998	999	3,919	1,038
	무보험	268	1,098	272	282	284	276	1,114	281
	소계	17,073	69,664	17,812	18,350	18,849	19,067	74,079	19,760
외화표시		21	127	33	21	35	21	108	27
이륜자동차		98	460	145	140	121	112	518	158
기 타		796	3,198	827	830	846	808	3,310	822
합 계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대부분의 담보에서 사고발생률 증가에 따른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4.7%p 증가한 75.7%를 나타냄.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사고발생 증가에 따른 발생손해액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3%p 악화된 71.4%를 기록함.

- 그러나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회복으로 경과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손해율 증가 폭은 다소 완화됨.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본격화된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차량판매 호조, 유가안정 등으로 인한 차량운행 증가가 사고발생률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경과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5.3%p 증가한 77.8%를 나타냄.

-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한 무보험차상해를 제외하고 종합보험 전 담보의 손해율이 악화되었으며, 특히 물적담보인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최근 대물사고 할증기준금액 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6.2%p, 8.8%p 악화된 83.1%, 74.8%를 시현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대인 I	61.3	66.6	68.1	71.8	75.7	69.0	71.1	71.4
대인 II	70.9	73.5	69.0	62.1	68.7	68.0	66.9	70.5
대물	76.1	75.4	76.9	78.5	86.7	83.2	81.3	83.1
자차	74.5	68.9	72.6	79.1	81.8	92.3	81.6	78.3
자손	82.2	60.6	66.0	64.9	74.1	78.4	70.9	74.8
무보험	37.9	35.8	21.1	63.0	47.3	30.1	40.5	17.3
소계	74.3	71.1	72.5	75.0	80.5	83.0	77.8	77.8
외화표시	58.2	62.3	63.4	48.2	52.9	52.2	54.4	64.7
이륜자동차	71.2	94.6	93.9	94.2	85.7	68.6	85.5	97.3
기 타	67.8	68.6	66.0	76.0	79.4	81.1	75.7	67.1
합 계	69.7	69.7	71.0	74.1	79.0	78.6	75.7	75.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10 1/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화재보험과 해상보험의 마이너스 성장 및 보증보험의 저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종보험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전년동기대비 8.4% 성장한 1조 5,999억원을 나타냄.

○ 화재보험은 물건이탈 추세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5.0%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해상보험의 경우도 선박보험의 감소로 5.9% 감소함.

○ 보증보험은 지속적인 보증보험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었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0.9%의 성장세를 시현함.

○ 특종보험은 상해보험이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하는 가운데 기술보험이 고성장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15.8% 성장함.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10	2,835	654	632	798	679	2,763	622
	성장률	-8.4	-7.8	-6.6	-0.1	0.7	-4.3	-2.5	-5.0
	구성비	5.5	5.3	4.4	4.4	5.2	4.9	4.7	3.9
해 상	보험료	1,864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성장률	23.1	30.5	2.2	5.1	-27.5	5.5	-5.4	-5.9
	구성비	14.5	15.8	15.0	13.9	12.1	14.1	13.8	13.0
보 증	보험료	2,966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성장률	15.3	16.0	12.5	-1.3	10.1	5.4	6.6	0.9
	구성비	23.0	21.4	21.4	20.0	20.2	22.5	21.0	20.0
특 종	보험료	6,754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성장률	4.3	6.9	15.8	12.5	16.3	12.6	14.3	15.8
	구성비	52.5	54.2	56.5	58.3	58.1	54.7	56.9	60.4
해 외 원보험	보험료	580	1,781	383	500	661	534	2,078	433
	성장률	51.3	58.1	71.1	46.6	3.8	-7.9	16.7	13.1
	구성비	4.5	3.3	2.6	3.5	4.3	3.8	3.6	2.7
합 계	보험료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13,912	58,470	15,999
	성장률	9.8	12.2	12.6	8.7	5.9	8.1	8.7	8.4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1/4분기 화재보험은 종합보험으로의 물건이탈 추세로 대부분의 종목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한 62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화재보험은 뚜렷한 성장 동력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난 분기에 이어 물건이탈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택, 일반, 공장물건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6%, 2.5%, 6.2% 감소하여 전체 5.0% 감소함.

□ FY2010 1/4분기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선박보험이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한 2,084억원을 나타냄.

○ 적화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4% 성장한 668억원을 나타냈으나 해상보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박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97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면서 감소세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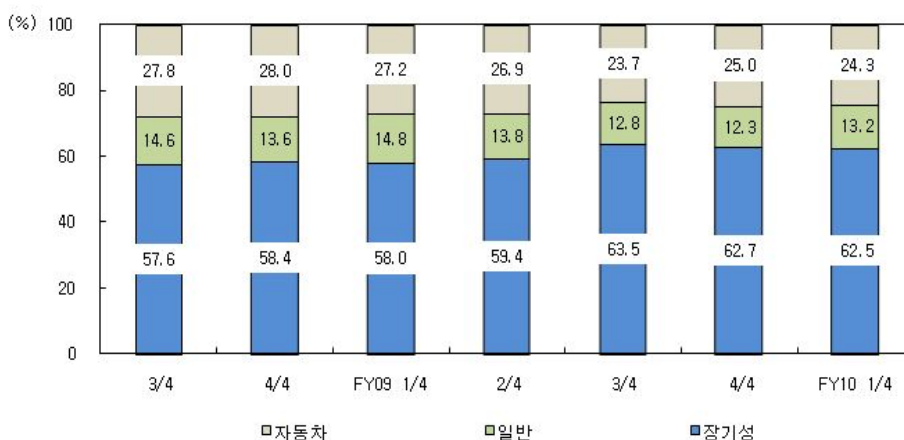
- 항공보험은 230억원의 원수보험료 실적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6.8% 성장했고 해양종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7% 감소한 15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냄.
- FY2010 1/4분기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9% 성장한 3,194억원을 시현함.
 - 건설보증 및 이행보증보험을 포함한 보증보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나 전년동기 높은 성장률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0.9%의 저성장을 나타냈으며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FY2010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종합, 상해, 기술보험의 고성장으로 전년 동기대비 15.8% 증가한 9,665억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은 화재보험에서 이탈된 물건의 종합보험화 효과로 인해 기업성 물건이 전년동기대비 9.8%, 가계성 물건이 27.0%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9% 증가한 3,156억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여행보험 성장세가 이어지고 비중이 큰 단체상해보험과 일반상해보험이 각각 8.3%, 22.2%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14.0% 성장한 2,576억원을 나타냄.
 - 기술보험은 비중이 큰 건설과 조립 관련 보험이 각각 42.0%, 83.5%의 고성장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50.8% 성장한 1,26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시현함.
 - 책임보험은 전문직업인 관련 배상책임보험이 6.7% 감소했으나 지난 분기 성장이 주춤했던 일반배상책임보험이 14.4%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4.7% 성장하여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한 1,568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냄.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원수보험료 기준 FY2010 1/4분기 종목별 구성비는 장기보험이 높은 성장을 나타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고, 일반손해보험은 여전히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분기대비 비중은 소폭 증가함.

- 장기성보험 비중은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5%p 증대된 62.5%를 나타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2%p 감소해 증가 폭은 다소 둔화됨.
- 자동차보험 비중은 경기회복에 따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성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년동기대비 2.9%p 감소한 24.3%를 나타냈으며 전분기대비로도 0.7%p 감소함.
-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원수보험료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전년동기대비 1.6%p 감소한 13.2%를 나타내면서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고, 전분기대비로는 0.9%p 증가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10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4사가 증가한 반면, 국내 기타사, 전업사 및 외국사가 소폭 감소함.
- 장기손해 및 연금보험(개인·퇴직연금)의 비중이 높은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저축성보험과 연금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0%p 증가한 69.1%를 나타냄.

○ 반면, 국내 기타사, 전업사, 외국사 및 온라인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함.

- 특히, 온라인사의 경우 장기간 3% 초반의 시장점유율로 성장 정체를 보임에 따라, 최근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장기손해보험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온라인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FY2010 1/4분기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20p 증가한 0.1459를 기록함.

○ 작년 1/4분기 이후 매분기 허핀달지수가 상승세에 있어 상위 4사를 중심의 시장집중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4사	69.1	68.9(11.7)	68.1	68.5	69.3	69.0	68.8(16.7)	69.1
국내 기타사	24.8	24.5(21.4)	25.4	25.4	25.2	25.0	25.2(20.5)	25.2
전업사	2.9	3.1(16.0)	3.2	2.8	2.6	2.8	2.8(6.6)	2.7
외국사	3.3	3.6(31.3)	3.3	3.4	2.9	3.2	3.2(4.4)	3.0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3	3.5(7.1)	3.3	3.4	3.0	3.3	3.2(7.2)	3.0
허핀달지수	0.1439	0.1440	0.1402	0.1409	0.1440	0.1437	0.1436	0.1459

주 :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 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미쓰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4) ()는 연간 원수보험료 성장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의 흑자 전환과 투자영업에서의 이익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4.6% 확대된 8,870억원을 기록함.

○ 저축성보험의 매출 호조와 자동차보험 회복세로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17.6% 증가하고 보험영업비용은 지급보험금, 장기저축성보험환급금 등의 감소로 13.7% 증가하여 보험영업수지는 2,412억원의 흑자를 실현함.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이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했으나 관련 비용이 26.2% 급감한 데 힘입어 8,992억원의 흑자를 나타냄.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263,661	356,806	95,170	195,656	299,884	408,165	111,904
	투자영업	31,161	41,704	11,829	22,448	32,202	42,559	11,239
	기 타	11,934	14,693	2,339	4,671	17,296	21,181	4,901
	소 계	306,756	413,204	109,338	222,776	349,382	471,905	128,044
총 비 용	보험영업	266,477	365,299	96,455	199,392	305,177	417,530	109,492
	투자영업	11,789	15,398	3,043	6,093	8,457	11,146	2,247
	기 타	12,079	14,740	2,806	5,357	18,420	22,515	4,719
	소 계	290,345	395,436	102,304	210,842	332,055	451,192	116,458
수 지 차	보험영업	-2,816	-8,492	-1,284	-3,736	-5,293	-9,365	2,412
	투자영업	19,372	26,307	8,786	16,355	23,745	31,413	8,992
	기 타	-145	-46	-467	-686	-1,124	-1,335	182
	소 계	16,411	17,768	7,035	11,934	17,327	20,713	11,586
법 인 세		4,325	4,661	1,645	2,877	4,294	5,299	2,717
당기순이익		12,086	13,107	5,390	9,056	13,033	15,414	8,870

주 :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금을 제외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4%p 하락한 72.8%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에도 불구하고 해상·화재·특종보험의 손해액 감소와 보증보험의 대규모 지급보험금 환입²⁾ 등의 영향으로 일반보험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전체 손해율은 다소 하락함.

- 특히,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발생손해액 증가율(29.9%) 이 경과보험료의 증가율(25.9%)을 상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p 상승한 81.3%를 나타냄.

□ FY2010 1/4분기 사업비율은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증가세 둔화와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의 하락으로 전년동기대비 2.9%p 낮아진 21.9%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은 업계의 사업비 관리 노력 등으로 사업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동차보험의 성장세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도와 같은 30.3%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30%를 초과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의 사업비율은 저축성보험 중심의 신계약 유입에 따른 수수료 등 관련 비용 증가로 사업비 규모가 1.7% 늘어났으나 보유보험료도 두 자릿수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2%p 하락한 17.6%를 시현함.

○ 일반손해보험의 사업비율도 화재보험과 특종보험의 사업비 축소로 인해 0.2% 소폭 하락하여 25.6%를 나타냄.

□ FY2010 1/4분기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전년동기대비 하락함으로써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인 합산비율도 94.6%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하락함.

○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 개선으로 전체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1.4%p 낮아지고 사업비율도 전년동기대비 2.9%p 하락하여 합산비율도 94.6%를 나타내면서 전년동기대비 4.3%p 하락함.

2) 보증보험의 경우에 작년에 지급된 보험금 약 2천억원이 이번 분기에 환입되어 마이너스 손해율을 나타냈으며 보증보험을 제외할 경우 전체 손해율은 76.8로 나타남.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손해율	화재보험	37.9	39.7	32.4	37.1	54.3	39.9	32.0	21.2
	해상보험	301.8	127.1	82.4	89.0	85.4	81.9	77.4	36.1
	보증보험	43.6	48.9	66.1	47.9	31.5	88.0	58.0	-98.2
	특종보험	68.3	64.7	61.4	67.2	63.0	57.4	62.4	52.8
	해외원보험	50.5	45.8	39.2	29.0	29.0	35.2	32.7	42.6
	해외수재보험	93.7	91.0	57.9	60.0	60.2	59.3	59.3	71.8
	자동차보험	69.7	69.7	71.0	74.1	79.0	78.6	75.7	75.7
	장기손보*	78.0	79.4	78.9	78.5	80.1	81.5	79.8	81.3
	전 체	76.4	74.8	74.2	74.9	76.7	78.2	76.0	72.8
사업비율		28.4	25.4	24.8	25.2	22.5	22.8	23.8	21.9
합산비율		104.9	100.3	98.9	100.1	99.1	100.9	99.8	94.6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자산운용

□ FY2010 1/4분기 자산운용 구성비는 유가증권 53.3%, 대출채권 18.0%, 부동산 6.0%, 현금과예금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³⁾.

○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기보유증권은 4.2%, 단기매매증권은 3.1%, 투자주식은 1.3%의 순으로 나타남.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투자의익률 하락에 의해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한 5.2%를 기록함.

○ 유가증권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투자의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단기매매증권의 투자의익률도 2.9%로 전년동기대비 6.9%p 감소함.

3) 전체 일반계정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준이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만을 포함시켰고 비운용자산 비중은 논의에서 제외함.

-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0%p 낮아진 6.2%를 기록했으며 부동산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0.8%p 높아진 1.3%의 이익률을 시현함.
- 한편, 현금과 예금 이익률은 재보험회사들이 보유한 외화정기예금이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익 발생으로 이익이 급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5%p 증가한 5.0%를 나타냄.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금과예금	5.3	1.5	5.0	1.5	5.5	1.4	5.1	1.6	5.3	5.0
유가증권	52.8	6.7	52.3	6.2	52.1	5.7	52.9	5.6	53.3	5.4
○ 단기매매증권	3.1	9.8	2.2	9.4	2.3	7.9	3.0	6.5	3.1	2.9
- 주식	0.1	104.0	0.2	87.5	0.2	54.2	0.2	38.5	0.3	2.0
- 채권 등	1.2	6.8	1.0	7.6	0.3	9.3	0.4	7.0	0.4	7.7
- 수익증권	1.8	7.8	1.0	6.2	1.8	5.1	2.4	4.9	2.4	2.1
○ 매도가능증권	44.7	6.6	45.1	6.0	44.5	5.6	44.6	5.4	44.8	5.4
- 주식	4.7	19.2	5.2	14.2	4.9	11.0	4.9	9.7	4.3	6.5
- 채권 등	36.3	5.7	35.7	5.6	28.8	5.5	28.5	5.6	29.0	5.2
- 수익증권	3.7	3.6	4.2	3.0	10.9	3.2	11.2	3.1	11.5	5.5
○ 만기보유증권	3.7	4.9	3.8	6.0	3.9	5.1	4.0	6.1	4.2	5.7
- 채권 등	3.7	5.7	3.8	6.3	3.7	5.3	3.8	6.4	3.9	5.6
- 수익증권	0.0	-5.8	0.0	2.8	0.2	1.6	0.2	2.6	0.3	7.3
○ 투자주식	1.2	7.2	1.3	9.3	1.4	7.5	1.3	5.5	1.3	7.1
대출채권	18.0	7.2	18.3	6.4	18.6	6.3	18.5	6.4	18.0	6.2
부동산	6.7	0.5	6.5	0.7	6.3	0.8	6.2	0.9	6.0	1.3
운용자산계	82.8	6.0	82.1	5.5	82.6	5.1	82.7	5.1	82.6	5.2
비운용자산	17.2	0.0	17.9	0.0	17.4	0.0	17.3	0.0	17.4	0.0
일반계정자산계	100.0	4.9	100.0	4.5	100.0	4.2	100.0	4.2	100.0	4.3
일반계정자산	96.4	4.9	96.6	4.5	96.4	4.2	96.2	4.2	96.3	4.3
특별계정자산	3.6	-	3.4	-	3.6	-	3.8	-	3.7	-
총 자산	100.0	4.7	100.0	4.3	100.0	4.0	100.0	4.0	100.0	4.1
총 자산 규모	766,082		794,726		829,558		861,222		902,218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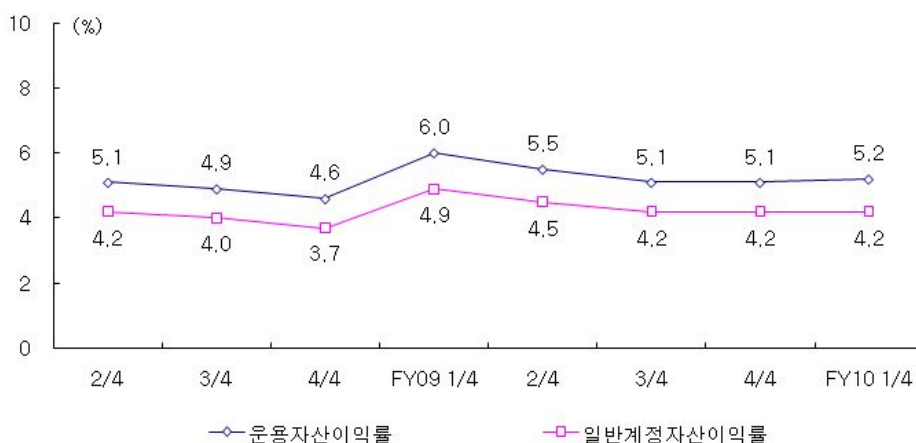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10 1/4분기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의 투자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7%p 감소한 4.2%로 나타남.

○ 운용자산의 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함에 따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도 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운용자산과 일반계정자산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10 1/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에서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대리점과 회사직급, 중개인 채널 등은 축소됨.

○ 설계사 채널 비중은 주력 상품인 장기성손해보험의 견조한 성장세로 전년동기 대비 0.5%p 증가한 33.2%를 보였으며, 방카슈랑스 채널도 저축형 및 개인연금 보험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1.3%p 증가한 7.0%를 나타냄.

○ 반면, 대리점과 회사직급 채널은 주요 판매상품인 일반손해보험의 판매 비중 축소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1.0%p 감소한 44.9%, 14.0%의 점유율을 기록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회사직급	12,692	52,380	15,043	12,057	21,568	16,057	64,725	16,892	
	13.4	14.0	15.0	11.5	18.0	14.2	14.8	14.0	
설계사	31,710	124,660	32,752	36,416	37,202	39,523	145,894	40,166	
	33.5	33.2	32.7	34.6	31.0	35.0	33.3	33.2	
대 리 점	44,283	173,521	45,403	49,505	53,814	48,862	197,584	54,290	
	46.8	46.3	45.4	47.1	44.8	43.2	45.1	44.9	
중개사	623	3,098	829	909	978	656	3,372	905	
	0.7	0.8	0.8	0.9	0.8	0.6	0.8	0.7	
방카슈랑스	5,085	19,993	5,721	5,997	5,974	7,280	24,971	8,404	
	5.4	5.3	5.7	5.7	5.0	6.4	5.7	7.0	
공동인수	281	1,301	290	228	580	680	1,777	172	
	0.3	0.3	0.3	0.2	0.5	0.6	0.4	0.1	
전 체	94,674	374,954	100,038	105,111	120,115	113,058	438,323	120,82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10 1/4분기 말 손해보험의 모집조직은 임직원 수 및 설계사 수가 전분기대비 증가한 데 비해 대리점 수는 감소세를 지속함.

○ 임직원 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인원 증가로 전분기대비 121명 늘어난 2만 8,917명으로 나타남.

○ 전체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8,031 증가한 17만 2,234명으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17만 명을 상회함.

- 최근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영업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설계사 모집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9,851 증가한 9만 2,871명을 기록한 반면, 교차설계사 수는 7만 9,363명으로 교차설계사 집계를 시작한 FY2008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

- 대리점 수는 개인대리점 및 법인대리점의 감소로 전분기대비 910개 줄어든 4만 4,139개로 집계됨.
- 개인대리점 수는 작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리점의 대형화 경향 및 독립법인대리점(GA)의 활성화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법인대리점 수도 전분기대비 204개가 감소하며 증가세가 주춤해짐.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3/4	4/4	1/4	2/4	3/4	4/4	1/4
임직원	28,425	28,250	28,271	28,317	28,563	28,796	28,917
설계사	145,214	155,809	161,615	164,383	167,539	164,203	172,234
- 전속	-	82,201*	87,963	84,487	86,856	83,020	92,871
- 교차	-	73,608*	73,652	79,896	80,683	81,183	79,363
대리점	44,859	45,998	46,607	46,238	46,070	45,049	44,139
- 개인	35,424	35,675	35,513	34,674	34,359	32,976	32,270
- 법인	9,435	10,323	11,094	11,564	11,711	12,073	11,869

주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10년 2/4분기(4~6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의 연간화 보험료²⁾는 전년동기대비 7% 증가하며 1/4분기에 이어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2009년 2/4분기 20% 감소에 비해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규모상으로는 여전히 2008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음.
- 2010년 상반기 연간화 보험료 증가를 기록한 보험회사는 상위 20개사 중 16개사를 포함하여 전체의 65%로 나타났으며,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보험회사 또한 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종목별로는 유니버설보험이 가장 높은 11%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 또한 2009년 2/4분기 27% 감소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유니버설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65%에서 신규 보험료가 증가하였으며, 상위 20개사 중 보험료가 증가한 15개사의 평균 성장률은 60%를 상회함.
 - 유니버설보험의 계약건수는 22%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고성장을 이어감.
- 종신보험의 경우 1/4분기 15%의 성장률을 넘어서는 23%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금융위기 시에도 충격이 적었던 종신보험은 보험 종목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연간화 보험료는 2% 증가하였으나 1/4분기 10% 증가에 비해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정기보험 또한 11% 감소하며 감소 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신규 보험료 기준 종목별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신보험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정기보험의 비중 감소세가 두드러짐.

1)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2) 연간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 보험료×10%+정기납 보험료

해외보험시장 동향

- 종목별 연간화 보험료 점유율은 유니버설보험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금융위기 이전 44%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종신보험 비중은 2009년 말 24%에서 3%p 증가한 27%로 확대됨.
- 반면 연간화 보험료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정기보험의 비중은 2009년 말 26%에서 3%p 감소한 23%로 축소됨.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간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유니버설	-8	43	-33	-27	-14	-3	-20	41	17	11
기타변액	-33	0	-62	-79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17	15	-61	-49	-52	-36	-49	9	10	2
정기	-1	22	-4	-3	0	1	-1	26	-4	-11
종신	2	20	-5	-3	12	12	4	24	15	23
계	-7	100	-26	-20	-11	-5	-16	100	10	7
연간화 보험료	10,856		2,011	2,256	2,311	2,662	9,240		2,216	2408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2010. 9.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건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천 건)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유니버설	-1	15	-7	8	5	15	5	15	21	22
기타변액	-40	0	-23	-99	0	0	0	0	0	0
변액유니버설	-21	3	-51	-50	-49	-42	-48	2	-15	-7
정기	-4	46	-5	-4	-1	-1	-3	46	-5	-11
종신	-2	36	-5	-4	7	6	0	37	1	8
계	-4	100	-8	-4	1	3	-2	100	0	1
전체 건수	5,789		1,559	1,543	1,571	1,572	6,247		1,565	1,553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2010. 9.

나. 연금보험

- 2010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 보험료는 7% 감소한 570억 달러로 축소 흐름을 지속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2008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
-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 보험료는 전분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7년 2/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전분기대비 성장률임.
 - 변액연금 신규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면서 규모 기준으로 2008년 3/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2/4분기 49%에서 55%로 확대됨.
 - 정액연금은 전년동기대비 26.4% 감소하였으나 전분기대비로는 두 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13%의 증가세로 반전됨.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 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155.9	31.0	32.1	31.9	33.0	128	32.4	35.5
	성장률	-15.4	-26.4	-23.9	-15.6	-2.4	-17.9	4.5	10.6
	비 중	58.6	45.8	52.4	57.5	61.0	53.6	63.0	62.3
정액연금	보험료	110.1	36.7	29.2	23.6	21.1	110.6	19.0	21.5
	성장률	51.2	72.3	13.2	-16.3	-39.4	0.5	-48.2	-26.4
	비 중	41.4	54.2	47.6	42.5	39.0	46.4	37.0	37.7
합 계	보험료	266.0	67.7	61.3	55.5	54.1	238.6	51.4	57.0
	성장률	3.5	6.8	-9.9	-15.9	-21.1	-10.3	-24.1	-7.0
	비 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2010. 9.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설계사와 독립중개인이 각각 21%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설계사, 은행, 증권중개인, 직접판매 등이 각각 18%, 16%, 12%, 8%로 나타남.

- 변액연금에서는 독립중개인의 비중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액연금에서는 독립설계사의 비중이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1/4	2/4
은행	19	20	19	19	15	16
전속설계사	21	21	20	21	20	21
직접판매	9	8	8	8	9	8
독립중개인	18	19	19	19	20	21
독립설계사	17	17	17	17	19	18
증권중개인	13	12	13	13	12	12
기 타	3	3	4	4	4	4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2010. 9.

다. 장기간병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 2010년 2/4분기 미국 장기간병보험의 신규 보험료는 1/4분기에 이어 13.2%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으나, 이는 2009년 2/4분기 27.9%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 보험료 규모는 2008년 2/4분기의 81.6% 수준에 불과함.
- 상위 5개사의 신규 보험료 성장률은 26%로 나타났으며 상위 10개사 중 7개사가 성장을 기록한 반면, 나머지 보험사들의 신규 보험료는 평균 5% 감소하는 등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실적을 나타냄.

<표 5>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 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계 약 건 수	적 격	건 수	273,651	48,070	51,628	52,391	58,891	210,980	52,885	57,601
		증가율	-5.8	-29.9	-27.6	-26.5	-5.8	-22.9	10.0	11.6
		구성비	99.0	99.2	99.0	99.0	99.3	99.1	99.2	99.3
	비적격	건 수	2,849	368	527	513	412	1,820	412	433
		증가율	-24.2	-48.5	-34.5	-42.4	-6.6	-36.1	12.0	-17.8
		구성비	1.0	0.8	1.0	1.0	0.7	0.9	0.8	0.7
	전 체	건 수	276,500	48,438	5,2155	52,904	59,303	212,800	53,297	58,034
		증가율	-6.0	-30.1	-27.7	-26.7	-5.8	-23.0	10.0	1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적 격	보험료	599,466	102,550	11,0624	116,529	131,352	461,055	115,327	125,498
		성장률	-4.5	-32.7	-27.8	-24.9	-5.1	-23.1	12.5	13.4
		구성비	99.3	99.5	99.2	99.3	99.4	99.4	99.5	99.5
	비적격	보험료	4,519	557	842	825	782	3,006	615	638
		성장률	-28.1	-50.5	-34.8	-41.5	13.2	-33.5	10.4	-24.2
		구성비	0.7	0.5	0.8	0.7	0.6	0.6	0.5	0.5
	전 체	보험료	603,985	103,108	11,1465	117,354	132,135	464,062	115,942	126,136
		성장률	-4.7	-32.9	-27.9	-24.8	-5.1	-23.2	12.4	1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010. 9.

□ 2010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 보험료는 0.6%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모습이며 특히 Guaranteed Renewable³⁾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Non-cancellable⁴⁾은 9.2% 감소하면서 신규 보험료 감소 흐름을 이어갔으나, 4분기 연속 신규 보험료가 감소했던 Guaranteed Renewable은 14.1% 성장함.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4)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 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 수	335,488	105,053	72,326	57,920	80,328	315,627	105,731	74,268
		증가율	3.6	-4.1	5.1	-25.0	0.6	-5.9	0.6	2.7
		구성비	65.9	75.8	66.6	58.5	66.7	67.6	77.5	69.2
	Non-cancellable	건 수	174,151	33,452	36,295	41,160	40,073	150,980	30,775	33,110
		증가율	-1.2	-19.9	-16.5	-10.6	-6.5	-13.3	-8.0	-8.8
		구성비	34.2	24.2	33.4	41.5	33.3	32.4	22.5	30.8
	전체	건 수	509,639	138,505	108,621	99,080	120,401	466,607	136,506	107,378
		증가율	198	-8.5	-3.3	-19.6	-1.9	-8.4	-1.4	-1.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211,186	61,198	42,849	45,356	49,365	198,768	60,396	48,896
		성장률	5.4	2.5	-13.7	-8.4	-5.7	-5.9	-1.3	14.1
		구성비	38.7	47.6	36.8	36.1	38.0	39.7	49.2	42.2
	Non-cancellable	보험료	334,386	67,345	73,739	80,199	80,584	301,867	62,468	66,959
		성장률	1.9	-13.0	-13.7	-6.0	-6.6	-9.7	-7.2	-9.2
		구성비	61.3	52.4	63.2	63.9	62.0	60.3	50.8	57.8
	전체	보험료	545,572	128,544	116,588	125,555	129,949	500,635	122,864	115,855
		성장률	3.2	-6.3	-13.7	-6.9	-6.2	-8.2	-4.4	-0.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2010. 9.

라. 손해보험

- 미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076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7년 1/4분기 0.8% 증가한 이후 처음 기록한 플러스 성장임.
 - 모기지 및 금융보증 보험회사를 제외한 원수보험료는 1.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종목별 성장세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계보험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자동차보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5%, 5.2% 증가하였으나 기업보험의 소비자물가지수는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보험의 보험료는 상승한 반면 기업보험은 여전히 보험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 지급보험금은 손해사정비용을 제외한 직접비용 중 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이 2009년 2/4분기 52억 달러에서 2010년 2/4분기 56억 달러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한 733억 달러를 시현함.
 - 원수보험료에 비해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보험영업수익은 3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합산비율은 2.8%p 상승한 102.3%로 나타남.
- 투자영업이익은 0.9% 증가한 120억 달러로 나타났으며, 기타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억 달러 감소한 2억 달러로 나타남.
 - 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2/4분기 32억 달러 적자에서 12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실현자본이익을 포함한 투자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523.0% 증가한 132억 달러로 나타남.
 - 미실현자본이익은 2009년 2/4분기 159억 달러 흑자에서 115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실현자본이익과 미실현자본이익을 합산한 총자본이익은 103억 달러 적자를 나타냄.
-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세후손익)은 6.3% 증가한 76억 달러를 나타냈으나 자기자본이익률은 0.7%p 하락한 5.7%를 시현함.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였고 자기자본이익률은 2.0%p 하락한 27.3%로 나타났으나 이들을 제외한 손해보험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은 8.1% 증가하였고 자기자본이익률은 0.7%p 하락한 6.4%로 나타남.

<표 7>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 액	106,383	106,335	108,366	97,783	418,867	105,053	107,571
	성장률	-3.8	-4.8	-5.0	-0.9	-3.7	-1.3	1.3
지급보험금	금 액	78,722	75,277	77,653	74,959	306,611	74,532	77,385
	성장률	0.9	-10.6	-19.4	-6.8	-9.6	-5.3	2.9
보험영업이익	금 액	-2,216	726	-763	1,170	-1,083	-1,294	-3,027
	성장률	1152.0	-115.4	-94.5	-403.9	-94.4	-41.6	-503.1
계약자 배당금	금 액	329	344	302	1,012	1,987	512	256
	성장률	-14.5	0.9	7.1	6.8	1.6	55.6	-25.4
보험영업이익	금 액	-2,545	382	-1,065	158	-3,070	-1,806	-3,283
	성장률	353.7	-107.6	-92.5	-111.9	-85.5	-29.0	-904.7
세전 영업이익	금 액	11,731	11,854	13,812	10,968	44,711	10,197	8,915
	성장률	-7.3	-9.2	286.7	-0.7	50.1	6.9	-30.5
투자영업이익	금 액	9,541	12,730	11,472	11,125	46,990	11,591	11,985
	성장률	-22.7	59.5	-831.6	-15.3	-8.0	-1.2	0.9
실현자본수지	금 액	-7,987	-3,185	12,280	1,664	-7,975	981	1248
	성장률	1592.2	386.3	0.5	-116.5	-59.8	-112.3	-139.4
투자영업수지	금 액	3,744	8,670	1,533	12,789	39,015	12,573	13,233
	성장률	-69.3	-30.1	-117.7	319.0	25.0	235.8	52.0
세후손익	금 액	-1,309	7,089	10,407	12,147	28,334	8,856	7,638
	성장률	-115.9	28.1	-205.5	-820.0	1179.2	-776.5	6.3
자기자본(surplus)	금 액	437,097	462,995	490,800	511,464	1,902,356	540,700	530,529
	성장률	-15.2	-8.8	2.6	12.3	-2.8	23.7	14.6
지급준비금	금 액	554,413	553,396	552,414	552,908	2,213,131	552,863	556,068
	성장률	3.2	1.2	-2.0	-0.5	0.4	-0.3	0.7
합산비율		102.2	99.5	100.5	101.9	101.0	101.1	102.3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세전영업이익=보험영업이익+투자영업이익+기타이익

자료 : III, Property/Casualty Insurers Post Strong Results for First-Half 2010, 2010. 9.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입수할 수 있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¹⁾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10 1/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단체보험의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큰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보험의 성장 침체로 전년동기대비 6.4% 증가한 18조 5,073억엔에 그침.
-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체 생명보험의 약 2/3를 차지하는 사망보험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으나, 생사혼합보험의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증가에 머무름.
 - 사망보험은 방카슈랑스 채널을 중심으로 노후자금 운용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큰 중장년층의 가입 증가에 힘입어 주력 종목인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전년동기대비 4.0%, 51.8% 증가했으나, 생사혼합보험은 양로보험과 변액보험의 실적 부진으로 성장 정체(1.0% 성장)를 보임.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그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정액연금보험의 판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변액연금보험의 신규 수요도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3% 감소함.
 -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운용상의 문제로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들이 잇달아 판매를 중단하고, 주식시장 침체로 수익률 부진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가입을 기피하면서 신규계약액이 전년동기대비 68.7% 급감함.
-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단체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내수경기 회복세로 기업 및 단체들의 신규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9% 성장함.
 - 특히, 단체보험의 주력 상품인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의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48.6% 증가해 단체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개 인 성	개 인	금 액	144,789	160,092	162,902	161,293	629,077	156,984
		성장률	6.0	7.2	11.9	19.4	11.0	8.4
		구성비	83.2	84.0	87.3	84.6	84.8	84.8
	- 사 망	금 액	114,906	128,317	131,594	129,484	504,301	126,766
		성장률	1.5	4.6	8.3	15.6	7.5	10.3
		구성비	66.1	67.3	70.5	67.9	68.0	68.5
	- 생사혼합	금 액	28,635	30,530	29,924	30,545	119,634	28,920
		성장률	30.2	20.8	32.1	42.6	31.0	1.0
		구성비	16.5	16.0	16.0	16.0	16.1	15.6
	- 생 존	금 액	1,249	1,245	1,384	1,264	5,142	1,298
		성장률	-13.0	-12.1	-5.3	-28.1	-15.3	3.9
		구성비	0.7	0.7	0.7	0.7	0.7	0.7
	개인연금	금 액	20,329	21,377	19,642	21,916	83,265	17,627
		성장률	3.3	-5.6	31.6	29.7	12.3	-13.3
		구성비	11.7	11.2	10.5	11.5	11.2	9.5
단 체 성	단 체	금 액	8,765	9,218	3,964	7,322	29,269	10,422
		성장률	-55.9	37.3	-50.0	-28.3	-34.5	18.9
		구성비	5.0	4.8	2.1	3.8	3.9	5.6
	단체연금	금 액	41	6	21	11	79	18
		성장률	303.0	98.2	140.9	-34.3	104.0	-56.9
		구성비	-	-	-	-	-	-
	기 타*	금 액	7	6	20	35	67	22
		성장률	52.4	45.1	647.4	987.3	379.3	227.9
		구성비	-	-	-	-	-	-
합 계	금 액	173,931	190,699	186,549	190,578	741,757	185,073	
	성장률	-1.3	6.7	10.7	17.4	8.2	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0 1/4분기 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의 보유액 축소로 전분기대비 1.0% 감소한 315조 994억엔을 기록함.

- 유가증권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채 증가율이 전분기대비 0.8%에 그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식 및 외국증권의 보유액이 각각 8.6%, 0.8% 감소되면서 전체 유가증권 규모는 0.7% 소폭 축소됨.
- 대출금 규모도 일반대출을 중심으로 보유액 가치가 하락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냄.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38,250	-23.9	47,499	24.2	38,597	-18.7	49,951	29.4	33,073	-33.8
단기자금	27,602	-0.7	25,502	-7.6	25,211	-1.1	21,393	-15.1	20,428	-4.5
매입금전채권	32,425	-3.7	32,035	-1.2	31,726	-1.0	31,970	0.8	32,972	3.1
금전신탁	27,085	4.6	27,164	0.3	24,131	-11.2	22,051	-8.6	22,462	1.9
유가증권	2,358,325	2.4	2,383,830	1.1	2,406,334	0.9	2,441,501	1.5	2,423,965	-0.7
- 국 채	1,234,172	-0.4	1,238,690	0.4	1,250,472	1.0	1,279,888	2.4	1,290,118	0.8
- 지방채	101,358	3.3	103,181	1.8	106,731	3.4	109,679	2.8	111,249	1.4
- 사 채	274,146	-0.2	273,613	-0.2	271,512	-0.8	264,538	-2.6	265,474	0.4
- 주 식	182,101	16.5	184,445	1.3	180,283	-2.3	186,618	3.5	170,497	-8.6
- 외화증권	414,305	3.5	423,646	2.3	431,720	1.9	429,571	-0.5	425,960	-0.8
대출금	505,579	-1.1	491,933	-2.7	486,072	-1.2	468,953	-3.5	462,290	-1.4
유형 고정자산	66,794	1.1	67,392	0.9	66,510	-1.3	67,205	1.0	66,301	-1.3
운용자산	3,066,225	1.2	3,084,342	0.6	3,085,527	0.0	3,113,410	0.9	3,071,987	-1.3
총자산	3,146,548	0.9	3,156,769	0.3	3,155,902	0.0	3,183,802	0.9	3,150,994	-1.0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자동차 관련 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2조 437억엔을 시현함.

○ 상해보험과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7.7%, 0.7% 증가했으며, 해상보험도 적하보험의 매출 호조로 7.1% 성장함.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3,398	3,292	3,895	2,540	13,982	3,316
	성장률	-0.5	-1.8	4.1	-3.4	-0.3	-2.4
	구성비	16.8	17.4	19.7	17.9	18.0	16.2
해 상	보험료	479	447	448	484	1,858	514
	성장률	-25.6	-29.9	-19.4	5.8	-19.0	7.1
	구성비	2.4	2.4	2.3	2.6	2.4	2.5
운 송	보험료	171	149	156	150	626	166
	성장률	-10.6	-10.3	-10.5	-6.4	-9.5	-2.6
	구성비	0.8	0.8	0.8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772	8,314	8,615	8,434	34,135	8,805
	성장률	-1.8	-1.1	-0.8	-0.1	-1.0	0.4
	구성비	43.5	43.9	43.6	44.5	43.9	43.1
상 해	보험료	2,733	2,597	2,577	2,349	10,256	2,943
	성장률	-8.6	-18.6	-1.2	1.6	-7.6	7.7
	구성비	13.5	13.7	13.0	12.4	13.2	14.4
특 종	보험료	2,512	2,180	2,075	2,156	8,922	2,529
	성장률	6.5	2.0	4.7	4.8	4.5	0.7
	구성비	12.5	11.5	10.5	11.4	11.5	12.4
자배책	보험료	2,108	1,971	2,006	1,974	8,058	2,164
	성장률	-27.3	0.5	3.7	4.4	-7.2	2.7
	구성비	10.4	10.4	10.1	10.4	10.4	10.6
합 계	보험료	20,173	18,950	19,771	18,943	77,837	20,437
	성장률	-5.9	-4.6	0.5	0.6	-2.5	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 업계의 보험요율 인상과 에코카 보조금 지급 등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지원책 효과에 따른 신차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으며, 책임보험 성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도 2.7% 성장함.
- 반면, 화재보험과 운송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2.6% 감소해 전분기에 이어 부진이 이어짐.

〈지급보험금 현황〉

- FY2010 1/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 규모는 운송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종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조 590억엔을 나타냄.
- 화재보험, 해상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2%, 12.6%, 0.9% 증가함.
- 자동차보험 부문의 경우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한 반면, 전분기에 증가했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0.2% 소폭 감소함.
- 특종보험은 주요 종목인 보증보험, 노동자재해보험, 동산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8.7%, 1.3%, 5.0% 감소하면서 14.7% 줄어듦.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금	822	863	1,073	988	3,746	915
	증가율	-5.6	-10.4	-0.4	-7.6	-5.9	11.2
	구성비	7.8	7.9	9.7	8.9	8.6	8.6
해 상	보험금	243	279	332	258	1,112	274
	증가율	1.2	4.1	6.2	-20.4	-2.9	12.6
	구성비	2.3	2.6	3.0	2.3	2.6	2.6
운 송	보험금	64	64	62	64	254	63
	증가율	-3.5	-22.3	-16.8	-5.8	-12.7	-2.1
	구성비	0.6	0.6	0.6	0.6	0.6	0.6
자동차	보험금	5,196	5,263	5,614	5,688	21,761	5,372
	증가율	-0.2	0.0	0.7	3.1	0.9	3.4
	구성비	49.6	48.5	50.7	51.1	50.0	50.7
상 해	보험금	861	861	902	884	3,508	869
	증가율	3.0	0.6	-0.6	6.4	2.3	0.9
	구성비	8.2	7.9	8.2	7.9	8.1	8.2
특 종	보험금	1,321	1,571	1,126	1,182	5,199	1,126
	증가율	18.2	20.1	-6.2	-29.6	-2.0	-14.7
	구성비	12.6	14.5	10.2	10.6	11.9	10.6
자배책	보험금	1,976	1,962	1,955	2,062	7,955	1,971
	증가율	-3.3	-2.8	-2.5	2.6	-1.5	-0.2
	구성비	18.8	18.1	17.7	18.5	18.3	18.6
합 계	보험금	10,483	10,862	11,064	11,126	49,536	10,590
	증가율	1.0	1.0	-0.8	-3.2	-0.6	1.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0 1/4분기 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과 대출금의 보유액 감소로 전분기대비 3.5% 감소한 30조 3,928억엔을 시현함.

○ 유가증권은 국채 보유액이 전분기대비 1.2% 증가했으나, 주식 및 외국증권 가치가 각각 14.3%, 2.3% 하락하고 회사채 규모도 2.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외보험시장 동향

5.7% 감소함.

- 대출금 규모는 일반대출 및 약관대출 보유액 모두 하락해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함.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9								FY2010	
		1/4		2/4		3/4		4/4		1/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7,365	-17.2	8,297	12.7	7,324	-11.7	9,335	27.5	7,563	-19.0
단기자금		3,282	-43.2	3,847	17.2	3,632	-5.6	3,343	-7.9	3,677	10.0
현선거래자금		4,354	4.9	2,569	-41.0	2,810	9.4	2,285	-18.7	1,820	-20.4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	-	-	-	500	-	-	-	10	-
매입금전채권		8,861	118.9	9,163	3.4	12,133	32.4	12,952	6.8	14,511	12.0
금전신탁		1,053	10.5	1,110	5.4	1,137	2.4	1,130	-0.6	1,085	-4.1
유가증권	국 채	47,378	7.8	49,307	4.1	48,392	-1.9	49,560	2.4	50,150	1.2
	지방채	6,305	-3.7	6,293	-0.2	6,286	-0.1	6,104	-2.9	5,740	-6.0
	회사채	38,984	-0.4	39,109	0.3	38,660	-1.1	38,093	-1.5	37,242	-2.2
	주 식	72,367	17.7	70,886	-2.0	71,539	0.9	74,527	4.2	63,857	-14.3
	외화증권	50,184	3.1	50,143	-0.1	50,795	1.3	49,639	-2.3	48,508	-2.3
	기타증권	4,861	-0.3	4,510	-7.2	4,516	0.1	4,398	-2.6	4,141	-5.8
	소 계	220,080	7.5	220,248	0.1	220,188	0.0	222,321	1.0	209,637	-5.7
대출금	약관대출	684	-0.6	678	-0.9	662	-2.4	650	-1.7	642	-1.2
	일반대출	24,500	-1.3	24,028	-1.9	23,819	-0.9	23,088	-3.1	22,809	-1.2
	소 계	25,184	-1.3	24,707	-1.9	24,481	-0.9	23,738	-3.0	23,452	-1.2
부동산		11,120	-0.5	11,212	0.8	11,042	-1.5	10,984	-0.5	10,965	-0.2
운용자산		281,299	6.1	281,154	-0.1	283,246	0.7	286,090	1.0	272,720	-4.7
기타자산		29,285	-14.5	28,427	-2.9	28,466	0.1	28,865	1.4	31,207	8.1
총자산		310,585	3.7	309,582	-0.3	311,713	0.7	314,956	1.0	303,928	-3.5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總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団体保險), 단체연금보험(団体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医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険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険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¹⁾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10년 2/4분기(4~6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해 전년동기대비 27.6% 증가한 3,457억 위안을 시현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이 차량 판매 증가에 따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0% 증가한 1,023억 위안을 기록함.
 - 2006년 2/4분기 이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분기 실적으로는 처음으로 천 억 위안을 상회함.
 - 그러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계가 보험료 규모가 큰 투자형 일시납 판매를 지양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보장형 분할납 상품 비중을 크게 높이면서 성장 폭은 감소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8.1% 증가했으나,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성장 둔화로 전분기에 비해 성장 폭은 다소 감소함.
 - 생명보험은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저축성 일시납 상품의 판매 호조로 두 자릿수 성장을 시현했으나, 상반기 주식시장 침체 및 정부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 조치로 주력 상품인 만능형(유니버설)·배당형 보험 등의 투자형 상품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2분기 연속 30%대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던 건강보험의 수입보험료 규모도 16.6%의 증가에 머무름.
 - 반면, 상해보험은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교통보험, 항공기보험, 여행자보험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3.7% 증가율을 기록하며 성장세가 확대됨.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료	719	793	722	642	2,876	995	1,023
	성장률	12.0	20.6	33.4	29.3	23.1	38.4	29.0
인보험	보험료	2,558	1,916	1,872	1,915	8,261	3,547	2,434
	성장률	9.4	-3.3	5.1	42.1	10.9	38.7	27.0
- 생명보험	보험료	2,359	1,701	1,663	1,734	7,457	3,292	2,179
	성장률	10.7	-1.6	4.2	44.2	12.0	39.5	28.1
- 건강보험	보험료	140	154	143	136	574	185	180
	성장률	-7.2	-22.6	8.4	32.2	-2.0	31.5	16.6
- 상해보험	보험료	59	61	66	45	230	70	75
	성장률	5.6	15.0	25.6	4.8	13.0	20.0	23.7
합 계	보험료	3,277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성장률	10.0	2.7	11.7	38.6	13.8	38.6	27.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10년 2/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금 지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보험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5.6% 줄어든 74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주요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함.

○ 반면, 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에서 전년동기대비 24.1% 감소하며 전체적으로는 18.0% 줄어듦.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손해보험	보험금	351	363	402	459	1,576	364	395
	증가율	21.7	7.7	13.1	5.1	11.1	3.5	8.9
인보험	보험금	472	421	332	324	1,550	368	346
	증가율	-15.0	16.2	1.3	5.5	-0.2	-22.0	-18.0
- 생명보험	보험금	403	355	258	253	1,269	290	269
	증가율	-20.1	16.4	-3.1	5.5	-3.5	-28.1	-24.1
- 건강보험	보험금	54	52	56	55	217	62	60
	증가율	56.9	12.8	26.0	9.2	23.8	13.8	16.8
- 상해보험	보험금	15	15	17	16	64	17	16
	증가율	-9.2	24.3	4.6	-4.9	2.2	11.7	5.5
합 계	보험금	824	784	734	783	3,125	732	741
	증가율	-2.4	12.1	7.5	5.3	5.2	-11.1	-5.6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10년 2/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 규모는 3,45억 위안을 기록해 전분기 보다 낮은 27.6%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사업비는 27.0% 늘어난 357억 위안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유입으로 관련 사업비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0년 2/4분기 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은행 예치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5.4% 증가한 4조 5,235억 위안에 달함.

○ 중국중시가 급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환경 악화로 대기자금 성격의 은행 예치금 보유액이 전분기대비 9.5%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투자금 규모는 2009년 1/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인 3.6%의 증가에 그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3,277	2,709	2,594	2,557	11,137	4,541	3,457
	증가율	10.0	2.7	11.7	38.6	13.8	38.6	27.6
사업비	금 액	262	281	305	386	1,234	320	357
	증가율	11.5	9.2	17.4	18.0	14.3	22.1	27.0
예치금	금 액	10,005	10,445	10,058	10,520	10,520	11,595	12,700
	증가율	23.7	4.4	-3.7	4.6	30.1	10.2	9.5
투자금	금 액	22,178	23,280	24,232	26,897	26,897	27,943	28,954
	증가율	-1.3	5.0	4.1	11.0	19.7	3.9	3.6
총자산	금 액	35,435	37,072	37,880	40,635	40,635	42,929	45,235
	증가율	6.0	4.6	2.2	7.3	21.6	5.6	5.4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10년 2/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광둥성이 인보험 부문의 고 성장에 힘입어 강소성을 제치고 1위 위치를 탈환함.

- 광둥성은 인보험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29.5% 고성장한데 힘입어 8.5%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전분기 1위였던 강소성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큰 시장의 위치를 차지함.
- 전통적으로 보험산업이 발달한 북경시와 상해시도 30%대의 고성장으로 중국 보험산업 전체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각각 7.2%, 6.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경	169	5.2	173	6.4	169	6.5	186	7.8	698	6.5	284	6.2	227	7.2
천진	42	1.3	38	1.4	35	1.4	36	1.4	151	1.3	63	1.4	51	1.4
하북	177	5.4	160	5.9	135	5.2	129	5.5	601	5.7	231	5.1	191	5.8
요녕	95	2.9	86	3.2	85	3.3	79	3.4	345	3.1	135	3.0	114	3.4
대련	33	1.0	28	1.0	26	1.0	29	1.2	116	1.0	44	1.0	35	1.0
상해	201	6.1	150	5.5	149	5.7	165	6.6	665	6.2	272	6.0	205	6.4
강소	315	9.6	199	7.3	202	7.8	192	7.1	908	8.2	414	9.1	249	7.0
절강	153	4.7	136	5.0	128	4.9	121	3.8	538	4.1	229	5.0	160	4.0
영파	29	0.9	27	1.0	27	1.0	26	0.7	107	0.7	41	0.9	34	0.7
북건	87	2.6	68	2.5	62	2.4	55	2.1	272	2.4	109	2.4	83	2.4
하문	17	0.5	14	0.5	14	0.5	13	0.4	58	0.5	23	0.5	19	0.5
산둥	178	5.4	177	6.5	168	6.5	154	6.1	678	6.1	245	5.4	221	6.5
청도	30	0.9	30	1.1	27	1.0	28	1.0	115	1.0	43	0.9	39	1.1
광둥	284	8.7	220	8.1	234	9.0	222	8.5	960	8.7	391	8.6	282	8.5
심천	73	2.2	67	2.5	61	2.4	70	2.4	272	2.1	93	2.1	89	2.3
해남	9	0.3	9	0.3	7	0.3	8	0.3	33	0.3	13	0.3	13	0.3
산서	88	2.7	73	2.7	69	2.7	60	2.4	289	2.7	114	2.5	88	2.6
길림	52	1.6	52	1.9	44	1.7	38	1.7	185	1.7	68	1.5	65	1.8
흑룡강	88	2.7	78	2.9	59	2.3	53	2.3	278	2.7	92	2.0	88	2.7
안휘	127	3.9	76	2.8	76	2.9	79	3.1	357	3.3	168	3.7	92	2.5
강서	65	2.0	43	1.6	41	1.6	39	1.6	187	1.7	91	2.0	58	1.7
하남	155	4.7	137	5.1	137	5.3	137	6.1	565	5.7	258	5.7	187	6.2
호북	110	3.4	90	3.3	86	3.3	86	3.8	372	3.7	167	3.7	114	3.6
호남	104	3.2	87	3.2	81	3.1	76	3.2	348	3.3	136	3.0	105	3.1
중경	79	2.4	56	2.1	56	2.1	53	2.2	245	2.4	111	2.4	75	2.4
사천	175	5.3	123	4.5	137	5.3	144	5.4	579	5.2	260	5.7	176	5.1
귀주	25	0.8	24	0.9	24	0.9	22	0.8	95	0.7	36	0.8	32	0.8
운남	57	1.7	44	1.6	41	1.6	39	1.2	180	1.4	67	1.5	59	1.4
티벳	1	0.0	1	0.0	1	0.0	1	0.0	4	0.0	1	0.0	1	0.0
섬서	73	2.2	66	2.4	59	2.3	62	2.6	260	2.4	97	2.1	80	2.4
감숙	34	1.0	29	1.1	25	1.0	26	1.1	114	1.1	45	1.0	37	1.1
청해	5	0.1	5	0.2	4	0.2	4	0.1	18	0.1	7	0.1	7	0.2
영하	11	0.3	11	0.4	9	0.4	9	0.3	39	0.3	15	0.3	13	0.3
신강	41	1.3	50	1.8	32	1.2	34	1.4	157	1.3	57	1.3	54	1.2
내몽고	43	1.3	45	1.7	48	1.9	35	1.3	171	1.3	56	1.2	58	1.3
광서	48	1.4	36	1.3	34	1.3	31	1.1	149	1.2	58	1.3	46	1.1
그룹본사	4	0.1	3	0.1	2	0.1	17	0.0	25	0.0	7	0.1	10	0.0
합계	3,277	100.0	2,709	100.0	2,594	100.0	2,557	100.0	11,137	100.0	4,541	100.0	3,457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0년 2/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반면, 중국 중소형사 및 외자계회사들은 점유율이 확대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7%p 감소한 73.5%를 나타낸 반면, 중국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21.0%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0%를 상회함.
 - 업계 수위인 중국생명과 평안생명이 실적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p, 1.4%p의 점유율 하락을 보임²⁾.
 - 이에 비해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³⁾, 타이캉생명의 점유율은 약 1~2%p 확대되는 등 3~5위권 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신화생명은 방카슈랑스 집중화 전략⁴⁾으로 3위사로 성장함.
- 한편, 외자계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5.4%를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경영권 다툼 등으로 내홍에 시달리던 AIA(友邦保險)는 최근 실적 호조를 보이며 외자계회사들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함.
 - 미국 ACE그룹이 작년에 지분확보를 통해 외자계회사로 전환한 화타이생명(華泰人壽)은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지점망을 통한 공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전년 동기대비 44.0% 급성장하며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함.

□ 2010년 2/4분기 손해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중국 중소형사 및 외자계회사들의 점유율은 전분기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짐.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65.0%로 나타남.
 - 전분기에 이어 가장 큰 손해보험회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대비 3.1%p 줄었으나, 타이핑양재산보험과 평안재산보험은 자동차보험 및

- 2) 중국생명과 평안생명은 성장 둔화세가 장기화되자 다채널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방카슈랑스 판매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재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음.
- 3) 타이핑양생명은 점유율 확대 정책을 지양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회사 체질 개선을 위해 작년 10월에 대형회사로는 최초로 저축형 일시납 보험 판매를 중단했으며, 그 결과 금년 6월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하는 등 신화생명에게 업계 3위 자리를 빼앗김.
- 4) 신화생명은 금년 상반기 전체 실적의 약 55%(290억 위안)를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수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임.

일반보험에서의 호조세 지속으로 각각 1.1%p, 2.2%p 증가함.

- 중국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했으며, 외자계회사는 전년동기와 같은 1.0%에 그침.
- 외자계 1, 2위사인 차티스(美亞財産, AIG에서 개명)와 도쿄해상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3%, 18.9%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 사업 제한 등 외자계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배타적인 사업 환경으로 시장점유율 정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80.2	77.2	76.2	74.2	77.2	75.6	73.5
		중소형사	15.3	17.8	18.6	19.5	17.6	19.5	21.0
		소 계	95.4	95.0	94.7	93.7	94.8	95.1	94.6
	외자계		4.6	5.0	5.3	6.3	5.2	4.9	5.4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7.3	64.8	62.8	61.5	64.2	67.6	65.0
		중소형사	31.6	34.2	36.2	37.3	34.7	31.4	33.9
		소 계	98.9	99.0	99.0	98.8	98.9	99.0	99.0
	외자계		1.1	1.0	1.0	1.2	1.1	1.0	1.0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국생명, 평안생명, 신화생명, 타이핑양생명, 타이캉생명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국인민재산, 평안재산, 타이핑양재산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유럽 동향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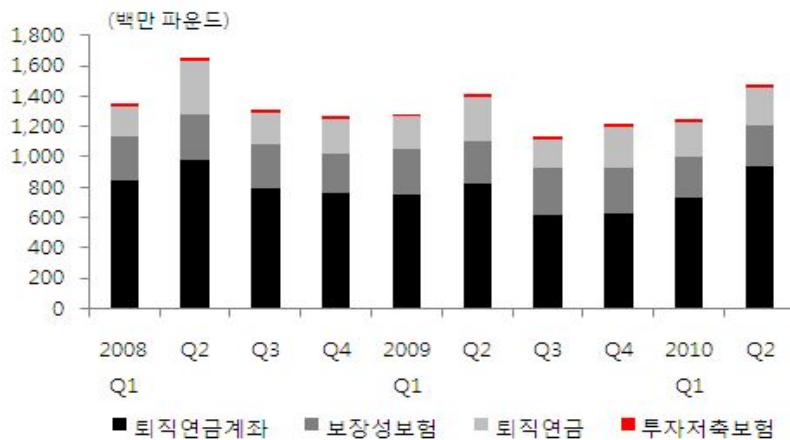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²⁾ 추이>

□ 2010년 2/4분기 중 신규 보험료는 분할납의 증가세 전환으로 일시납 및 분할납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7.9% 증가함.

-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퇴직연금계좌와 역외영업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14억 8천만 파운드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투자·저축보험과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8.3% 증가하여 121억 5천만 파운드를 거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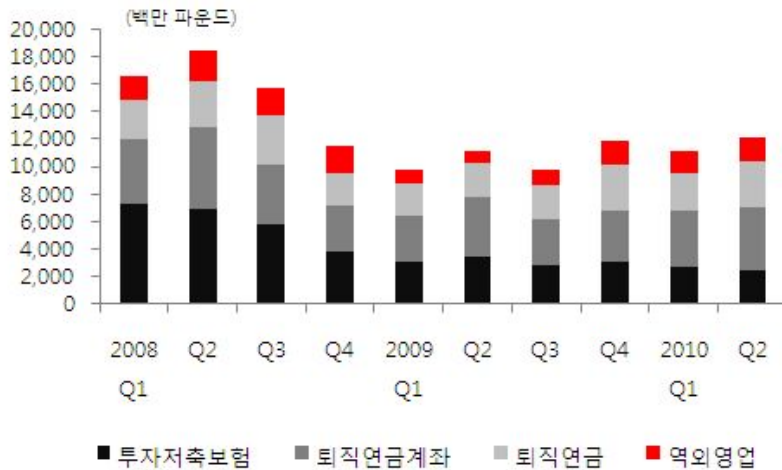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신규 보험료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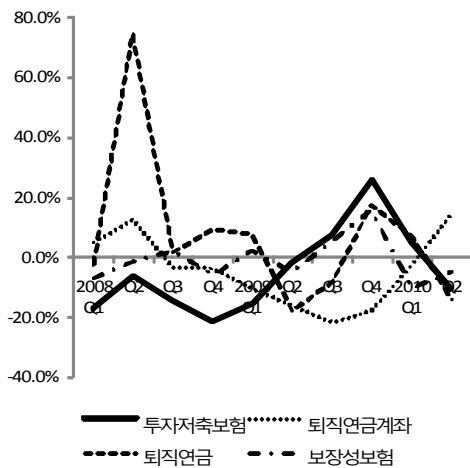
-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 영국의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는 2009년 실질가격으로 조정됨.

<그림 2> 영국 생명보험 일시납 신규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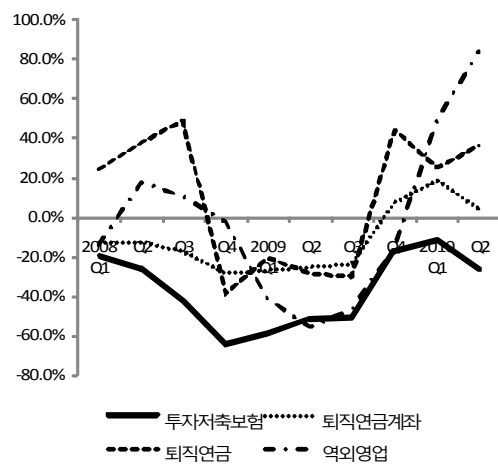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3> 분할납 신규 보험료 증감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그림 4> 일시납 신규 보험료 증감률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투자·저축보험 신규 보험료〉

□ 투자·저축보험의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모든 세부 종목의 감소세 전환으로 인해 2/4분기 중 10.6% 감소하여 1천 7백만 파운드가 거수됨.

○ 모기지 생사혼합, 어린이신탁, 생사혼합 등 모든 세부 종목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분할납 투자·저축보험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1.1%로 나타남.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전체에서 99%를 차지하는 투자채권판매가 경기회복세의 지연, 50세 이상에 대한 개별저축계좌 혜택 확대 등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7% 하락하는 등 1996년 2/4분기 이후 최저의 수준을 보임.

○ 투자채권 중 비중이 큰 확정형채권(Guaranteed Bonds), Distribution Bonds, 유배당채권(With-Profit Bonds)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92%, 39%, 15% 하락한 반면 Money Market Bonds는 90% 증가함.

○ 그 결과 일시납 신규 보험료 중 투자·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3.6%p 하락한 20.6%로 낮아짐.

〈퇴직연금계좌 신규 보험료〉

□ 2/4분기 중 퇴직연금계좌의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단체퇴직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Employer 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등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됨.

○ 단체퇴직연금계좌와 사용자후원 개인퇴직계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25% 증가한 반면, 개인관리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은 34% 감소함.

○ 퇴직연금계좌는 신규 보험료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대비 4.9%p 높아진 63.1%를 기록함.

□ 퇴직연금계좌의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개인퇴직계좌(Self Invested Personal Pensions), 단체퇴직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s)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4.1% 증가에 그침으로써 46억 파운드가 거수되었으며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 단체퇴직연금계좌, 개인퇴직계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25% 증가하여 증가세를 견인한 반면, 개인연금(personal Pensions)과 개인관리연금(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은 각각 6%,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46억 파운드의 신규 보험료 중 21억 파운드는 계약이 이전된 신규 보험료이고 11억 파운드는 DWP 리베이트³⁾인 점을 감안한다면 단지 13억 파운드 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유입된 것이며, 전년동기대비로는 12% 감소한 것임.
- 계약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때 일시납 퇴직연금계좌가 전체 일시납 신규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전분기대비 1.3%p 증가하였으나, 새로 유입된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10.7%로 축소됨.

〈퇴직연금 신규 보험료〉

- 2/4분기 중 퇴직연금의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DC형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14.1% 감소함.
 - DC형 퇴직연금은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반면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과 DB형 퇴직연금은 감소세를 보임.
 - 2/4분기 중 퇴직연금의 감소세로 인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2.0%p 감소한 16.6%를 차지함.
- 퇴직연금의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맞춤형퇴직연금(Trustee Investment Plans), Bulk Buyouts⁴⁾,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2/4분기 중 36.3%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맞춤형퇴직연금, Bulk Buyouts, DC형 퇴직연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 69%, 65% 증가하면서 일시납 퇴직연금을 견인함.
 - 2/4분기에는 퇴직연금의 일시납 신규 보험료 중 일부 종목의 큰 폭 증가에 힘입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1.4%p 증가한 26.7%를 기록함.

3)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서 지급되는 개인연금

4)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연금기금(사용자)으로부터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 구입

〈보장성보험 신규 보험료〉

- 2/4분기 중 보장성보험의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모기지 관련 사망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하는 감소세를 시현함.
- 2/4분기 중 모기지 관련 사망보험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득보장보험은 2% 감소하였고, 신용생명보험(Collective Life)은 38% 감소하였으며 모기지와 관련 없는 사망보험과 종신보험들은 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단체보장성보험은 단체생명보험(Group Life)의 판매 저조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중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이 신규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대비 2.6% 감소한 18.6%를 차지함.

〈역외영업의 신규 보험료〉

- 2/4분기 중 역외영업의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투자채권, Personal Bonds-Pooled⁵⁾ 등의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14.5% 증가하는 증가세를 시현함.
- 2/4분기 중 Personal Bonds-Pooled는 전년동기대비 75% 증가하여 역외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높아졌으며, 투자채권도 전년동기대비 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시납 신규 보험료의 증가세에 힘입어 역외영업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1.0%p 증가한 14.5%를 차지함.

5) Mutual fund,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

<표 1> 영국 생명보험 분할납 및 일시납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파운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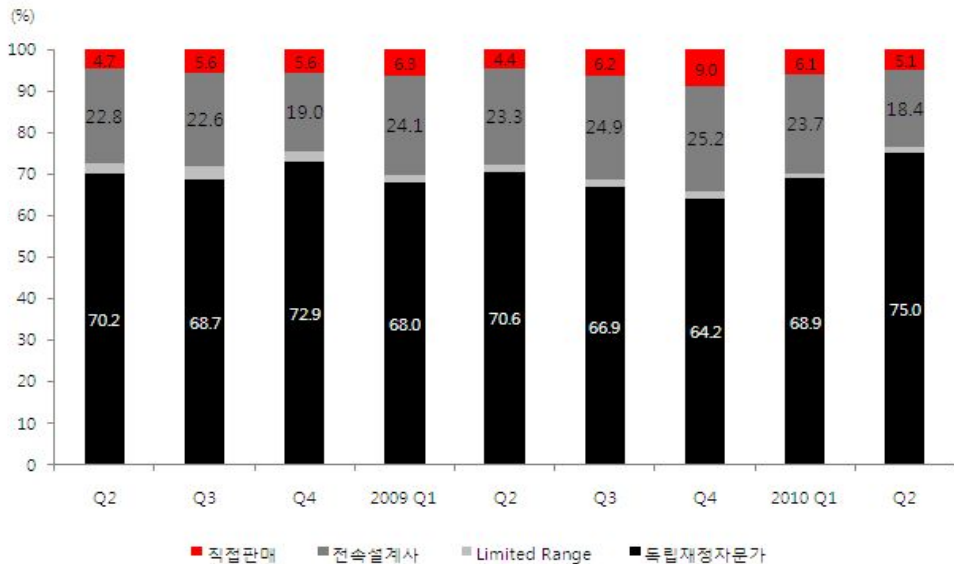
분할납 신규 보험료		CY2008	CY2009				CY2010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75	19	21	20	77	18	17
	증가율	-14.8	-2.0	7.3	25.8	2.7	5.1	-10.6
	구성비	1.3	1.3	1.9	1.6	1.5	1.4	1.1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3,363	818	618	621	2,808	729	936
	증가율	2.7	-16.2	-21.7	-18.0	-16.5	-3.0	14.5
	구성비	60.1	57.7	54.1	50.9	55.4	58.2	63.1
퇴직연금	보험료	988	286	187	273	964	233	246
	증가율	20.3	-18.0	-8.3	17.3	-2.5	7.0	-14.1
	구성비	17.7	20.2	16.4	22.3	19.0	18.6	16.6
역외영업	보험료	19	5	5	6	21	8	9
	증가율	-3.1	23.9	25.7	-0.9	4.2	70.1	73.1
	구성비	0.3	0.4	0.5	0.5	0.4	0.6	0.6
보장성보험	보험료	1,148	289	311	302	1,196	265	275
	증가율	-8.4	-5.0	5.6	15.8	8.5	-10.1	-4.7
	구성비	20.5	20.4	27.2	24.7	23.6	21.2	18.6
합계	보험료	5,593	1,417	1,142	1,222	5,066	1,253	1,483
	증가율	3.8	-14.3	-12.9	-4.0	-9.4	-2.6	4.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시납 신규 보험료		CY2008	CY2009				CY2010	
		연간	2/4	3/4	4/4	연간	1/4	2/4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23,769	3,406	2,877	3,130	12,445	2,692	2,500
	증가율	-38.9	-50.9	-50.4	-17.0	-47.6	-11.2	-26.6
	구성비	37.7	30.4	29.4	26.4	29.2	24.2	20.6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18,397	4,416	3,337	3,654	14,840	4,065	4,598
	증가율	-17.0	-25.4	-23.9	7.2	-19.3	18.4	4.1
	구성비	29.2	39.4	34.0	30.8	34.8	36.5	37.8
퇴직연금	보험료	12,097	2,379	2,477	3,409	10,529	2,819	3,242
	증가율	10.1	-28.8	-30.1	43.7	-13.0	24.5	36.3
	구성비	19.2	21.2	25.3	28.7	24.7	25.3	26.7
역외영업	보험료	7,777	956	1,057	1,610	4,627	1,503	1,758
	증가율	2.4	-55.9	-47.0	-15.1	-40.5	49.6	84.0
	구성비	12.3	8.5	10.8	13.6	10.8	13.5	14.5
보장성보험	보험료	1,019	65	55	66	237	62	54
	증가율	-19.5	-76.9	-77.8	-68.8	-76.7	22.1	-17.4
	구성비	1.6	0.6	0.6	0.6	0.6	0.6	0.4
합계	보험료	63,058	11,221	9,803	11,869	42,678	11,141	12,152
	증가율	-22.1	-39.8	-38.6	1.8	-32.3	13.9	8.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판매채널별 신규 보험료>

- 2010년 2/4분기 중 분할납 신규 보험료는 독립재정자문가⁶⁾에 의한 판매가 전분기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대폭 감소하고 직접판매도 소폭 감소함.
- 독립재정설계사의 판매는 2/4분기 중 75.0%를 차지하여 전분기대비 6.1%p 증가 하였으며, 판매 비중이 증가한 종목은 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 역외영업, 개인 보장성보험인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중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단체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 함으로써 판매 비중은 전분기대비 5.3%p 감소하여 18.4%를 차지함.
- 직접판매는 2/4분기 중 5.1%를 차지하여 전분기대비 1.0% 감소함.

<그림 5> 판매채널별 분할납 보험료 비중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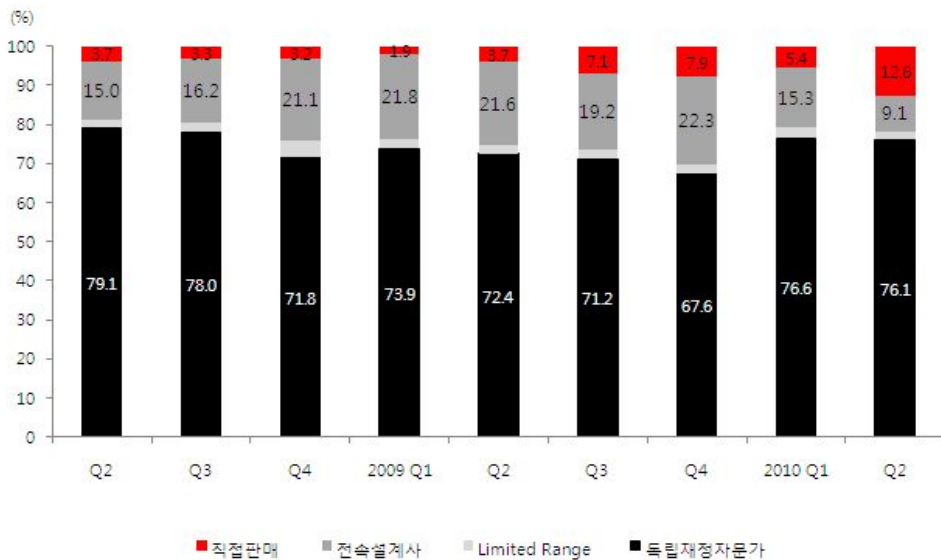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6)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7) Limited Range는 금융상품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만 하도록 규정됨.

- 2/4분기 중 일시납 신규 보험료는 직접판매 채널의 판매가 크게 증가한 반면 독립 재정설계사 및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크게 감소함.
- 직접판매는 모든 종목의 판매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7.2%p 증가하여 12.6%를 차지함.
 - 독립재정설계사의 판매는 개인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판매 저조로 인해 전분기 대비 0.5%p 감소한 76.1%를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의 판매는 모든 종목에서 판매가 감소하여 전분기대비 6.2%p 축소된 9.1%를 차지함.

<그림 6> 판매채널별 일시납 보험료 비중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10년 2/4분기 이탈리아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22.0% 상승한 200억 유로를 기록하여 고성장 기조가 다소 둔화됨.

○ 2010년 2/4분기 비중이 큰 일시납 보험료가 22.4% 증가했으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70~90% 수준의 고성장세는 둔화되는 모습임.

○ 분할납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21.4% 성장했으나 전년동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이며 연납 보험료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연납 (Annui)	보험료	635	165	184	124	178	651	166	172
	성장률	-5.3	0.8	15.1	-3.3	-3.3	2.5	0.6	-6.5
	구성비	1.5	1.3	1.1	0.8	0.9	1.0	0.8	0.9
일시납 (Unici)	보험료	38,318	12,080	15,682	14,564	18,196	60,522	20,972	19,195
	성장률	-19.3	10.9	39.3	97.4	106.9	57.9	73.6	22.4
	구성비	92.1	94.6	95.7	96.7	95.0	95.5	95.1	96.0
분할납 (RSP)	보험료	2,668	526	518	369	779	2,192	917	629
	성장률	-9.7	-26.9	-27.6	-4.0	-8.5	-17.9	74.3	21.4
	구성비	6.4	4.1	3.2	2.5	4.1	3.5	4.2	3.1
전 체	보험료	41,625	12,770	16,384	15,057	19,154	63,365	22,056	19,996
	성장률	-31.2	8.5	35.1	90.8	94.8	52.2	72.7	22.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 실적이며, 연납(Annui;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2/4분기 생명보험 신규 보험료를 종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은 1.6% 감소한 반면, 전통형 및 투자형 상품(RamoIII),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은 각각 143.2%, 21.3% 증가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 보험료

구 분		(단위 : 백만 유로, %)						
		CY2009					CY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10,032	13,747	12,211	15,038	51,028	15,838	13,533
	성장률	134.4	184.4	304.0	108.4	163.7	57.9	-1.6
	구성비	78.6	83.9	81.1	78.5	80.5	71.8	70.1
전통형 및 투자형 (RamoIII)	보험료	2,099	2,102	2,404	3,345	9,950	5,170	5,112
	성장률	-70.9	-70.2	-47.4	134.9	-52.8	146.3	143.2
	구성비	16.4	12.8	16.0	17.5	15.7	14.8	26.5
- 전통형	보험료	1,328	1,191	1,109	2,273	5,901	3,255	3,715
	성장률	-62.4	-71.2	-28.4	190.8	-46.0	145.1	211.9
	구성비	10.4	7.3	7.4	11.9	9.3	14.8	19.3
- 보장성	보험료	14	27	23	40	104	29	22
	성장률	-21.3	-35.8	-68.2	423.3	-26.8	107.1	-19.1
	구성비	0.1	0.2	0.2	0.2	0.2	0.1	0.1
- 보 증	보험료	21	81	78	120	300	145	129
	성장률	-93.6	-75.5	16.5	280.4	-61.5	590.5	58.9
	구성비	0.2	0.5	0.5	0.6	0.5	0.7	0.7
- 변 액	보험료	734	800	1,192	912	3,638	1,740	1,247
	성장률	-78.0	-68.5	-58.6	41.3	-60.6	137.1	55.8
	구성비	5.7	4.9	7.9	4.8	5.7	7.9	6.5
기타 (RamoIV)	보험료	0.2	0.3	0.3	0.4	1.2	0.2	0.2
	성장률	-84.5	157.1	44.2	3.4	-40.0	0.0	-21.0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633	527	432	752	2,344	1,032	639
	성장률	163.9	131.6	48.8	98.5	106.3	63.0	21.3
	구성비	5.0	3.2	2.9	3.9	3.7	4.7	3.3
기타 (RamoVI)	보험료	5.6	5.6	8.6	18.2	38.0	16	11
	성장률	-77.9	-27.6	16.0	4.7	-34.6	185.7	101.8
	구성비	0.0	0.0	0.1	0.1	0.1	0.1	0.1
합 계	보험료	12,770	16,383	15,057	19,154	63,365	22,056	19,296
	성장률	8.5	35.1	90.8	110.3	52.2	72.7	17.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III-펀드, 추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VI&VI-기타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은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한 135억 유로를 나타내어 고성장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됨.
 - 전통형 및 투자형(RamoIII)의 보험료는 전년동기 저성장의 기저효과와 수요 증가에 의한 성장세가 더해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43.2%의 성장한 51억 유로를 기록함.
 - 카피탈리자시용(RamoV)의 경우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21.3% 성장한 6억 유로를 시현함.
- 2010년 7월 생명보험의 누적 신계약 건수는 약 214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누적 신계약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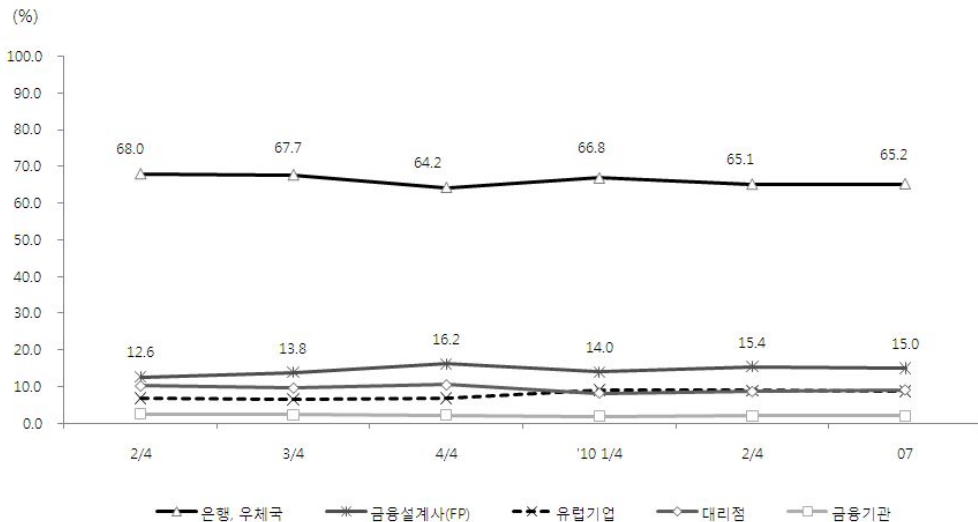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7월		2010년 7월		증감률
	계약 건수	비 중	계약 건수	비 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1,554,292	88.0	1,648,478	77.1	6.1
전통형 및 투자형(RamoIII)	177,508	10.0	446,328	20.9	151.4
- 전통형	111,509	6.3	158,339	7.4	42.0
- 보장성	4,133	0.2	4,125	0.2	-0.2
- 보 증	15,007	0.8	31,234	1.5	108.1
- 변 액	46,859	2.7	252,630	11.8	439.1
기타(RamoIV)	469	0.0	678	0.0	44.6
카피탈리자시용(Ramo V)	28,326	1.6	28,323	1.3	0.0
기타(RamoVI)	5,837	0.3	14,163	0.7	142.6
합 계	1,766,432	100.0	2,137,970	100.0	21.0
- 연금(개인)	100,415	5.7	160,457	7.5	59.8
- 순수보장성	360,692	20.4	383,941	18.0	6.4
- 기 타	1,305,324	73.9	1,593,573	74.5	22.1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이는 전통형 및 투자형(RamoⅢ)이 전년동기대비 151.4%의 고성장을 나타내고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도 전년동기대비 6.1%의 양호한 성장을 나타낸 것에 기인함.
- 2010년 2/4분기 생명보험 누적 신규 보험료 기준 판매채널 비중은 은행 및 우체국이 65.1%로 여전히 가장 높았으며 금융설계사(FP)는 15.4%, 유럽기업은 8.9%, 대리점은 8.6%의 비중을 보임.
- 은행 및 우체국의 비중이 전분기대비 1.7%p 감소한 반면, 금융설계사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1.4%p 증가한 15.4%를 나타냈고 대리점도 전분기대비 0.4%p 증가한 8.6%의 비중을 나타냄.
- 7월에는 은행 및 우체국의 비중이 65.2%, 금융설계사 15.0%, 대리점 9.1%, 유럽기업 8.7%의 구성비를 각각 기록함.

<그림 5> 이탈리아 생명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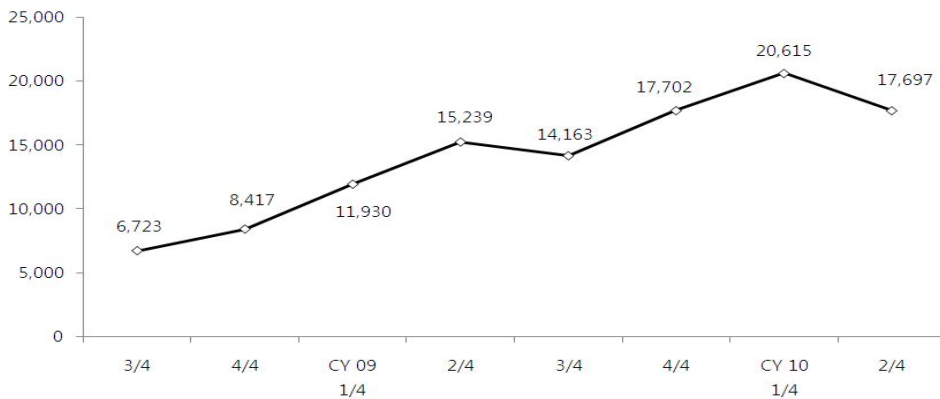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10년 2/4분기 회사그룹별 실적은 국내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6.1% 성장한 반면 외국사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100.4%의 고성장을 나타냄.

- 국내사는 2/4분기 전년동기대비 16.1% 상승한 177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최근 이어져온 고성장세가 다소 둔화됨.
-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100.4% 상승한 23억 유로를 나타냈으며 전년동분기 저조한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실적임.

<그림 6> 이탈리아 국내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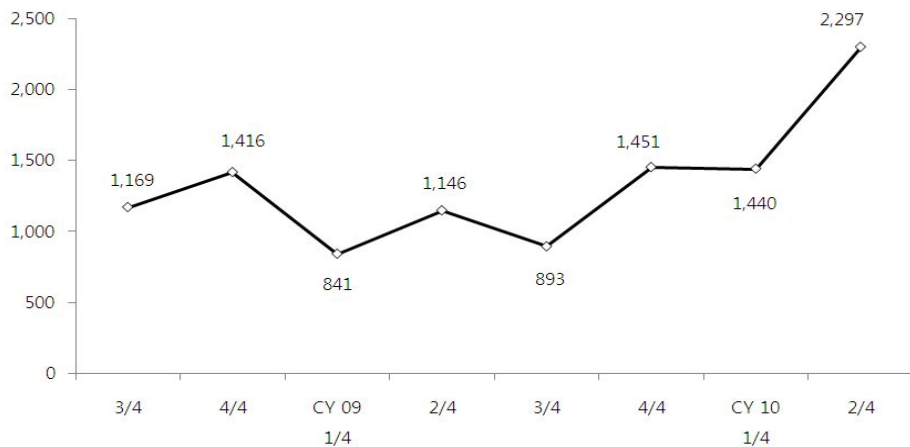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그림 7> 이탈리아 외국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의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V;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8호 (7. 5)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 대책 발표 · 정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자 선제적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함.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금융위, 6/25)
제88호 (7. 5)	손해보험회사, 초과사업비 해소방안 마련 · 손해보험회사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의 해소방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정함. (손보업계, 車보험 카드수수료 인하 건의 등, 연합뉴스 등, 6/28)
제89호 (7. 12)	금감원,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 급증 · 맞춤형 자산관리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에 대한 영업도 강화됨에 따라 랩 어카운트를 통한 투자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증권회사의 랩 어카운트 현황 분석, 금감원, 7/5)
제89호 (7. 12)	금감원, 보험사기 예방교육 강화 · 금감원은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일반 국민들이 모방범죄 등으로 죄의식 없이 보험범죄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 (보험사기 예방교육 실시 및 대국민 홍보강화 추진, 금감원, 7/2)
제90호 (7. 19)	금감원,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권유제도 개선 · 복잡한 판매절차로 인한 과도한 시간 소요, 금융투자상품 설명의 확실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자보호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투자자권유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함.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투자권유제도 개선, 금감원, 7/16)

■ 국내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0호 (7. 19)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 ·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에 앞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함.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범정부적 대처, 보건복지부, 7/13)
제91호 (7. 26)	6월 고용동향, 민간부문 중심 견조한 고용회복세 지속 · 금년 6월 취업자수는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31만 명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됨. (2010년 6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 7/14)
제91호 (7. 26)	금감원, 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발표 · 금감원은 치명적 질병보험(CI보험)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이해를 도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가입 시 유의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함. (치명적 질병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금감원, 7/22)
제92호 (8. 2)	상반기 기업 직접금융 기저효과로 감소 · 금감원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임. (2010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실적분석, 금감원, 7/26)
제92호 (8. 2)	PF 대출 은행권 감소 보험권 증가 · 은행권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보험권의 경우에는 PF 대출 잔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동산 PF 대출, 은행 줄이는데 보험사는 늘려 등, 연합뉴스 등, 7/25)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3호 (8. 9)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하락 ·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빌딩이 전분기대비 0.60%p 하락한 1.83%, 매장용빌딩은 0.53%p 하락한 1.71%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 아파트형 공장 증가 등에 따른 것임. (상업용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 국토해양부, 8/4)
제93호 (8. 9)	금감원, 보험사기방지 사이버홍보 강화 · 금감원은 최근 젊은층이 연루된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험사기방지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사이버홍보 강화, 금감원, 7/23)
제94호 (8. 16)	은행 정기예금 급증세 ·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은행의 정기예금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산운용사 수신은 감소함. (2010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8/11)
제94호 (8. 16)	상반기 금융분쟁 조정신청, 보험이 대부분 ·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 중 보험관련 신청의 비중이 가장 높아 보험권의 민원 소송이 다른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0년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금감원, 8/11)
제95호 (8. 23)	증권회사 단기유동성 비율 100% 이상 유지해야 ·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금감원, 8/18)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5호 (8. 23)	화재보험 의무가입 구체적 범위 규정 · 2010년 3월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유건물·운수시설·다중이용업소가 화재보험가입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함.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위, 8/18)
제96호 (8. 30)	금감원, 금융회사 내부통제 특별점검 실시 · 금감원은 최근 유사한 금융사고의 반복적 발생을 억제하고자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 (금융사고 유형별 사고예방 강화방안 마련·시행, 금감원, 8/23)
제96호 (8. 30)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삭제 · 정부는 보험회사들이 약관대출 연체이자를 일체 물리지 못하게 하는 보험회사 약관대출 규정이 반영된 표준약관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 (연20%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10월부터 없앤다 등, 이데일리 등, 8/26)
제97호 (9. 6)	8월 신선식품 물가 급등, 정부 물가대책 발표 · 정부는 9월 2일,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여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종합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함.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등, 지경부, 9/2)
제97호 (9. 6)	금감원, 보험상품 사업비 공시 강화 · 금감원은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고 회사별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공시방안을 마련하여 보험상품 공시지침에 반영한 후 금년 10월부터 판매되는 신계약에 적용하기로 결정함. (보험상품의 사업비 등 공시강화, 금감원, 9/2)
제98호 (9. 13)	한은, 기준금리 두달 연속 동결 · 9월 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 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25%에서 동결함.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 9/9)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8호 (9. 13)	금융위,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 ·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동 개정안을 통해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시킴. (예금자보호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 9/1)
제99호 (9. 20)	금감원, 은행의 외환건전성 양호 평가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 점검, 금감원, 9/16)
제99호 (9. 20)	국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 보험편 개정 추진 ·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가능 기간을 축소시키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늘리는 상법 보험편 개정 방안이 추진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9/13)

■ 미국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8호 (7. 5)	금융개혁법안 최종안 도출 난항 · 상 · 하원 의원들은 자체적인 시한을 6월 25일 금요일로 설정하고 양원의 안을 통합하기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LA Times 등, 6/24)
제89호 (7. 12)	미 연준, 경기 회복세 둔화 타개책 검토 ·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들을 고려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함. (Washington Post, 7/8)
제90호 (7. 19)	은퇴예정자의 파반수, 노후자금 부족 · 근로자복지연구소(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56~62세인 베이비붐 세대들 중 47% 가량이 은퇴이후 기본적인 생활과 보건비용에 필요한 금액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cago Tribune, 7/13)
제91호 (7. 26)	생명보험 정산거래, 일관성 있는 감독 필요 ·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생명보험 계약을 거래하는 생명보험 정산거래(Life Settlements)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 모두에게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함. (Bloomberg, 7/22)
제92호 (8. 2)	미국 경제회복, 불확실성 확대 · 버냉키(Bernanke) 연준 의장은 의회 증언을 통해 미국경제가 다시 위축될 경우 신규대책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Guardian, 7/25)
제93호 (8. 9)	미국 보험산업, 점진적 회복 전망 · 2009년 이후 가격경쟁과 보유계약감소 등으로 고전해온 미국 보험산업은 2010년 들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 회복세와 함께 인수합병을 통한 보험회사의 대형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The Street, 8/4)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4호 (8. 16)	미 경기회복 둔화, 불안감 고조 · 8월 11일 미 연준이 경기회복 둔화세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한 이후 주식시장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크게 하락함. (Financial Times, 8/11)
제95호 (8. 23)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생보사 자산유보계정에 우려 표명 ·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보험회사들이 자산유보계정(Retained Asset Account)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동 계정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촉구함. (AM Best 등, 8/16)
제96호 (8. 30)	미 국채시장, 버블논쟁 대두 · 미국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국채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국채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급락으로 인해 국채시장 버블논쟁이 불거짐. (USA Today 등, 8/22)
제97호 (9. 6)	미 연준, 추가적 경기부양 가능성 강조 · 지난 8월 27일 미국 연방준비은행 버냉키 의장은 둔화되고 있는 경제회복세를 부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Wall Street Journal, 8/27)
제98호 (9. 13)	오바마, 부유층 감세연장 반대 및 추가 경기부양책 제안 ·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대통령 시절에 단행된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R&D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함. (Washington Post 등, 9/8)
제99호 (9. 20)	미 재무부, 중국 환율정책에 우려 표명 · 티모시 가이스너(Timothy Geithner) 미국 재무부 장관은 환율정책에 대한 중국의 노력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위안화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요구된다는 내용의 연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짐. (AFP 등, 9/15)

■ 유럽 보험 · 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8호 (7. 5)	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로 자본보강 자금 필요 · 스트레스테스트의 7월 말 공개가 확정된 가운데 자본적정성 기준에 미달하는 은행을 중심으로 자본보강을 위한 300억 유로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Financial Times, 7/1)
제89호 (7. 12)	은행권, 헝가리 은행세에 대한 우려 표명 · 유럽은행권은 헝가리 신정부가 금융기관들에게 부과할 은행 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유로지역의 경기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Financial Times 7/5, Bloomberg 7/5)
제90호 (7. 19)	은행권, 은행세 보다는 사적 은행구제기금이 바람직 · 유럽의 대형 은행들은 금융위기 재발시 파산 직전의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적 은행구제기금이 은행세 보다 효과적 이란 주장을 제기함. (Financial Times, 7/11)
제91호 (7. 26)	유럽은행 스트레스테스트 불신 조짐 대두 · 스트레스테스트 공개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시나리오 정보 공개 부족과 불투명성이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공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Financial Times, 7/20, 7/21)
제92호 (8. 2)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낙관론과 회의론 교차 · 스트레스테스트 공개 이후 채권 ·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유럽 금융시장이 활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로 인해 재정위기가 해소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나타남. (Financial Times, 4/29)
제93호 (8. 9)	보험회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필요 · 미국국립해양대기청과 영국기상청 등은 최근의 지구온난화 측정 지표들이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볼 때 지구의 기후가 변화했다는 주장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밝힘. (Financial Times, 8/4, ABI, 7/29)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4호 (8. 16)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 보험회사 환경 악화 유발 · 비정상적인 저금리 기조는 보험산업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융산업의 균형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금리수준이 조속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됨. (Financial Times, 8/6)
제95호 (8. 23)	유로지역 경제, 국가간 탈 동조화 심화 · 2/4분기 중 독일·영국의 경제성장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인 반면, 그 밖의 유로지역 국가들은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지역 경기는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는 탈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8/13)
제96호 (8. 30)	아일랜드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시장 불안 증대 · 아일랜드는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국채 매도세가 커졌으며, 유럽의 주가는 이에 영향을 받아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금융시장도 불안정해짐. (Financial Times, 8/25)
제97호 (9. 6)	유럽경기 회복세 희망적 · 최근 미국 및 아시아권의 경기회복 지연 조짐에도 불구하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지역의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이는 수출 증가, 충분한 유동성 공급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Eurostat 9/2, Financial Times 등, 8/31)
제98호 (9. 13)	유럽 금융감독 개혁안 비준 통과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최근 유럽 경제·재무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의 금융감독 개혁안 비준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나아가 개별 국가의 예산 및 경제정책 감독,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힘. (유럽의회 9/27, Financial Times, 9/7)
제99호 (9. 20)	바젤 III,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미래의 손실에 대비하여 은행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자본비율은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임. (BIS 9/12, Financial Times 9/13)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8호 (7. 5)	도쿄해상HD, 신흥시장 진출 전담부서 신설 · 도쿄해상홀딩스는 신흥 보험시장 진출업무 전담부서를 금년 7월 신설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6/29)
제89호 (7. 12)	2009년 연금운용실적,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운용되는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의 작년도 운용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익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아사히신문, 7/7)
제90호 (7. 19)	연금보험 이중과세 판결, 생보업계 대책 마련 부심 · 대법원은 유족에게 연금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소득세 뿐만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한 현행 조세법은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내림. (J-CAST뉴스, 후지일보, 7/12)
제91호 (7. 26)	금융기관, 이슬람 금융시장 진출 본격화 · 주요 금융기관들은 은행법 개정으로 이슬람 금융상품을 정식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대출 및 채권 관련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음. (FujiSankei Business I 7/19)
제92호 (8. 2)	손보업계, 자동차보험료 인상 본격화 · 도쿄해상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데 이어 다른 주요 손해 보험회사들도 연내 1~2% 수준의 인상 계획을 발표함. (각 사 홈페이지, FujiSankei Business I 7/22)
제93호 (8. 9)	금융청,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완화 논의 재개 · 일본금융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범위 제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함. (보험매일신문, 8/3)
제94호 (8. 16)	보험업계, 비용절감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본격화 · 보험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업무 전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cloud computing system) 도입을 본격화 함. (FujiSankei Business I, 8/10)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5호 (8. 23)	금융청, 증권세제 우대책 3년 연장 일본금융청은 상장주식의 배당금과 양도이익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증권세제 우대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FujiSankei Business I, 8/16)
제96호 (8. 30)	일본은행, 추가 금융완화 검토 급격한 엔화강세로 일본경제의 회복세 둔화 우려가 확산되자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조만간 추가 금융완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8/24)
제97호 (9. 6)	다이이치생명, 상장이후 주가부진 이어져 금년 초 대형 생명보험회사로는 최초로 상장해 관심을 모았던 다이이치생명의 주가가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NSJ 일본증권신문, 8/30)
제98호 (9. 13)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 호조 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공개한 실적 발표 자료에 따르면, FY2010 1/4분기(2010년 4~6월) 온라인전용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일본경제신문, 9/7)
제99호 (9. 20)	손보 연금형 상해보험, 이중과세 환급 대상 포함 연금지급형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비슷한 구조의 손해보험상품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소득세 환급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짐. (FujiSankei Business I, 9/14)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88호 (7. 5)	상하이거래소 외국계기업 상장 연기 전망 · 금년 중반 예정되었던 외국기업의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계획이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으로 본격적인 시행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됨. (증권일보, 로이터, 6/28)
제89호 (7. 12)	상하이보험거래소 설립 본격 논의 · 상하이시는 다양한 보험기구가 모여 상품 및 자산 등을 거래하는 보험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신문, 중국증권보, 7/6)
제90호 (7. 19)	중국, 일본 국채 순매수 사상 최대 · 일본 금융당국은 중국이 금년 1~5월간 순매수한 일본 국채 규모가 단일기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Record China, 7/13)
제91호 (7. 26)	보감회, 예정이율 자율화 제도 도입 예정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10년 간 동결되었던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제92호 (8. 2)	상하이 화재공중책임보험시장 급성장 · 상하이보험감독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상하이의 2010년 상반기까지 화재공중책임보험(화재보험과 유사) 가입업체 수가 2년 전에 비해 5배 증가하는 등 화재공중책임보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하이보험감독국 홈페이지, 해방망, 7/23)
제93호 (8. 9)	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 발표 임박 · 대형재난 빈발로 인명피해가 극심해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대형재난보험 운용방안'을 완성해 국무원에 제출함. (중국경영보, 8/4)
제94호 (8. 16)	보감회, 보험회사 자산운용관리법 발표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신보험법 발표 이후 최초의 자산운용 관련 규정인 <보험회사 자산운용관리 잠정시행방법>을 확정해 공포함.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95호 (8. 23)	보감회, 방카슈랑스 모집인 관리감독 강화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방카슈랑스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카슈랑스 모집인 전문관리제도 규범화 관련 통지>를 확정해 발표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상해증권보, 8/17)
제96호 (8. 30)	보험업계, 종합금융그룹화 경쟁 본격화 · 최근 <보험회사 자산운용 관리 잠정시행법> 시행으로 보험업계의 종합금융그룹화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매일경제신문, 8/23)
제97호 (9. 6)	NDRC, “중국 임금인상이 세계·중국경제에 큰 영향 줄 것” · 중국정부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임금인상 움직임이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겠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됨. (Record China, 8/30)
제98호 (9. 13)	중국 대외직접투자, 세계 5위·개도국 1위 · 최근 중국상무부, 국가통계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09년 중국해외직접투자(FDI) 통계’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약 565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5위, 개발도상국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중화공상시보, 법제만보, 9/7)
제99호 (9. 20)	중국사과원, “2030년 중국 세계 최고령 국가될 것” ·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재정정책보고서 2010/2011>에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함. (동방조보, 법제일보, 9/13)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3	-3.3	-4.3	-2.2	1.0	6.0	8.1	7.2
경상수지	-8,329.7	7,831.3	8,618.2	13,097.4	10,395.5	10,556.5	1,280.2	9,925.6
수 출	115,000	93,071	74,421	90,360	94,781	103,971	101,093	120,252
수 입	122,901	91,528	71,418	73,970	84,845	92,852	98,113	105,897
실업률	5.85	4.68	3.64	3.89	4.30	4.34	4.14	3.50
금리	국고채(3년)	7.19	8.29	6.85	5.35	5.59	5.46	5.25
	회사채(3년)	10.09	11.79	12.16	11.55	11.72	11.62	11.31
소비자물가지수	111.1	110.8	111.6	112.7	113.3	113.5	114.6	115.6
환율	원/달러	1,187.7	1,257.5	1,377.1	1,284.7	1,188.7	1,167.6	1,130.8
	원/엔화	1,144.2	1,393.9	1,414.8	1,336.3	1,318.8	1,262.8	1,217.7
KOSPI	1,448.1	1,124.5	1,206.3	1,390.1	1,673.1	1,682.8	1,692.9	1,698.3
외환보유고	239,672	201,223	206,340	231,735	254,247	269,995	272,331	274,218

주 : 1)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CY2010	
	3/4	4/4	1/4	2/4	3/4	4/4	1/4	2/4
보 험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21,616	22,241
- 생 보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19,251	13,782
- 손 보	-2,086	-10	-4,588	7,795	234	-779	-2,365	8,459
은 행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95,462	47,911
- 일 반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73,991	70,442
- 신 탁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21,471	-22,531
증 권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89,869	-29,207
투 신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248,104	-190,970
총 금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45,191	-60,687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40,908	153,119	40,313
	성장률	-3.8	-0.5	-0.2	4.8	16.2	14.1	8.8	17.2
	구성비	20.3	19.1	19.6	20.6	18.2	21.4	19.9	21.0
사망	보험료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72,330	289,498	71,767
	성장률	-3.5	-1.1	-3.9	-2.1	-0.7	-0.1	-1.7	-0.2
	구성비	41.1	40.0	41.0	40.5	32.5	37.8	37.6	37.3
생사 혼합	보험료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23,387	82,052	24,183
	성장률	20.2	0.5	18.5	22.6	33.9	20.1	23.6	33.6
	구성비	11.0	9.0	10.3	10.8	9.5	12.2	10.7	12.6
변액 보험	보험료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44,522	171,882	44,983
	성장률	-10.8	1.2	-13.7	-8.4	5.1	10.4	-2.3	10.0
	구성비	22.9	23.9	23.3	23.5	19.8	23.3	22.3	23.4
개인계	보험료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181,145	696,551	181,247
	성장률	-3.3	-0.2	-3.9	-0.1	7.6	7.8	2.8	9.7
	구성비	95.3	92.1	94.3	95.4	80.1	94.6	90.5	94.2
단체	보험료	8,299	58,087	9,908	8,287	44,544	10,277	73,017	11,156
	성장률	-24.6	-19.2	-9.5	-5.2	48.0	23.8	25.7	12.6
	구성비	4.7	7.9	5.7	4.6	19.9	5.4	9.5	5.8
합계	보험료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191,423	769,568	192,402
	성장률	-4.5	-2.0	-4.2	-0.3	13.8	8.6	4.6	9.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28,276	9,899	20,832	20,875	21,283	22,101	85,090	20,570
	증가율	0.5	14.9	-8.8	-33.2	-43.3	-21.8	-29.0	-1.3
	지급률	78.9	85.2	60.6	56.4	52.2	54.0	55.6	51.0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41,300	146,996	37,161	39,103	35,853	37,182	149,298	36,009
	증가율	23.3	18.8	18.5	10.7	-8.1	-10.0	1.6	-3.1
	지급률	57.0	49.9	51.7	53.8	49.4	51.4	51.6	50.2
생존사합보험	지급보험금	15,351	71,622	12,802	14,843	23,144	19,768	70,557	12,028
	증가율	-42.3	-30.4	-31.7	-18.6	19.9	28.8	-1.5	-6.0
	지급률	78.9	107.9	70.7	76.8	108.9	84.5	86.0	49.7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14,032	59,597	14,922	21,046	21,928	23,385	81,281	25,859
	증가율	0.4	1.0	0.3	51.2	30.8	66.6	36.4	73.3
	지급률	34.8	33.9	36.5	50.0	49.4	52.5	47.3	57.5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98,959	398,114	85,717	95,867	102,208	102,435	386,227	94,466
	증가율	-3.2	2.1	-2.4	-2.9	-9.2	3.5	-3.0	10.2
	지급률	58.9	58.8	51.9	56.0	57.1	56.5	55.4	52.1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25,317	77,324	15,917	11,625	36,589	23,430	87,562	18,597
	증가율	41.0	31.8	-0.3	-20.2	70.3	-7.5	13.2	16.8
	지급률	305.1	133.1	160.7	140.3	82.1	228.0	119.9	166.7
전체	지급보험금	124,276	475,438	101,634	107,492	138,797	125,865	473,789	113,063
	증가율	3.4	5.9	-2.1	-5.1	3.5	1.3	-0.3	11.2
	지급률	70.5	64.6	58.0	59.9	62.1	65.8	61.6	58.8

주 :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6,060	32,602	6,878	7,674	8,288	7,620	30,460	7,837
	증가율	-27.6	3.9	-18.4	-18.3	-4.9	25.8	-6.6	13.9
	사업비율	16.9	23.2	20.0	20.7	20.3	18.6	19.9	19.4
사망보험	사업비	16,382	70,989	17,664	18,311	19,533	18,283	73,791	18,672
	증가율	-21.0	-8.0	-3.9	-0.7	9.9	11.6	3.9	5.7
	사업비율	22.6	24.1	24.6	25.2	26.9	25.3	25.5	26.0
생존사합보험	사업비	4,721	25,954	4,874	4,869	5,237	5,025	20,005	4,779
	증가율	-35.6	-3.0	-34.6	-34.1	-18.0	6.5	-22.9	-1.9
	사업비율	24.2	39.1	26.9	25.2	24.6	21.5	24.4	19.8
개인보험계	사업비	27,162	129,544	29,417	30,853	33,058	30,929	124,256	31,288
	증가율	-25.4	-4.3	-14.2	-12.4	0.6	13.9	-4.1	6.4
	사업비율	16.2	19.1	17.8	18.0	18.5	17.1	17.8	17.3
단체보험계	사업비	782	3,519	874	862	1,008	985	3,729	1,097
	증가율	-20.6	0.3	2.2	-9.9	9.0	25.9	6.0	25.5
	사업비율	9.4	6.1	8.8	10.4	2.3	9.6	5.1	9.8
전체	사업비	27,944	133,063	30,290	31,715	34,066	31,914	127,985	32,385
	증가율	-25.3	-4.1	-13.8	-12.4	0.8	14.2	-3.8	6.9
	사업비율	15.8	18.1	17.3	17.7	15.2	16.7	16.6	16.8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율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710	2,835	654	632	798	679	2,763	622
	성장률	-8.4	-7.8	-6.6	-0.1	0.7	4.3	-2.5	-5.0
	구성비	0.7	0.8	0.7	0.6	0.7	0.6	0.6	0.5
해 상	보험료	1,864	8,507	2,215	2,009	1,858	1,967	8,049	2,084
	성장률	23.1	20.9	2.2	5.1	-27.5	5.5	-5.4	-5.9
	구성비	2.0	2.3	2.2	1.9	1.5	1.7	1.8	1.7
자동차	보험료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28,252	112,224	29,307
	성장률	-3.2	1.2	-0.6	1.4	3.3	6.4	2.6	7.6
	구성비	28.0	29.2	27.2	26.9	23.7	25.0	25.6	24.3
보 증	보험료	2,966	11,529	3,165	2,890	3,106	3,126	12,287	3,194
	성장률	15.3	16.0	12.5	-1.3	10.1	5.4	6.6	0.9
	구성비	3.1	3.1	3.2	2.7	2.6	2.8	2.8	2.6
특 종	보험료	6,754	29,119	8,345	8,422	8,919	7,606	33,293	9,665
	성장률	4.3	6.9	15.8	12.5	16.3	12.6	14.3	15.8
	구성비	7.1	7.8	8.3	8.0	7.4	6.7	7.6	8.0
해 외 원보험	보험료	580	1,781	383	500	661	534	2,078	433
	성장률	51.3	58.4	71.1	46.6	3.8	-7.9	16.7	13.1
	구성비	0.6	0.5	0.4	0.5	0.6	0.5	0.5	0.4
장 기 손 해	보험료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63,158	232,988	66,651
	성장률	14.9	15.5	18.3	23.3	24.5	27.0	23.4	25.5
	구성비	52.5	50.4	53.1	54.5	49.5	55.9	53.2	51.3
개 인 연 금	보험료	3,449	12,853	3,654	4,048	4,971	5,169	17,841	5,527
	성장률	27.1	28.6	25.7	30.4	46.5	49.9	38.8	51.3
	구성비	3.6	3.4	3.7	3.9	4.1	4.6	4.1	4.6
퇴 직 보 험	보험료	1,110	6,807	758	521	6,828	573	8,680	960
	성장률	18.7	-17.6	46.4	27.3	43.1	-48.4	27.5	26.7
	구성비	1.2	1.8	0.8	0.5	5.7	0.5	2.0	0.8
퇴 직 연 금	보험료	939	3,322	534	541	5,049	1,994	8,119	2,385
	성장률	75.2	55.7	-29.4	39.3	307.9	112.4	144.4	346.4
	구성비	1.0	0.9	0.5	0.5	4.2	1.8	1.9	2.0
계	보험료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13,058	438,323	120,829
	성장률	9.3	10.3	11.7	14.9	21.1	19.4	16.9	20.8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7.9	32.4	37.1	54.3	39.9	21.2
	사업비율	35.8	49.1	16.6	43.5	36.3	60.0
	합산비율	73.7	81.5	83.8	97.7	76.3	81.2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301.8	82.4	89.0	85.4	81.9	36.1
	사업비율	29.8	24.1	26.3	44.2	36.2	28.7
	합산비율	331.6	106.5	115.4	129.6	118.1	64.8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3.6	66.1	47.9	31.5	88.0	-98.2
	사업비율	28.3	15.6	23.7	21.6	15.5	17.7
	합산비율	72.0	81.8	71.6	53.0	103.4	-80.6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8.3	61.4	67.2	63.0	57.4	52.8
	사업비율	27.4	26.0	18.6	24.4	32.6	24.9
	합산비율	95.7	87.4	85.8	87.4	90.0	77.8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0.5	39.2	29.0	29.0	35.2	42.6
	사업비율	66.7	61.9	56.5	60.0	77.3	59.3
	합산비율	117.2	101.1	85.5	89.0	112.6	102.0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93.7	57.9	60.0	60.2	59.3	71.8
	사업비율	26.4	28.7	27.5	30.1	26.8	25.2
	합산비율	120.1	86.6	87.5	90.3	86.1	97.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9.7	71.0	74.1	79.0	78.6	75.7
	사업비율	30.9	30.3	29.9	31.7	31.7	30.3
	합산비율	100.6	101.3	104.0	110.7	110.3	106.0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78.0	78.9	78.5	80.1	81.5	81.3
	사업비율	27.0	21.8	22.9	17.0	17.5	17.6
	합산비율	105.0	100.7	101.5	97.1	99.0	99.0
전 체	경과손해율	76.4	74.2	74.9	76.7	78.2	72.8
	사업비율	28.4	24.8	25.2	22.5	22.8	21.9
	합산비율	104.9	98.9	100.1	99.1	100.9	94.6

주 :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1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2010-7 보험종류별 진류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4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4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 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6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영문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10.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년 4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월간)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영문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0년 가을호 (통권 55호)

발행일 2010년 10월 일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02-2265-1330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